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현대 국어 장음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허 유 진

현대 국어 장음 연구

지도교수 이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허 유 진

허유진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7월

위 원 장 김 성 규 (인)

부위원장 김 현 (인)

위 원 이 진 호 (인)

<국문초록>

현대 국어 장음 연구

허유진

본고는 현대국어의 장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장음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국어에 어떤 종류의 장음이 존재하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1장에서 우선 장음의 개념을 정의한다. 본고에서는 “어떤 음소가 다른 환경에 놓인 동일한 음소보다 길게 실현되고 청자가 그것을 긴 소리로 지각할 수 있을 때” 해당 음소가 장음으로 실현된다고 본다.

2.2장에서는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장음의 종류를 살펴본다. 본고는 현대국어에 어휘적 장음, 보상적 장음, 동반적 장음, 표현적 장음이 존재한다고 보고 각각의 특징과 예시를 제시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대국어에 나타난 장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이 드러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어휘적 장음이 나타날 자리에 실현된 장음이 어휘적 장음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휘적 장음의 기술이 사전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도 문제가 된다. 둘째는 표현적 장음에 관한 것으로, 표현적 장음의 기능이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화에 나타난 장음이 표현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3장과 4장을 통해 이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했다. 3장에서는 어휘적 장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3.1에서는 어휘적 장음의 형성을 살펴보는데, ‘상성>장음’의 대응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를 통해 사전마다 다른 기술을 보이는 어휘적 장음에 대한 설명을 시도해본다. 3.2에서는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과정을 살핀다. 지금까지 시행된 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어휘적 장음이 어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속도로 비음운화됨을 포착한다.

4장에서는 표현적 장음을 다룬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문장 504개를 직접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한다. 우선 표현적 장음의 기능을 살펴본다. 이때 표현적 장음의 기능을 의미 층위와 화용 층위로 나누어 접근한다. 이후 표현적 장음의 음성적·음운적 특징을 살펴본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음절과 음소의 위치를 살펴보고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피치와 강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등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직접 수집한 504개의 표현적 장음을 대상으로 계량적 특징을 살펴본다. 수집된 단어 중 타입은 몇 개이고 그 중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지, 품사별 빈도는 어떠한지, 실현되는 위치는 통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등을 다룬다.

5장에서는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고 한계와 의의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한다.

주요어 : 장음, 장단, 어휘적 장음, 보상적 장음, 동반적 장음, 표현적 장음
학 번 : 2021-22625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 1

1.2. 기존 논의 검토 ····· 4

1.3. 논의의 구성 ····· 9

2. 장음의 개념과 종류 ····· 10

2.1. 장음의 개념 ····· 10

2.1.1. 장음의 범위 ····· 11

2.1.2. 장음 판별의 비교 대상 ····· 13

2.1.3. 장음의 실현 단위 ····· 17

2.1.4. 장음의 음운론적 층위 ····· 24

2.2. 장음의 종류 ····· 25

2.2.1. 어휘적 장음 ····· 26

2.2.2. 보상적 장음 ····· 32

2.2.3. 동반적 장음 ····· 34

2.2.4. 표현적 장음 ····· 41

3. 어휘적 장음 ····· 45

3.1. 상성과 장음의 대응 ····· 45

3.1.1. 중세국어 성조와 현대국어 장음 ····· 45

3.1.2. ‘상성>장음’ 대응의 예외 ····· 47

3.2.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 60

3.2.1. 활용 자료 검토 ····· 64

3.2.2.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용언 ····· 67

3.2.3.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한자어) ····· 81
3.2.4. 기저에 장음을 가진 단어 ····· 86
3.2.5. 분석 결과 종합 ····· 91

4. 표현적 장음 ····· 95
4.1. 표현적 장음의 기능 ····· 96
4.1.1. 표현적 장음의 의미적 기능 ····· 99
4.1.2. 표현적 장음의 화용적 기능 ····· 103
4.2. 표현적 장음의 음성적·음운적 특징 ····· 105
4.2.1. 표현적 장음의 실현 위치 ····· 106
4.2.2. 표현적 장음의 피치(pitch) ····· 118
4.2.3. 표현적 장음의 강도(intensity) ····· 124
4.3. 표현적 장음의 계량적 특징 ····· 129
4.3.1. 단어별 빈도 ····· 129
4.3.2. 품사별 빈도 ····· 132
4.3.3. 실현 음절별 빈도 ····· 134

5. 결론 ····· 136

참고문헌 ····· 139
부록 ····· 145
Abstract ····· 164

1. 서론

1.1. 연구 목적

현대국어 운소 체계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는 단어의 의미를 변별해주는 '어휘적 장음'이 더 이상 변별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국어 화자들은 '밤(夜)'과 '밤(栗)', '눈(目)'과 '눈(雪)', '말(馬)'과 '말(言)'을 장단을 통해 구별하지 않는다. '갈다(換)'를 단음으로, '갈다(磨)'를 장음으로 발음하지 않으며, 장단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현대 한국어에서 어휘적 장음이 지니는 운소로서의 지위가 매우 약해진 것이다.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어휘적 장음의 구분이 어지러워졌다는 보고는 1905년의 기록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7월 8일 양력 4번째 기사에서 지석영(池錫永, 1855~1935)은 고종(高宗, 1852~1919)에게 "정해진 높낮이법을[1] 전혀 잘못 전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雪)'[눈:]과 사람의 '눈(目)'[눈]이 서로 뜻이 뒤섞이고, 동쪽이라는 '동(東)'[동]자와 움직인다는 '동(動)'[동:]자가 서로 음이 같아져 대체로 말이나 사물 현상을 기록하는 데 막히는 점이 많으므로 신이 늘 한스럽게 여겼습니다.(且高低之定式, 全失其傳, 所以雪目混義, 東動同音, 凡紀言事, 多有窒礙, 臣常恨焉。)[2]"라고 하며 어휘적 장음과 단음이 구분되지 않음을 한탄한다.(김지은 2022:4) 뒤이어 이루어진 이숭녕(1959)에서도 상당수의 어휘 항목에서 장단의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20세기 초 무

1) 여기서 '높낮이'는 음의 '길이'를 의미한다.
2)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해석을 따랐다. 다만 각 단어의 장단 표시는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렵부터 이미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국어 화자의 발화에서 심심찮게 확인할 수 있는 장음은 과연 어휘적 장음이 정말로 비음운화된 것인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아래는 필자가 20대 화자들의 일상 발화에서 관찰한 장음이다.

(1) ㄱ. 저 **밤**빵이 맛있어 보여.
ㄴ. **거**짓말 하지 마.
(장음이 나타나는 음절에 밑줄을 표시함(이하 동일))

(1ㄱ)과 (1ㄴ)의 '밤'과 '거짓말'에 나타난 장음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어휘적 장음과 일치한다. '밤'은 [밤:]으로, '거짓말'은 [거:진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현대국어에서 어휘적 장음이 사라졌다면 이때 나타나는 장음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실 어휘적 장음은 관습적으로 계승되어 화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지켜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 어휘적 장음과 동일한 위치에서 장음이 나타난 것일까? 가령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것일 수도 있다. 아래는 표현적 장음의 예이다.

(2) ㄱ.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ㄴ. 이 추운 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다리가 아주 **시뻘**겋더라고.[3)]

(2ㄱ)과 (2ㄴ)의 장음은 각각 '제일'의 의미를 강조하고 '시뻘건'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특정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거나 정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장음을 표현적 장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1)에 나타난 장음을 표현적 장음으로 볼 수는 없을까? 발화에서 '밤'과 '거짓말'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나타난 표현적 장음일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3) '시뻘겋더라고'의 경우 '시'가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도 있고, 'ㅃ'의 폐쇄 구간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시'와 '뻘'모두에 밑줄을 표시하였다.

현재로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떤 장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휘적 장음인지 표현적 장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각 장음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표현적 장음의 경우 그 기능이나 특징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현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결국 현재로서는 (1)에 나타난 장음이 어휘적 장음인지 표현적 장음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 의해 나타난 장음인지 알기 어렵다.

이처럼 발화에서 나타나는 장음이 무엇 때문이라고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장음 연구가 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어휘적 장음이나 보상적 장음, 음성적 길이와 같은 특정 종류의 장음에 관한 개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이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장음 연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 결과 특정 종류의 장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었으나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음이 과연 어떤 이유에 의해 실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가령 '밤(栗)'[밤:]이 어휘적 장음을 갖는 단어이고 어휘적 장음이 비음운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휘적 장음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화자의 발화에서 '밤(栗)'이 장음으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어휘적 장음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화에서 나타나는 장음을 대상으로 현대국어의 장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국어에 어떤 종류의 장음이 존재하고,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지를 다룰 것이다. 이때 연구 대상은 현대 서울말로 한정한다. 방언에 따라 장음이 나타나는 단어가 달라질 뿐 아니라 성조가 있는 방언과 없는 방언 사이에도 장음의 실현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대 서울말의 장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발화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장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1.2. 기존 논의 검토

한국어의 장음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장음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휘적 장음이나 음성적 장음과 같은 특정 종류의 장음에 관한 것이다.

1) 장음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연구

최현배(1929)는 소리의 길고 짧음을 나타내는 개념을 '소리의 동안'이라고 하며 이를 '짜른소리(短音)', '예사소리(常音, 中音)', '긴소리(長音)'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한국어의 '소리의 동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긴소리'와 '짜른소리'만 있으면 된다고 하여 한국어의 장음을 '단음'과 대립되는 이분법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장음에는 어휘적 장음에 해당하는 '마조길이'와 사람마다 말 빠르기가 다른 데서 기인하는 '따로길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최현배(1929)는 어휘 의미 변별의 기능을 갖는 장음뿐 아니라 화자의 말 빠르기에 의해 나타나 시차적 기능을 가지지 않는 장음까지도 '장음'의 범위에 포함시킨 듯하다.

김수형(2001)은[4] '음의 길이'를 음성학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것과 음운론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전자를 '지속'(duration, length, chrone, 때로는 allochrone), 후자를 '음장'(quantity, chroneme)으로 보았다. 이때 '지속'이란 "단순히 물리적·생리적인 조음시간의 동안"이며 '음장'은 "모음 위에 의도적으로 얹어서 어휘적 대립에 시차적 특질(distinctive feature)로 이용하는, 상대적으로 파악된 물리적 길이"로 정

4) 김수형(1973)을 발전시킨 것이다. 김수형(1973)과 김수형(2001)은 용어의 사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김수형(1973)에서는 음성학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음의 길이를 '길이', 음운론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음의 길이를 '지속'으로 보았지만 김수형(2001)에서는 전자를 '지속', 후자를 '음장'으로 본다. 다만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본고에서는 발전된 논의인 김수형(2001)만을 제시한다.

의된다. 어휘 의미 변별에 사용되는 길이인 '음장'은 '장음'과 '단음'으로 이분되는데, 이는 김수형(2001)이 시차적 기능을 하는 '어휘적 장음'만을 '장음'의 범위에 포함하였음을 보여준다.

김수형(2001)에서는 또한 물리적·생리적 조음 시간인 '지속'을 발생 요인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한다. 1) 음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서 생기는 길이 2) 선행 또는 후행하는 음성의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길이 3) 개리연접(open transition or open juncture)을 더할 때 생기는 길이 4) Rhythm을 이루기 위해 생기는 길이 5) 개음절(開音節) 모음의 길이 6) 잘못을 보상하기 위한 길이가 그것이다.

박주경(1985)은 '장음'을 '단음'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보고, 음의 길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장단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박주경(1985) 역시 장단음을 음성학적 장단음과 음운학적 장단음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서 음성학적 장단음은 김수형(1973)의 '지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순전히 물리적·생리적인 조음활동에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반면 음운론적 장단음은 어떠한 기능을 갖는 장음으로, 의미 분화에 쓰이는 장단음과 감정적 표현에 쓰이는 장단음이 음운학적 장단음에 속한다. 이처럼 박주경(1985)은 김수형(1973)과 달리 '장음'을 '길게 나는 소리'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에서 언급된 '장음'의 개념과 범위를 살펴보았다. 그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논의에서 정의하는 장음의 개념과 범위가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음'이란 용어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장에서 '장음'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2) 특정 종류의 장음에 관한 연구

음운론적으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장음은 어휘적 장음이다.

특히 어휘적 장음이 현대국어에서 여전히 변별적인지에 관한 실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조사마다 그 결과가 상이하여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가령 김수형(2001)은 1996년에 전국 17개 지역 성인 남녀 71명과 고등학교 1·2학년 남녀 학생 689명을 대상으로 녹음과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현대 한국어에는 지역과 연령에 상관없이 어휘적 장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정명숙·황국정(2000)의 세대별 음장 실태 조사는 청년층에서는 장단의 구별이 거의 사라졌지만 장년층에서는 어느 정도의 구별이 존재하며, 노년층에서는 확실히 장단을 구별한다고 보고한다. 두 조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외에도 어떤 실태 조사가 존재하고 그것들이 어째서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지, 과연 어휘적 장음이 비음운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3.2에서 논할 것이다.

어휘적 장음과 상성의 대응에 관한 논의도 적지 않게 이루어졌다. 이기문(1972:153)은 중세국어의 성조가 없어지면서 상성이 잉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음장이 현대국어의 장모음이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상성은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중세국어에서 평성과 거성은 현대국어에서 단음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상성과 장음의 대응이 모든 단어에서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중세국어에 상성이었던 것이 현대국어에서는 단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상성이 아니었던 것이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김성규(2006)에서는 1음절 용언 어간을 중심으로 '상성>장음'의 대응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1음절 용언 어간 중 말음에 'ㅁ'이 오는 것, 역사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을 가졌던 것, 그리고 불규칙 활용을 보이는 것들은 중세국어에서 상평교체형으로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국어에서 장단교체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단어들이 모두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되는 체계적 압박에 의해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김성규(2006)의 논의에 대해서는 3.1에서

자세히 다룬다.)

권경근(1999)에서는 '상성>장음'의 대응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입성을 통해 설명한다. 종성에 입성이 오는 경우 음성적으로 장음으로 실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성>장음'의 대응이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걷다', '곱다', '낱', '넷', '잇따르다'와 같이 종성에 입성이 오면서도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어휘적 장음에 비해 표현적 장음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현적 장음의 정의를 다룬 논의를 먼저 살펴보면, 배주채(2003:36)는 표현적 장음이란 "특정한 단어의 어감(語感)을 변화시키기 위해 원래 단모음인 것을 장모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이진호(2012:202)는 "어떤 사실의 강조나 의미 초점은 물론 청자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 등을 표출하는 일체의 표현적 기능이 길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적 장음으로 보았다.

표현적 장음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 않은 편인데, 음운론적 연구는 고언숙(2017)에 의해, 형태론적 연구는 김창섭(1991)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선 고언숙(2017)은 표현적 장음이 '어휘 의미 강화' 기능뿐 아니라 '시간적·공간적 지속'의 기능도 한다고 보았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구에게 "여기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5] 쉬고 있어."라고 했다면 이때의 표현적 장음은 편안한 상태가 일시적으로 지속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또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의 표현적 장음은 노크 소리가 공간을 통해 전파되어 그 소리가 공간에 일시적으로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본다. 고언숙(2017)는 또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길어지는 음소가 단어에 따라 상이함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첫음절이 개음절인 단어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면 모음이 길어지지만 폐음절일 경우 종성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매우'는 개음절이므로 첫음절의 모음인 'ㅐ'가 길어짐으로써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고, '충

5) '::'는 표현적 장음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분히'는 폐음절이므로 종성인 'ㅇ'이 길어짐으로써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다고 본다.[6)]

김창섭(1991)은 표현적 장음을 형태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표현적 장음이 '어휘 의미 강화'뿐만 아니라 '지시 영역 넓힘'의 기능도 함을 지적한다. 완화접미사가 결합한 '하다' 형용사의 어간 말에 표현적 장음이 올 경우 해당 장음은 '지시 영역 넓힘'의 기능을 하다는 것이다. 이때 '지시 영역 넓힘'은 지시 영역을 ± 어느 방향으로든 확대하여 '더욱 그렇다'뿐 아니라 '덜 그렇다'의 의미까지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새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벽이 노르스름::하니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라고 했다면 이때의 '노르스름::'은 노르스름한 상태 그대로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어휘 의미 강화) '너그러운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노르스름하다고 볼 수 있다'(지시 영역 넓힘)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음의 실현이 의미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하고 순전히 음성적으로만 길게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김수형(2001)에서 언급한 '지속'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이에 관해서는 실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가 음소의 고유 지속시간(intrinsic duration) 측정이다. 이는 Yang(1978), 지민제(1993), 오재혁(2021)에 의해 이루어졌다. 특히 오재혁(2021)은 서울 코퍼스를 바탕으로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차례로 제거하여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측정하였다. 이 외에도 인접하는 음소의 종류나 음절의 구조에 따라 음소의 길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가 Han(1964), Yang(1978), Moon(2017), 오재혁(2017) 등에 의해 다루어졌다.

보상적 장음의 경우 장음 그 자체보다는 '보상적 장음화'라는 음운 현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조남민(2010), 박초흔(2023)에서 보상적 장모음화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를 진행하며 보상적 장음의 길이를 제시한 것을 제외하면, 보상적 장음 그 자체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

6) 구체적인 음성 분석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처럼 한국어의 장음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현대국어 장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모두 5장으로 되어 있다. 이 중 1장은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된 선행 연구를 제시하는 도입부에 해당하며, 5장은 마무리 부분이다. 2장부터 4장까지가 본문에 해당하는데 각 장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장에서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장음'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대 한국어에 나타나는 장음의 종류를 살펴본다. 이로써 현대국어에 어떠한 종류의 장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장에서는 어휘적 장음을 다룬다. 우선 현대국어에서 어휘적 장음을 갖는 단어들이 어떻게 장음을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본다. 중세국어 성조와 현대국어 장음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설명해볼 것이다. 이후 현대국어에 여전히 어휘적 장음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본다. 기존의 어휘적 장음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어휘 유형을 중심으로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과정을 자세히 고찰할 것이다.

4장에서는 표현적 장음을 다룬다. 지금껏 다른 장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연구되었던 표현적 장음의 기능과 음성적·음운적 특징, 계량적 특징 등을 살피는 부분이다. 표현적 장음 연구에는 필자가 직접 수집한 문장 504개를 활용한다.

2. 장음의 개념과 종류

2.1. 장음의 개념

‘음의 길이’를 의미하는 용어는 연구 대상에 따라 ‘길이’, ‘장단’, ‘장단음’, ‘긴소리’, ‘지속’, ‘음장’ 등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가령 김수형(2001)에서는 어휘적 장음은 ‘음장’, 음성적 장음은 ‘지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다른 논의에서도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동일한 용어라도 연구자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사용한 경우가 적지 않고, 같은 개념인데도 연구자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본고는 발화에서 나타나는 ‘길이가 긴 음’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길이가 긴 음’이라는 의미로 ‘장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7] 그런데 ‘장음’ 역시 ‘음의 길이’와 관련된 용어라는 점 말고는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장음’의 개념은 무엇이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지시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음운론적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고에서는 “어떤 음소가 다른 환경에 놓인 동일한 음소보다 길게 실현되고, 청자가 그것을 긴 소리로 지각할 수 있을 때” 해당 음소가 장음으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이는 네 가지 조건을 고려한 ‘장음’의 개념이다. 네 가지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 각 절에서 조건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며 ‘장음’을 정의해보고자 한다.

---

7) 본고에서는 ‘장음’만을 다룰 뿐 ‘단음’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음장’이란 용어 대신 ‘장음’을 사용한다.

<장음 정의의 네 가지 조건>

1. 장음의 범위
2. 장음 판별의 비교 대상
3. 장음의 실현 단위
4. 장음의 음운론적 층위

2.1.1. 장음의 범위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음'의 범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가령 김수형(2001)은 어휘적 장음만을 장음으로 보았으나 박주경(1985)은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지 않는 길이도 장음에 포함하였다. 음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한 길이나, 인접 음소에 의해 생기는 길이와 같은 음성적 길이 역시 장음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장음의 범위에 대한 연구자들의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우선 장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화자가 어떤 음을 길게 소리 낸다고 해서 청자가 항상 그 음을 긴 음으로 지각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는 길게 발음했지만 청자에게는 길지 않게 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자의 산출과 청자의 지각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다는 데에 기인한다. 가령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한국어 청자는 영어 화자의 Busan과 Pusan을 모두 '부산'으로 지각한다. 화자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하여 발음하였지만 청자는 그러한 구분을 지각하지 못한 것이다. 음의 길이 역시 마찬가지다. 화자는 길게 발음했지만, 청자는 길다고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한국어 원어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Han(1964:36~41)의 청취 실험에 따르면, 1.3:1의 지속 비율을 갖는 장단음은 서로 구분이 안 될 만큼 모호하게 들린다고 한다. 장음과 단음의 길이 비율이 1.3:1보다 크지 않다면 청자가 그것이 장음이라고 지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현대국어의 장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발화에서

나타나는 장음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 밤빵이 맛있어 보여.”라는 문장에서 ‘밤’이 길게 들리는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자가 긴 음으로 지각하는 것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에 본고는 청자가 긴 음으로 지각하는 것을 ‘장음(length)’으로, 그렇지 않은 것을 ‘지속(duration)’으로 보고자 한다. 즉 본고에서 ‘장음’은 화자가 길게 산출할 뿐 아니라 청자 역시도 그것을 긴 음으로 지각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 1> 산출과 지각에 따른 장음과 지속의 구분

	화자(산출)	청자(지각)
장음(length)	O	O
지속(duration)	O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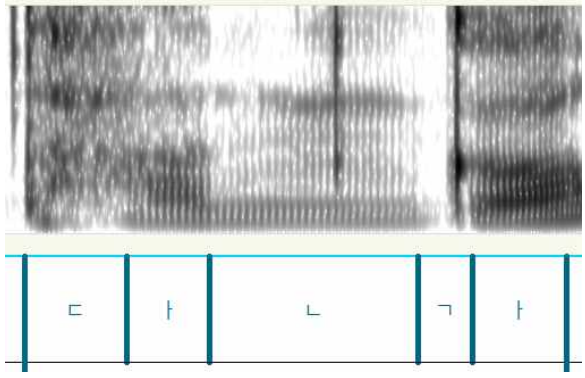
그렇다면 지속(duration)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음소가 놓인 환경에 따라 자동적으로 음소가 길게 실현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환경에 따라 음의 길이가 길게 나타나기도 하고 짧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가령 Bloomfield(1958:109~110)는 영어의 모음은 무성 자음 앞보다 유성 자음 앞에서 더 길게 나타남을 지적했다. pan, pad와 같은 유성 자음 앞 모음의 길이가 pat, pack과 같은 무성 자음 앞 모음의 길이보다 길게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후 Lehiste and Peterson(1960)은 영어에서 무성 자음 앞 모음의 길이와 유성 자음 앞 모음의 길이의 비가 대략 2:3 정도라고 보고하였다. Elert(1964)는 이러한 현상이 스웨덴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무성 자음 앞 모음의 길이와 유성 자음 앞 모음의 길이의 비가 영어보다 작게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지속 연구는 Han(1964), Yang(1978), Moon(2017), 오재혁(2016), 오재혁(2017), 오재혁(2021)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중 오재혁(2016), 오재혁(2017), 오재혁(2021)은 문장과 어절 내 위치에 따른 모음의 길이와 인접 분절음에 따른 모음의 길이, 그리고 음

절 구조에 따른 모음의 길이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긴 음과 짧은 음의 길이의 비가 1.3:1보다 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8] 즉 어떠한 환경에 의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긴 음은 청자에게 장음으로 지각되지 않는 지속(duration)인 것이다.

2.1.2. 장음 판별의 비교 대상

앞서 장음을 '길이가 긴 음'이라고 했는데, 이때 길이 비교의 대상은 무엇일까? 어떤 음의 길이를 다른 음의 길이와 비교할 때, 그 비교 대상은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첫째는 인접한 다른 음소와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빵, 너무 단가[단가/당가]?"에서 '단'의 종성 'ㄴ/ㅇ'은 인접한 음소인 'ㄷ'이나 'ㅏ', 'ㄱ'보다 길게 나타난다. 이는 아래의 스펙트로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단가'[단가]의 스펙트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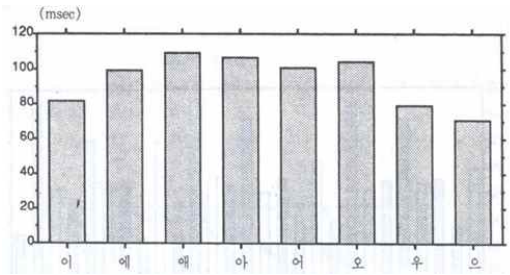
8) 가령 오재혁(2016)은 어절 내 위치에 따른 모음 길이 연구에서 '초<중<말'에 따라 모음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였는데 그 길이의 비는 1:1.05:1.31이었다. 또한 음절 유형별 단모음의 길이는 'CVC<VC<CV<V' 순으로 길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그 길이의 비는 1:1.22:1.33:1.64였다. 따라서 CVC와 V의 모음의 길이는 청자도 지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VC를 제외한 'VC<CV<V'의 길이의 비는 1:1.08:1.33이므로 청자가 지각하기 어려운 길이의 차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다른 환경에 놓인 동일한 음소의 길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가령 앞서 살펴보았던 Bloomfield(1958:109~110)의 논의에서는 유성 자음 앞에 오는 모음의 길이가 무성 자음 앞에 오는 모음의 길이보다 길다고 하였다. pad와 pat의 모음을 비교할 때, 후자보다 전자의 모음이 더 길다는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모음이 다른 환경에 놓였을 때의 길이를 비교할 수도 있다.

이처럼 어떤 음이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의 비교 대상은 인접한 다른 음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환경에 놓인 같은 음소가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기준으로 장음을 판별할 것인데 그 이유는 '내재적 길이(intrinsic duration)'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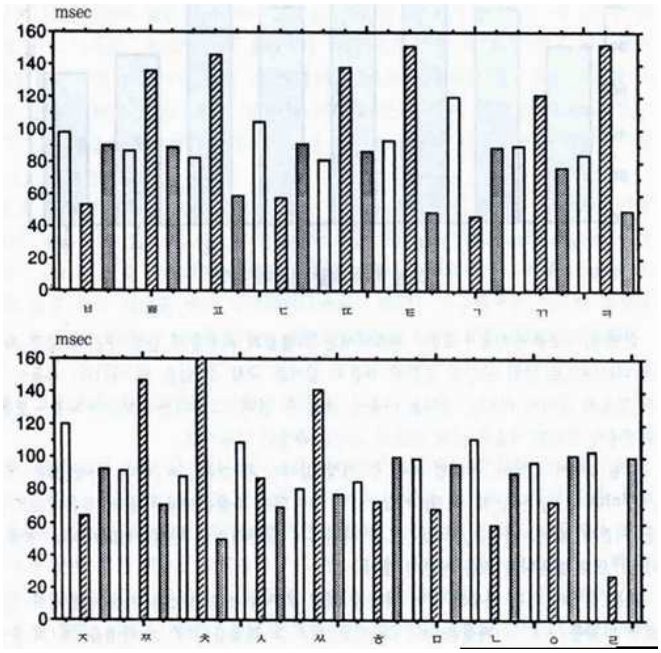
내재적 길이란 어떤 음소가 지니는 고유한 길이를 말한다. 음소는 조음 방법이나 위치와 같은 생리적 차이에 의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음성학적 길이를 갖는다.(Lehiste and Peterson 1960) 언어 보편적으로는 대체로 저모음이 고모음보다 긴 내재적 길이를 갖는다고 보고되어 왔다. 개구도가 작은 고모음보다 개구도가 큰 저모음을 발음할 때 조음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내재적 길이에 관해서는 지민제(1993)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지민제(1993)는 국어 자음과 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제시하는데, 이에 따르면 국어에서 가장 긴 모음은 저모음인 /애/와 /아/이고, 고모음인 /이/, /우/, /으/는 다른 모음들에 비해 짧게 나타난다. 이 중 가장 짧은 모음은 /으/이며, 그 외 모음의 내재적 길이 차이는 통계적인 의미가 없다.



<그림 2> 지민제(1993)에서 제시한 한국어 모음의 내재적 길이

자음의 경우 모든 조음 과정이 음향적으로 나타나는 환경을 관찰하기 위해 /모음+자음+모음/ 환경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래의 <그림 3>에서 빗금으로 표시된 막대는 자음의 길이를, 빗금 막대 양쪽의 검은 막대와 흰 막대는 각각 선후행 모음의 길이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민제(1993)는 국어 자음 중 내재적 길이가 가장 긴 것은 /ㅊ/이고 가장 짧은 것은 /ㄹ/이라고 보고하고 있다.[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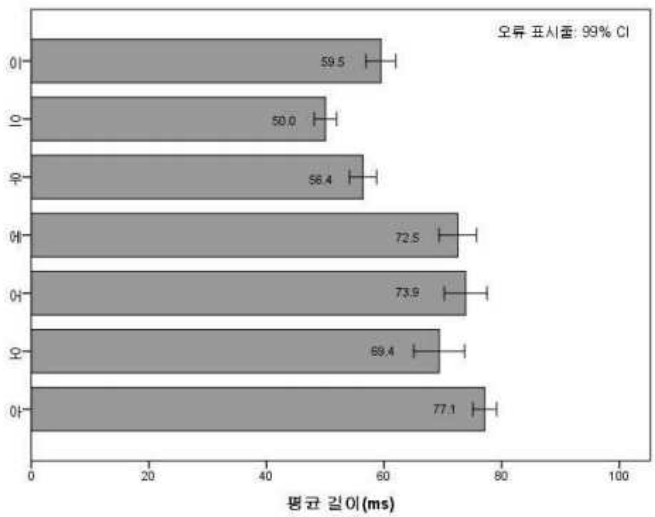
<그림 3> 지민제(1993)에서 제시한 국어 자음의 내재적 길이

이처럼 지민제(1993)는 국어의 자음과 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험 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데, 이는 오재혁(2021)의 조사를 통해 해결된다.

오재혁(2021)은 서울 코퍼스를 기반으로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9) Han(1964)에서는 마찰음 'ㅅ', 'ㅆ'이 가장 길다고 보아 지민제(1993)의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변인을 차례로 제거하여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를 측정하였다.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율적 위치와 음절 유형, 그리고 인접 자음이었는데, 이들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측정한 한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는 아래의 <그림 4>와 같다. 오재혁(2021)에 따르면 국어 단모음은 고모음과 중·저모음이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모음 중에서는 /으/가 유의미하게 짧고, 중·저모음 중에서는 /오/가 /아/보다 유의미하게 길다. 이는 고모음이 다른 모음에 비해 내재적 길이가 짧으며, 그 중 /으/가 가장 짧고, /애/와 /아/가 가장 길다고 보았던 지민제(1993)의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림 4> 오재혁(2021:333)에서 제시한 국어 단모음의 내재적 길이

이처럼 음소는 그 고유의 길이인 내재적 길이를 지닌다.[10] 이런 내재적 길이가 존재하는 이상 서로 다른 음소를 비교하여 장음을 판별하는 일은 무의미하다. '각'와 '긱'의 모음 길이를 비교하여 'ㅏ'가 'ㅣ'보다 길다고 하는 것은 내재적 길이의 확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10) 다만 음소는 늘 발화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내재적 길이를 직접 관찰할 수는 없다. 내재적 길이는 이론상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 길이인 것이다.

음소가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에는 다른 환경에 놓인 동일한 음소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2.1.3. 장음의 실현 단위

본 항에서는 장음이 어떤 단위에서 실현되는지를 살펴본다. 한국어 장음의 실현 단위에 관한 논의는 주로 어휘적 장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 장음의 음운론적 시차성을 지적한 가장 이른 기술인 *Grammaire coréenne*(1881)에서는 '밤(栗)'과 '밤(夜)'의 의미 차이가 각각 장모음과 단모음을 지닌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11](이병근 1990:109) 주시경과 김두봉 역시 음장은 모음의 성질임을 지적한 바 있다.[12] 장음의 실현 단위를 모음, 즉 음소로 본 것이다.

그런데 사전 자료에서는 이와는 다른 기술이 나타난다. 『조선어사전』(1938), 『표준조선말사전』(1947), 『조선말큰사전』(1947), 『조선어소사전』(1956), 『조선말사전』(1960~62)은 발음이 길게 나는 글자 위에 '一'를 그어 장음을 표시하였으며 『국어새사전』(1958), 『새우리말큰사전』(1975), 『국어대사전』(1961) 및 그 수정증보판(1982)은 길게 발음되는 음절 뒤에 ':'를 붙여 장음을 표시한 것이다.(이병근 1990:110) 음절 전체에 표시를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음소가 길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음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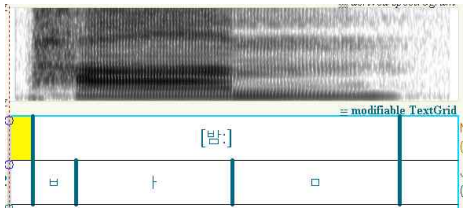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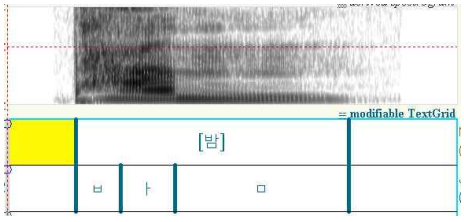
11) *Grammaire coréenne*(1881)에서는 '밤(栗)'[밤:]을 'pām(châtaigne)'으로, '밤(夜)'을 'pam(nuit)'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의 음성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장음의 실현 단위를 모음으로 보는 데 영향을 준 듯하다.

12)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四十七)에서 "그음이길던지졀은것은다모음의분별이요ᄌᆞ음에는아모샹관업스니"라고 하였고 『國語文典音學』(三六)에서 "高低長短廣狹은母音에當ᄒᆞᆫ分別이요子音에關係가無ᄒᆞᆫ즉此를分別ᄒᆞ는表는母音字에附ᄒᆞᆷ이音理에適當ᄒᆞ니라."라고 하였다.

김두봉은 『조선말본』(四四)에서 '긺소리'와 '이사소리'가 있다고 하며 '새'(날새어떠하오릿가), '말'(이말에짚이많소), '배'(글을배고)는 긺소리의 예들이고 '새'(절새는날아들고), '말'(다락가튼말을타고), '배'(먹물이배고)'는 이사소리의 예들인데 "'새', '말', '매'들의 길이는 ㅐㅏㅐ들의 길이니라."라고 하여 어휘적 장음이 모음이 길어지며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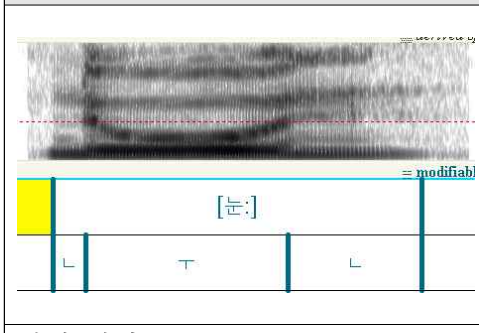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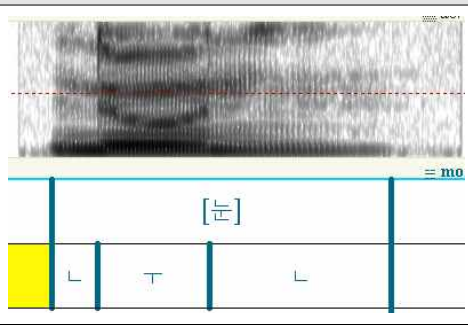
전체를 장음의 실현 단위로 보는 듯하다.

어휘적 장음이 나타날 때 길어지는 것이 모음인지 음절 전체인지는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5>~<그림7>은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단어들의 스펙트로그램이다.[13] 세 경우 모두 장음형의 길이가 단음형보다 긴데, 그 중에서도 분명한 길이의 차를 보이는 것은 모음이다. 가령 <그림 5>의 '밤(栗)'과 '밤(夜)'의 예에서 초성 'ㅂ'과 종성 'ㅁ'의 길이는 장음형과 단음형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중성 'ㅏ'의 길이는 장음형이 단음형보다 세 배 정도 길게 나타난다. 이는 <그림6>, <그림7>에서도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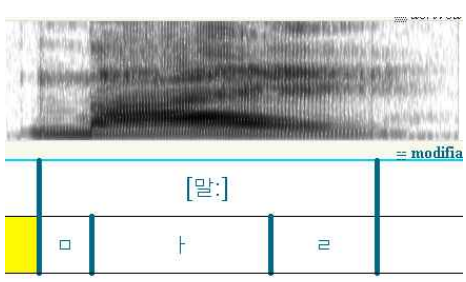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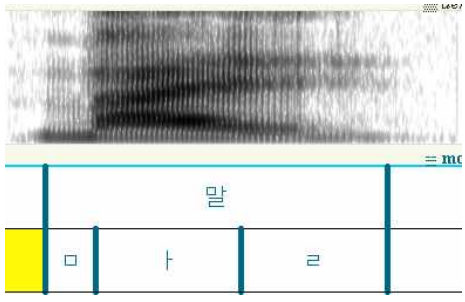
밤(栗) [밤:]	밤(夜) [밤]
	
전체 길이 0.675s : 0.080(ㅂ)+0.257(ㅏ)+0.308(ㅁ)	전체 길이 0.487s : 0.080(ㅂ)+0.097(ㅏ)+0.310(ㅁ)

<그림 5> '밤(栗)'과 '밤(夜)'의 스펙트로그램

13) 발음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제공하는 전문가의 발음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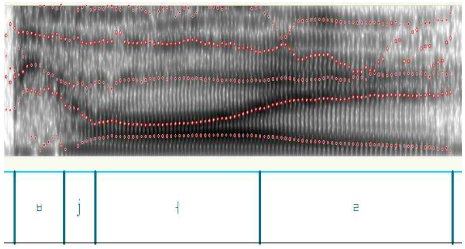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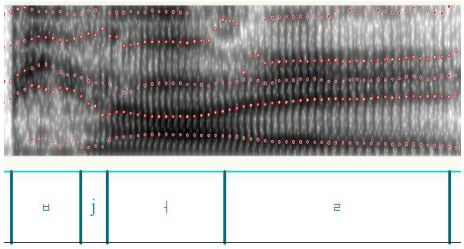
눈(雪) [눈:]	눈(目) [눈]
	
전체 길이 0.647s : ㄴ(0.057)+ㅜ(0.355)+ㄴ(0.234)	전체 길이 0.441s : ㄴ(0.058)+ㅜ(0.147)+ㄴ(0.237)

<그림 6> '눈(雪)'과 '눈(目)'의 스펙트로그램

말(語) [말:]	말(末) [말]
	
전체 길이 0.647s : ㄴ(0.057)+ㅜ(0.355)+ㄴ(0.234)	전체 길이 0.398s : ㅁ(0.059)+ㅏ(0.169)+ㄹ(0.171)

<그림 7> '말(語)'과 '말(末)'의 스펙트로그램

이중모음의 경우 단모음의 길이가 길어진다. 아래는 명사 '별(星)'[별:]과 관형사 '별'[별]의 스펙트로그램이다. 앞선 예들과 마찬가지로 어휘적 장음이 나타날 때 두드러지게 길어지는 것은 단모음 '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별(星) [별:]	별(관형사) [별]
	
전체 길이 0.646s : ㅂ(0.073)+j(0.046) +ㅕ(0.243)+ㄹ(0.285)	전체 길이 0.387s : ㅂ(0.061)+j(0.024) +ㅕ(0.104)+ㄹ(0.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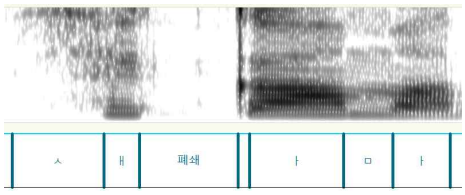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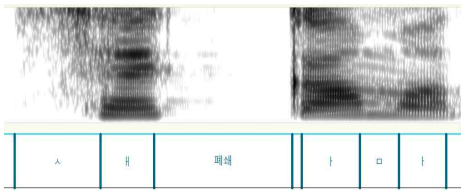
<그림 8> '별(星)'과 '별(관형사)'의 스펙트로그램

모음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어휘적 장음이 실현된다는 것은 표준발음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준발음법 3장 6항에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장단은 모음의 성질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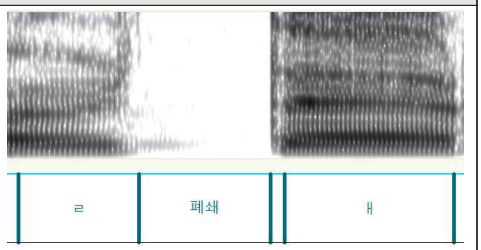
한편 표현적 장음을 다룬 연구에서는 모음뿐 아니라 자음도 장음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희승(1960:123~125)은 '샛까맣다', '샛빨갛다', '샛파랗다'에서 'ㄲ', 'ㅃ', 'ㅍ'의 폐쇄 구간이 길어지는 것을 장자음으로 보고, 장자음을 가진 말들은 그 의미가 보통의 경우보다 매우 강조된다고 하였다. 허웅(1993:124~125) 역시 강조한 발음 '절대로'[절때로]의 'ㄸ'을 장자음으로 보며, 장자음은 대개 감정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모두 폐쇄 구간이 길어지는 것을 자음의 장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강조의 표현이 담긴 '샛까맣다'나 '절대로'의 스펙트로그램을 살펴보면 강조의 표현이 담기지 않았을 때보다 폐쇄 구간이 2배 정도(혹은 이상) 길게 나타나긴 하지만(아래의 <그림 9>, <그림 10> 참조[14]), 폐쇄 구간은 묵음의 구간이라 물리적으로 소리가 나지도 않는데 과연 그것이 길어지는 것을 장음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의

14) 필자가 직접 녹음하였다.

문이 들기 때문이다.

강조된 발음	강조되지 않은 발음
	
폐쇄 구간의 길이 0.117	폐쇄 구간의 길이 0.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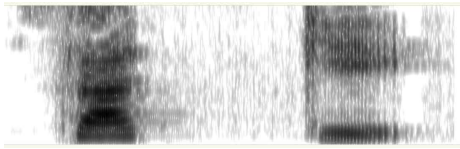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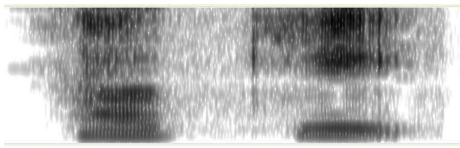
<그림 9> ‘샛까맣다’의 폐쇄 구간 스펙트로그램

강조된 발음	강조되지 않은 발음
	
폐쇄 구간의 길이 0.329	폐쇄 구간의 길이 0.119

<그림 10> ‘절대로’의 폐쇄 구간 스펙트로그램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자음의 장음이 변별적 기능을 하는 다른 언어를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는 자음의 길이가 어휘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지 못하지만, 외국어 중에는 자음의 길이가 변별적 기능을 하는 언어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루간다어, 이탈리아어, 필리핀어, 일본어, 에스토니아어 등이 그렇다. 이 중 사전에서 발음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어와 이탈리아어의 장자음을 살펴보았다. 아래의 <그림 11>은 일본어‘さっき(先)’(sakki)와 ‘さき(先)’(saki)의 스펙트로그램이다.[15]

15) 외국어 사전에서 제공하는 발음을 이용하였다.

さっき(先)	さき(先)
	
폐쇄 구간의 길이 0.287	폐쇄 구간의 길이 0.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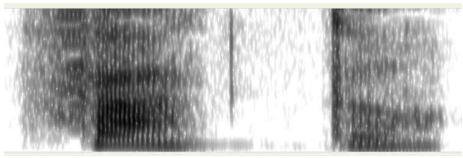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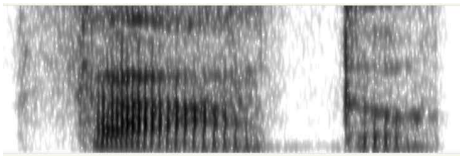
<그림 11> 일본어 'さっき (先)'와 'さき'(先)의 스펙트로그램

제시된 스펙트로그램의 중간 부분에 비교적 하얗게 나타난 구간이 폐쇄 구간인데, 장자음을 가지는 'さっき '의 폐쇄 구간이 그렇지 않은 'さき'의 폐쇄 구간보다 두 배 이상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폐쇄 구간의 길어짐으로써 장자음이 실현되고 그로써 'さっき '와 'さき'의 의미가 변별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이탈리아어에서도 확인된다. 아래의 <그림 12>은 이탈리아어 'fatto(done)'와 'fato(fate)'의 스펙트로그램이다. 마찬가지로 희게 나타나는 부분이 폐쇄 구간인데, 장자음으로 실현된 'fatto'의 폐쇄 구간이 그렇지 않은 'fato'의 폐쇄 구간보다 2배 정도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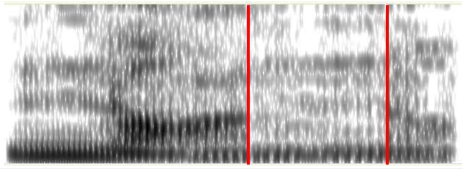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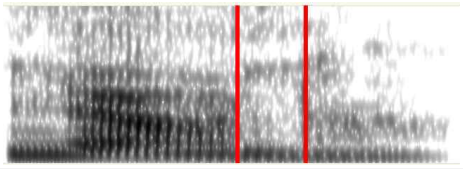
16) 'fatto' 는 중복자음(double consonants, geminates)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장자음과 중복자음의 차이는 무엇일까? 허웅(1993:124~125)에 따르면 중복 자음(double consonants, consonnes géminées)은 소리의 중간에 형태소 경계가 있고 음절의 경계가 있으며, 음성학적으로 긴소리의 중간에 후두 긴장(tension)의 변화가 있다.(김수형 2001:21) 예로는 '돌로(돌+로)'[to:l:o], '흘러(흐르+어)'[hɬl:ə]를 들 수 있다. 영어의 경우 중복자음의 예로 'bukkeis(book-case), pennaif(pen-knife)를, 장자음의 예로 hil(hill)의 'l', pen(pen)의 'n'을 들 수 있다.(Jones 1962:117). 'fatto'의 경우 소리의 중간에 형태소 경계가 없으며 후두 긴장이 중간에서 약화되지도 않기 때문에 중복자음이 아닌 장자음으로 볼 수 있다.

17) 엄밀히 말하자면 'fatto'[fat.to]와 'fato'[fa:.to]는 장자음뿐만 아니라 모음a의 장단에서도 차이를 보이므로 최소대립쌍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의 목적은 장자음이 나타날 때의 폐쇄 구간의 확인에 있으므로 둘의 폐쇄 구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fatto(done)	fato(fate)
	
폐쇄 구간 0.179	폐쇄 구간 0.095

<그림 12> 이탈리아어 ‘fatto’와 ‘fato’의 스펙트로그램

이는 비음이 장음으로 실현될 때에도 동일하다. 아래의 <그림 13>은 이탈리아어 ‘nonno(할아버지)’와 ‘nono(아홉)’의 스펙트로그램이다. 파열음과 달리 비음은 폐쇄 구간에서도 코를 통해 기류가 흐르기 때문에 앞서 살펴보았던 스펙트로그램처럼 폐쇄 구간이 하얗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신 매우 낮은 주파수대에 F1이 나타나고 F2는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해 비음의 폐쇄 구간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스펙트로그램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구간이 폐쇄 구간인데, 장자음을 지니는 ‘nonno’의 폐쇄 구간이 단자음을 지니는 ‘nono’의 폐쇄 구간보다 세 배 이상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nno(할아버지)	nono(아홉)
	
폐쇄 구간 0.149	폐쇄 구간 0.046

<그림 13> 이탈리아어 ‘nonno’와 ‘nono’의 스펙트로그램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어와 이탈리아어의 예를 보면, 자음의 장단이 변별적 기능을 하는 언어에서는 폐쇄 구간이 길어짐으로써 자음이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듯하다. 즉 한국어에서도 자음의 폐

쇄 구간이 길어지는 것을 장음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장음은 모음이 길어짐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고, 자음이 길어짐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장음의 실현 단위는 음소이며, 자음과 모음 모두 장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앞서 확인하였듯이 조음의 순차적 과정을 가지는 자음의 경우 폐쇄 구간과 같은 미시 분절(micro-segment)이 길어짐으로써 장음으로 실현된다. 이를 일컬어 자음의 경우에는 장음의 실현 단위를 미시 분절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최소 단위가 음소이고, 언어 사용자도 미시 분절이 아닌 음소를 최소 단위로 인식하므로 본고에서는 자음 역시 음소 단위에서 장음이 실현된다고 본다.

2.1.4. 장음의 음운론적 층위

최소대립쌍은 오로지 하나의 음소만 차이남으로써 의미가 변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그렇다면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밤(栗)'[밤:]과 '밤(夜)'[밤]에서 차이 나는 음소는 무엇일까? 장모음과 단모음인가? 아니면 장음과 단음인가? 전자는 장모음 'ㅏ'와 단모음 'ㅏ'가 각각의 음소로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후자는 음소 'ㅏ'가 장음으로 실현될 수도 있고 단음으로 실현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런데 전자의 입장을 취하면 기술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 본고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모두 장음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모든 음소가 각각 장모음과 단모음을 가진다면 음소의 수가 두 배로 늘기 때문이다. 게다가 표현적 장음은 어휘적 장음에 비해 훨씬 길게 실현되는데, 이 둘을 동일한 장자음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에 관한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각 음소의 장음형과 단음형을 마련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별도의 장모음, 단모음, 장자음, 단자음 등을 설정하지 않고, 어떤 음소가 장음 혹은 단음으로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 이는 고

저나 강약 같은 다른 운소도 마찬가지이다. 즉 운소 층위는 음소 층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밤(夜) [밤]		
운소 층위		단음	
음소 층위	ㅂ	ㅏ	ㅁ

<그림 14> '밤[밤]'의 음소 층위와 운소 층위

	밤(栗) [밤:]		
운소 층위		장음	
음소 층위	ㅂ	ㅏ	ㅁ

<그림 15> '밤[밤:]'의 음소 층위와 운소 층위

지금까지 우리는 장음의 범위와 장음 판별을 위한 비교 대상, 장음의 실현 단위, 그리고 장음의 음운론적 층위에 대해 살펴보며 '장음'의 개념을 정의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장음의 개념>

- 범위: 청자가 지각할 수 있는 긴 음
- 판별 기준: 다른 환경에 놓인 동일한 음소와 비교
- 실현 단위: 음소(자음, 모음)
- 음운론적 층위: 음소 층위와 구분되는 운소 층위에서 나타남.

이와 같은 조건에 따라 본고에서는 "어떤 음소가 다른 환경에 놓인 동일한 음소보다 길게 실현되고, 청자가 그것을 긴 소리로 지각할 수 있을 때" 해당 음소가 장음으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2.2. 장음의 종류

본고의 목적은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장음이 어떤 이유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대국어에 어떤 종류의 장음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껏 장음에 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종류의 장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어휘적 장음만을 다룬다거나 표현적 장음만을 다루는 식으로)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장음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종류와 체계를 제시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장음의 개념을 바탕으로, 현대국어에 어떤 종류의 장음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화에서 나타나는 장음의 정체에 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의 장음을 크게 넷으로 분류한다. 어휘적 장음, 보상적 장음, 동반적 장음, 표현적 장음이 그것이다. 각각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자.

2.2.1. 어휘적 장음

장음에는 어휘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어휘적 장음이라고 한다. 아래의 (3)은 장단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단어들의 쌍이다.

(3) ㄱ. 밤:(栗)⇔밤(夜), 눈:(雪)⇔눈(目), 말:(言)⇔말(馬), 일:(事)⇔일(一), 벌:(蜂)⇔벌(野)

ㄴ. 갈:다(摩)⇔갈다(換), 굽:다(陶)⇔굽다(曲), 곱:다(鮮)⇔곱다(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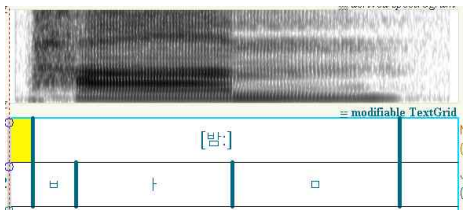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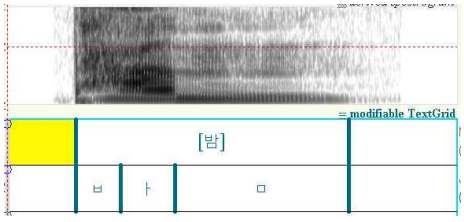
ㄷ. 가:정(假定)⇔가정(家庭), 감:사(感謝)⇔감사(監査), 단:정(斷定)⇔단정(端正), 모:자(母子)⇔모자(帽子), 장:기(將棋)⇔장기(長期)

(3ㄱ)은 고유어 명사, (3ㄴ)은 용언의 활용형, (3ㄷ)은 한자어가 장단에 의해 의미가 구별되는 예이다. 이들은 모두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룬다. 그런데 어휘적 장음을 갖는 단어들이 모두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4)를 보자.

(4) 개:나리, 거:리, 검:찰, 가:소롭다, 가:증스럽다, 상:쾌하다, 서:술하다, 주:의하다, 주:입하다, 취:소하다, 포:옹하다, 화:통하다, 과:꽃, 귀:갓길, 선:머슴, 심:부름, 안:개, 탈:춤

(4)의 단어들은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지는 않지만 기저에 장음을 갖는 단어들이다. 이처럼 단어의 기저에 존재하는 장음을 어휘적 장음이라고 한다. 어휘적 장음은 단어의 첫머리인 어두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어두에 어휘적 장음이 오는 단어라 할지라도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어두 외의 위치에 오게 되면 장모음은 단모음(短母音)으로 바뀌고 만다.

어휘적 장음은 모음이 길어짐으로써 실현된다. 이는 2.1.3.에서도 다루었던 것인데,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아래에 그림을 다시 제시한다. <그림 16>은 장단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밤(栗)'[밤:]과 '밤(夜)'[밤]의 스펙트로그램이다. 초성 'ㅂ'과 종성 'ㅁ'의 길이는 장음형과 단음형에서 비슷한 정도로 실현되지만 중성 'ㅏ'의 길이는 장음형이 단음형보다 세 배 정도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적 장음이 나타날 때 길어지는 것은 중성인 것이다.

밤(栗) [밤:]	밤(夜) [밤]
	
전체 길이 0.675 : 0.080(ㅂ)+0.257(ㅏ)+0.308(ㅁ)	전체 길이 0.487 : 0.080(ㅂ)+0.097(ㅏ)+0.310(ㅁ)

<그림 16> '밤(栗)'과 '밤(夜)'의 스펙트로그램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어휘적 장음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길이로 나타날까?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 어휘적 장음의 길이를 살펴볼 때 절대적인 길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적 길이는 화자의 말 빠르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휘적 장음의 길이를 살펴볼 때에는 단모음과의 상대적 값어치가 중요하다. Han(1964)에서는 한국어 장모음(長母音)과 단모음(單母音)의 길이의 비를 제시하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2> Han(1964)이 제시한 한국어 단모음이 장단 비율

	ㅣ	ㅜ	ㅓ	ㅏ	ㅗ
길이 비율	1:2.88	1:2.82	1:2.70	1:2.09	1:2.07

이를 평균하면 한국어 장모음의 길이는 단모음과 비교하여 대략 2.5배 정도 긴 셈이 된다. 그런데 이는 각 단어를 독립시켜 단독으로 발음했을 때의 값이다. 문장 속에서 발음될 때에는 길이가 비가 더 줄어든다. 문장 속에서 장모음과 단모음의 길이 비를 측정한 연구로는 지민제(1993)와 공수진(2002)이 있는데, 지민제(1993)는 두 명의 화자에게서 그 길이의 비가 각각 ‘1:1.74’와 ‘1:1.86’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공수진(2002)은 장단을 구분하는 20대, 30대, 40대 제보자 한 명씩을 대상으로 장모음과 단모음의 비를 조사하였는데, 장단음의 비는 20대에서 1:1.93, 30대에서 1:2.28, 40대에서 1:1.86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두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장모음은 단모음보다 대략 1.9배 정도 길게 실현되는 듯하다.

그런데 이는 한국어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어휘적 장음의 상대적 값은 언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김수형(2001:47)에서는 어휘적 장음이 존재하는 언어의 장모음과 단모음 길이의 비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비가 1:1.11부터 1:2.2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어휘적 장음이 존재하는 언어의
장모음과 단모음 길이의 비(김수형 2001:47)

Danish	Finnish	Serbo-Croatian	Thai	German(E)	German(W)
1:1.98	1:2.27	1:1.49	1:2	1:1.11	1:1.96

한국어에서 어휘적 장음을 갖는 단어의 구조를 살펴보면, 모음이나 공명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말음에 장애음이 오는 경우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 수가 극히 적다. 가령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68,905개의 용언 중 어휘적 장음을 가진 단어는 14,993개인데, 이 중 장애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90개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모음이나 공명음으로 끝난다. 명사 역시 조사된 239,182개의 단어 중 어휘적 장음을 가진 단어는 59,292개였는데, 그 중 종성에 장애음이 오는 경우는 90개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는 단순히 장애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그렇지 않은 단어에 비해 수적으로 적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전체 어휘의 비율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어휘의 비율을 확인하는 데는 신지영(2010)의 조사를 활용하였다. 신지영(2010)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을 대상으로 음소와 음절 빈도를 조사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음절 말에 오는 음소별 비율을 구하면 아래의 <표 4>와 같다.[18]

18) <표 4>는 신지영(2010)에 제시된 결과를 활용하여 그 수치를 구한 것이다. 활용한 수치는 '개음절과 폐음절 출현 빈도'와 '폐음절의 종성에 오는 자음의 출현 빈도'이다. 각각의 수치를 아래에 표로 제시한다.

개음절과 폐음절 출현 빈도(『연세한국어사전』)

	개음절	폐음절
출현 빈도	53.4%	46.6%

<표 4>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의 음절 말에 오는 음소 비율

	개음절	폐음절	
		장애음	공명음
출현 빈도	53.4%	10.15%	36.48%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단어 중 개음절은 53.4%, 폐음절은 46.6%이다. 폐음절 중 말음에 장애음이 오는 단어는 10.15%, 공명음이 오는 단어는 36.48%이다. 이를 종합하면 모음이나 공명음으로 끝나는 단어는 전체의 89.88%에 해당한다. 장애음으로 끝나는 단어에 비해 모음이나 공명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9배가량 많은 것이다. 따라서 전체 어휘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어휘적 장음을 갖는 단어 역시 모음이나 공명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그렇지 않은 단어보다 9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휘적 장음을 갖는 단어를 살펴보면, 모음이나 공명음으로 끝나는 단어가 그렇지 않은 단어보다 100배 이상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용언의 경우 어휘적 장음을 가진 단어 14,339개 중 90개만이 장애음으로 끝나 모음이나 공명음으로 끝나는 단어의 수가 166.6배 더 많고, 명사의 경우 어휘적 장음을 가진 단어 59,292개 중 90개만이 종성에 장애음을 가져 모음이나 공명음으로 끝나는 단어의 수가 658.8배 더 많이 나타난다. 결국 전체 어휘의 비율을 고려해도 어휘적 장음을 가지는 단어 중 장애음으로 끝나는 단어의 수는 극히 적은 것이다. 따라서 어휘적 장음을 갖는 대부분의 단어는 첫음절이 개음절이거나 공명음으로 끝난다고 볼 수 있다.

이진호(2012)에서는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단어의 특징을

폐음절 종성의 출현 빈도(『연세한국어사전』)

종성	장애음			공명음			
음소	ㄱ	ㄷ	ㅂ	ㄴ	ㄹ	ㅇ	ㅁ
출현빈도	15.3%	1.8%	4.7%	24.5%	16.2%	29.1%	8.5%
합계	21.8%			78.3%			

제시하기도 했다. 이진호(2012:200~201)에 따르면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고유어의 경우 말음이 없는 경우보다 말음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때 말음은 장애음보다는 비음이나 유음과 같이 공명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여러 음절보다는 한 음절로 된 어휘 형태소에서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이 많이 발견된다.

지금까지 어휘적 장음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어휘적 장음이 나타나는 단어들은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현대국어에 나타난 장음이 어휘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 첫째는 사전에 따라 어휘적 장음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이다. 가령 '하얗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하:야타]로 표시되어 있지만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하야타]로 표시한다. 또 '넣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너:타]로,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너타]로 표시하여 어휘적 장음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 경우 어떤 사전을 따르느냐에 따라 어휘적 장음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둘째는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에 관한 문제이다. 현대국어에서 어휘적 장음은 이미 상당 수준 비음운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어휘적 장음이 나타날 자리에 실현된 장음을 과연 어휘적 장음으로 볼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다른 종류의 장음이 실현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휘적 장음은 연령별 변이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동일한 단어의 같은 위치에서 실현된 장음이 화자의 연령에 따라 어휘적 장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뜻 단순해 보이는 어휘적 장음은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대국어에 나타난 장음이 어휘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휘적 장음이 갖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2.2. 보상적 장음

비음절화가 일어날 때, 음절이 지닌 시간을 보상하는 음운 현상으로 보상적 장모음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비음절화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나는 장음을 보상적 장음이라고 한다.

비음절화는 모음 탈락과 활음화, 모음 축약이 음운 층위에 적용될 때 일어난다.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음 탈락과 활음화는 형태음운층위에서 적용될 수도 있고 음운 층위에서 적용될 수도 있는데, 이 중 후자에서만 비음절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래의 (5), (6)은 각각 모음 탈락과 활음화의 예를 보여주는데, ㄱ은 형태음운층위에서 적용된 예, ㄴ은 음운 층위에서 적용된 예이다.

(5) ㄱ. 가-+-으면 → 가면~×가으면~×가:면
ㄴ. 낫:-+-으면 → 나으면~나:면
낳:-+-으면 → 나으면~나:면

(6) ㄱ. 오-+-아도 → 와도~×오아도~×오와도
배우-+-어도 → 배워도~×배우어도~×배우워도
ㄴ. 보-+-아도 → 보아도~보와도~봐:도
피-+-어도 → 피어도~피여도~펴:도
끼-+-어도 → 끼어도~끼여도~껴:도
꼬-+-아도 → 꼬아도~꼬와도~꽈:도
비-+-어도 → 비어도~비여도~벼:도

모음 탈락과 활음화가 형태음운층위에서 적용된 (5ㄱ), (6ㄱ)은 하나의 표면형을 가지고 보상적 장음은 나타나지 않지만, 음운 층위에서 음운 현상이 적용된 (5ㄴ), (6ㄴ)은 둘 이상의 표면형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표면형에는 비음절화가 일어나지 않은 어형과 비음절화가 일어난 어형이 공존하며, 비음절화가 일어난 어형에는 보상적 장음이 나

타난다. 즉 보상적 장음은 비음절화가 일어난 어형과 일어나지 않은 어형이 모두 표면형으로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박초흔 2023:12) '마음~맘:'과 같이 모음 축약이 일어나 준말이 형성될 때 장음이 나타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만약 공시적으로 준말만 나타나고 모음 축약이 적용되기 전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때의 장음은 보상적 장음이 아닌 어휘적 장음으로 봐야 한다.

보상적 장음의 길이에 관해서는 조남민(2010)과 박초흔(2023)에서 다루어진 바 있다. 조남민(2010)에서는 모음 탈락과 활음화, 모음 축약이 음운 층위에서 나타난 단어의 보상적 장음과 단음의 길이의 비를 측정하였다. 피험자는 총 4명이었는데 단모음과 장모음의 길이의 비는 1:1.3~1.7이었다. 박초흔(2023)에서는 동남 및 서남 방언 화자가 아닌 20~30대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보상적 장음의 산출과 지각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어두에서 단음과 보상적 장음의 길이의 비는 1:1.27이었으며, 비어두에서는 1:1.26으로 나타나 어두와 비어두에서 비슷한 길이의 비를 보였다. 다만 어두에서는 10명의 피험자 중 8명이 보상적 장음을 산출한 데 반해 비어두에서는 10명 중 4명의 피험자만이 보상적 장음을 산출하여, 국어에서 보상적 장음은 비어두보다는 어두에서 더 잘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지금까지 보상적 장음이 무엇이며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현대국어에 나타난 장음이 보상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당 장음이 음운 층위에서 모음 탈락이나 반모음화, 혹은 모음 축약을 겪었고, 비음절화가 일어나기 전 형태가 표면형으로 공존한다면 높은 확률로 해당 장음은 보상적 장음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용언 어간 첫음절에 나타나는 어휘적 장음과 달리 보상적 장음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형태에 나타나 출현 환경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령 아래의 문장에서 나타난 '봐:서'의 장음은 앞서 언급한 모든 조건에 해당하므로 보상적 장음으로 볼 수 있다.

(7) ㄱ. A: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마음 정했어?
B: 봐:서. 좀 이따가 다시 생각해보려고.

2.2.3. 동반적 장음

인간의 발화에는 항상 억양이나 돋들림(prominence)이 존재하고, 특히 자유 발화에서는 채움말이나 머뭇거림, 말 끌기, 수정, 반복과 같은 요소도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일정한 시간의 폭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장음이 동반된다. 화자가 의도적으로 장음을 실현시키거나 장음이 특정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가 실현되면서 자동적으로 장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처럼 다른 요소의 실현으로 인해 나타난 장음을 '동반적 장음'이라고 한다.[19] 동반적 장음은 유발 요소에 따라 '초분절음에 의한 장음'과 '자유 발화 고유 요소에 의한 장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초분절음에 의한 장음'부터 차례로 살펴보자.

2.2.3.1. 초분절음에 의한 장음

초분절음(suprasegmental feature)이란 발화된 소리의 연속체로부터 독립된 단위로 쪼개어 낼 수 없는 요소를 말한다.(이진호 2017:497) 예를 들어 성조나 장단은 분절음으로부터 분리되어 홀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초분절음에 속한다. 그런데 초분절음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일한 요소로 이루어진 초분절음과 둘 이상의 요소로 구성된 초분

19) 성조에 의해 동반되는 장음을 '잉여적 장음'이라 부르기도 한다. 성조가 나타날 때 잉여적으로 장음이 동반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피치만이 관여하는 성조와 달리 억양이나 돋들림에는 피치와 강도, 속도, 길이가 모두 능동적으로 관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잉여적 장음'이 아닌 '동반적 장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잉여적 장음'이란 용어는 억양이나 돋들림에서 길이는 잉여적으로만 나타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절음이다. 장단이나 성조는 단일한 요소로 이루어진 초분절음에 속한다. 장단은 음의 길이로, 성조는 음의 높이로 형성된다. 반면 억양이나 돋들림은 둘 이상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 초분절음이다. 억양은 말의 길이와 높이, 빠르기나 세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고, 돋들림 역시 길이와 높이, 그리고 세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전자와 같이 단일한 요소로 이루어진 초분절음을 '단일 초분절음'이라 하고 후자와 같이 둘 이상의 요소로 이루어진 초분절음을 '복합 초분절음'이라 한다.

두 종류의 초분절음 중 동반적 장음을 수반하는 것은 '복합 초분절음'이다. 억양이나 돋들림과 같은 복합 초분절음의 실현은 일정한 시간의 동안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장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돋들림(prominence)과 억양(intonation)에 동반되는 장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돋들림(prominence)에 의한 장음

순수 음성학적 개념인 돋들림(prominence)은 한 기식군 안에서 돋들리는 부분을 말하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길이, 높이, 세기 등 다양한 초분절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돋들림은 주로 기식군의 첫음절이나 의미 초점에 실현되어(이병근 1986:31) 발화의 시작점이나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는 의사소통의 기능을 한다. 아래의 (8ㄱ)은 기식군의 첫음절에 놓이는 돋들림을, (8ㄴ)은 의미 초점인 '아저씨'에 놓이는 돋들림을 보여준다.

(8) (과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ㄱ. (과거에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지**금 먹으니까 맛있더라.

ㄴ. 그때 막 **아**저씨 과자라고 했어.

(돋들리는 음절을 밑줄로 표시함)

돋들림의 실현은 대체로 장음을 동반한다. 다양한 초분절적 요소가 실현되면서 음성적으로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8)에서 제시된 '지금'의 '지'와 '아저씨'의 '아'는 돋들리지 않을 때보다 장음으로 실현된다.

돋들림의 실현이 일반적으로 장음을 동반함은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이현복(1973)에서는 악센트가 있는 음절은 강하고 길게 발음되며 악센트가 없는 음절은 짧게 발음된다고 하였고[20], 성철재(1991)에서는 돋들리는 음절과 주변의 음절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음향자질은 지속시간(duration)이며 부차적으로 세기(intensity)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돋들림의 실현에 의해 동반되는 장음을 '돋들림에 의한 장음'이라 정의한다.

단어의 돋들림이 항상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유재원(1988:313)에 따르면 단어의 돋들림은 말토막의 첫 중음절(CVC, CV:)에 실현되며, 경음절(CV)만으로 이루어진 말토막은 오른쪽 끝 경음절에 돋들림이 나타난다고 한다. 아래에 그 예를 제시한다.

(9) 현대 한국어의 돋들림 규칙(유재원 1988:313)

ㄱ. 말토막의 첫 중음절(CVC, CV:)에 돋들림이 온다.

예 사:람, 사랑, 가로등, 정신분석

ㄴ. 경음절(CV)만으로 이루어진 말토막은 오른쪽 끝 경음절에 돋들림이 온다.

예 어미, 아기, 외마디, 아주머니

그런데 돋들림이 나타난다고 항상 장음이 동반되는 것은 아님을 짚고 갈 필요가 있다. 어떤 돋들림은 길이보다는 세기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

20) 여기서 악센트는 "말할이가 들을이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을 돋들리게 만드는 수단"으로, 의미 초점에 놓이는 돋들림과 유사한 개념이다.

고, 어떤 돋들림은 길이에 의해 나타나지만 화자의 말 속도에 따라 청자에게 장음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돋들림에 의한 동반적 장음은 화자와 대화 상황, 그리고 돋들림을 유발하는 초분절적 요소의 관여 정도에 따라 청자가 지각하지 못하는 길이인 지속(duration)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② 억양(intonation)에 의한 장음

억양(intonation)은 문장에 얹히는 높낮이의 형태(pitch pattern)를 뜻한다.(이호영 1991:129) 음악에 가락(melody)이 있듯이 말에도 목소리의 높낮이(pitch)가 엮어내는 가락이 있는데, 이런 말의 가락(speech melody)이 곧 억양이다.(이현복 1976:131) 인간의 모든 발화는 억양을 가지고 있으며, 억양은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준다. 가령 “집에 가.”라는 문장은 상승조로 실현되면 의문형이 되지만 하강조로 나타날 경우에는 명령형이 된다.

억양은 말마디 말에서 두드러진다. “집에 가?”와 “집에 가.”에서도 의문 억양과 명령 억양을 구분 짓는 특징은 말마디 말에서 나타난 하강조와 상승조이다. 그래서 말마디 말에서 실현되는 억양을 ‘핵억양’(nuclear tone, boundary tone)이라고 한다. 핵억양은 문장 타입과 화자의 태도에 대한 핵심적 정보를 전달한다. 핵억양 외의 억양은 핵억양이 전달하는 의미를 약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할 뿐 문장 타입의 변별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이호영 1991:137)

그런데 핵억양의 종류에 따라 그 길이가 차이를 보인다. 가령 긴 상승조로 나타나는 의문 억양은 짧은 하강조로 나타나는 명령 억양보다 길게 실현되는 것이다. 즉 어떤 핵억양은 다른 핵억양에 비해 실현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특정 억양에 의해 장음이 동반되는 경우를 ‘억양에 의한 장음’이라고 본다.

억양에 의한 장음은 억양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둘로 구분할 수 있

다. 문말 위치에 나타나는 장음과 말마디 경계 위치에 나타나는 장음이다. 아래의 (10)는 문말 위치에 나타나는 억양에 의한 장음의 예이다.

(10) ㄱ. A: 전 사실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요.
B: 그래~?[21]
ㄴ.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니~?
ㄷ. 내가 모를 줄 알아요~?
ㄹ.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ㅁ. 불이야~ 불이야~.
ㅂ.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찾으며) 엄마~ 아빠~.
ㅅ. 자고 일어났더니 내성 발톱이 생겼다 이 말이야~.
ㅇ. 안녕~. / 어서오세요~. / 축하해~.
ㅈ. 오잉~. / 아이구~. / 에휴~. / 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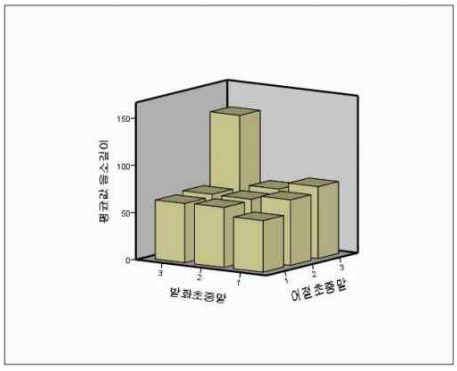
억양은 크게 평탄조, 상승조, 하강조, 오르내림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은 다시 높낮이의 정도나 변화 형태, 변화 속도 등에 따라 그 기능을 세분할 수 있다. 가령 (10)에서 ㄱ, ㄴ, ㄷ은 의문 기능을 갖는 상승조 억양이고, ㄹ은 부탁 기능을 갖는 오르내림조 억양이며, ㅁ과 ㅂ은 각각 알림 기능과 부름 기능을 갖는 평탄조 억양이다. ㅅ은 진술 기능을 갖는 오르내림조 억양, ㅇ은 친교 기능의 상승조 억양에 해당한다. ㅈ은 감탄사와 함께 나타나는 감탄 기능의 억양으로 감탄사의 종류와 대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억양으로 실현된다. 가령 '오잉~'은 상승조 억양으로, '아이구~'는 하강조 억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의 억양에 의해 문말에서 억양에 의한 장음이 나타난다.

실제로 오재혁(2016)은 서울 말뭉치(Seoul Corpus)를 통해 어절 내 음절의 위치에 따른 단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였는데, 발화 말에 놓인 단모음의 평균 길이가 발화 초나 발화 중에 놓인 단모음의 평균 길이보다 유

21) 억양에 의한 장음은 '~'으로 표시한다.

의미하게 길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발화 말의 음절이 그렇지 않은 음절보다 길게 실현되는 이유는 문말에서 억양에 의한 장음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발화 초	발화 중	발화 말
어절 초	54.6	69.4	76.2
어절 중	63.5	65.0	68.5
어절 말	62.6	65.2	141.7



<그림 17> 운율적 위치에 따른 단모음의 평균 길이(오재혁 2016:196)

억양에 의한 장음은 말마디 경계 위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11)이 그 예이다.

(11) ㄱ.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겠습니다.]
ㄴ. [그냥 초청장만 주는 거라면~] [너무 좋지.]

그런데 말마디 경계 위치에서 나타나는 장음은 억양뿐 아니라 연접(juncture)의 영향도 받는다. 발화 중간에 연접이 생길 경우 연접 앞의 음성을 약간 길게 끌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김수형 2001:39) 즉 말마디 경계에서 나타나는 장음은 엄밀히 말하면 억양과 연접 모두의 영향을 받아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박주경(1985), 김수형(2001)은 억양에 의한 장음과 연접에 의한 장음을 별개로 설명하기도 한

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연접이 놓이는 위치와 억양이 놓이는 위치가 동일하며, 둘이 항상 같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여 둘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한다.

지금까지 '동반적 장음' 중 초분절음에 의한 장음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장음을 동반하는 초분절음으로 돋들림과 억양만을 다루었는데, 이 외의 다른 초분절음에 의해서도 장음이 동반될 수 있다. 가령 TV 프로그램의 내레이션에서는 특유의 리듬에 의해 장음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22]와 같은 경우가 그렇다.

2.2.3.2. 자유 발화(spontaneous speech) 고유 요소에 의한 장음

자유 발화에서는 낭독 발화에서 확인할 수 없는 자유 발화 고유 요소가 나타난다. 화자는 발화와 동시에 어떤 표현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지와 같은 발화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휴지, 채움말(fillers, filled pauses), 말 끌기, 반복, 수정 등이 나타나는 것이다. 초분절음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실현은 일정한 시간의 동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유 발화 고유 요소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장음이 동반된다. 아래의 (12)는 그 예를 보여준다. (12ㄱ)에서는 채움말 '음'이 장음으로 실현되며, (12ㄴ)에서는 불필요한 휴지에 의해, (12ㄷ)에서는 말 끌기에 의해 밑줄 친 음절이 장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 ㄱ. 너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말이야, 음.. 생각해 봤는데.[23]
ㄴ.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ㄷ. 보통 원조..보다 반응이 좋기 어려운데.

22) 리듬에 의한 장음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말의 장음은 억양에 의한 장음으로 보아 밑줄을 표시하지 않았다.
23) 자유 발화 고유 요소에 의한 장음은 '..'으로 표시하였다.

지금까지 초분절적 요소와 발화 고유 요소가 실현될 때 나타나는 동반적 장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초분절적 요소나 발화 고유 요소의 실현이 항상 장음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화자나 대화 상황, 초분절적 요소의 구성 성분 등에 따라 화자는 길게 소리 냈지만 청자는 길다고 지각하지 못하는 '지속(duration)'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혹은 화자가 아예 긴 음으로 발음하지 않을 수도 있다.(길게 늘이지 않고 채움말을 사용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음, 그래."와 같은 경우 말이다.)

중요한 것은 현대국어에 '동반적 장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어휘적 장음이나 보상적 장음이 나타날 자리가 아닌데도 장음이 나타나고, 그것이 기식군 첫음절이거나 의미 초점이 놓이는 단어라면, 혹은 문말이나 말마디 경계에 나타나거나 자유 발화 고유 요소와 함께 실현된다면 해당 장음은 동반적 장음일 확률이 높은 것이다.

2.2.4. 표현적 장음

장음의 실현이 단어나 발화의 의미를 미묘(微妙)하게 변화시키거나 뉘앙스의 변화를 야기하는 것을 표현적 장음이라고 한다. 표현적 장음은 어휘적 장음과 달리 장음이 실현된 어형과 실현되지 않은 어형의 의미 차이가 미세하다. 예를 들어 어휘적 장음인 '말'의 장음형은 '語'를, 단음형은 '馬'를 의미하여 두 의미 사이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지만,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넓::은'과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지 않은 '넓은'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공유한다. 가령 아래 두 문장은 뉘앙스의 차이만 가질 뿐 핵심 의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3) ㄱ. 이렇게 넓은 인천에서 제가 픽한 맛집은요.
ㄴ. 이렇게 넓::은 인천에서 제가 픽한 맛집은요.[24]

24) 표현적 장음은 '::'로 표시한다.

표현적 장음은 다른 종류의 장음에 비해 그 길이가 길게 나타나며, 화자의 의도에 따라 아주 길게도 실현될 수 있다. 가령 위의 (13ㄴ)에서 화자는 '넓은'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주 긴 표현적 장음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표현적 장음이 더 길게 실현될수록 '넓다'는 의미도 더욱 강조되어 표현적 장음과 단어의 의미는 비례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표현적 장음은 다른 장음에 비해 두드러지게 길게 실현되기 때문에, 어떤 장음이 표현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 "내가 너::::::무[25]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야."처럼 아주 길게 나타난 장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표현적 장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생활에서는 표현적 장음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 장음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적 장음과 돋들림에 의한 장음 사이에서 판별의 어려움을 겪는다. 가령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요."에서 '아'는 기식군의 첫음절이자 의미 초점이 놓이는 단어이기 때문에 돋들림에 의한 장음이 나타난다. 그런데 화자의 의도에 따라 동일한 위치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때 '아'는 얼마나 길게 실현되어야 표현적 장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표현적 장음의 판별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표현적 장음의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표현적 장음만의 음성적·음운적 특징은 무엇인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장음이 표현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현적 장음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해당 작업이 아직 충분하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고의 4장에서는 표현적 장음의 기능과 음성적·음운적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장에서는 현대국어 장음의 종류 중 하나로 표현적 장음이 존재하고, 이것은 다른 장음보다 특히 길게 실현될 수 있으며, 돋들림에 의한 장음과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

25) 표현적 장음이 길수록 '::'기호가 많아지도록 표시하였다.

지금까지 현대국어에 어떤 종류의 장음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장음의 종류는 네 가지로, 어휘적 장음, 보상적 장음, 동반적 장음, 표현적 장음이 그것이다.[26] 그런데 우리는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며, 어떤 장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이 네 가지 장음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어휘적 장음이 비음운화되고 있어 어휘적 장음의 위치에 나타난 장음이 어휘적 장음이라고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어휘적 장음의 기술이 사전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둘째는 표현적 장음에 관한 것이다. 표현적 장음에는 그것이 표현적 장음이라고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돋들림에 의한 장음과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둘을 구분해 보려 해도 표현적 장음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아 무엇을 표현적 장음의 근거로 삼아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현대국어에 나타난 장음 중 그 종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보상적 장음뿐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대국어 장음의 정체를 밝히는 데 다가가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인 어휘적 장음에 관해서는 3장에서 다룬다. 우선 어휘적 장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상이한 사전 기술이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어휘적 장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를 다룬다. 어휘 유형별로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과연 현대국어에 어휘적 장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찰해본다.

표현적 장음에 관해서는 4장에서 다룬다. 지금껏 깊게 다루어진 적 없는 표현적 장음의 기능과 음성적·음운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장음과 구분되는 표현적 장음만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 두 작업을 거친 후에는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장음의 정체를 밝히기가 좀 더 수월해지

26) 두 종류 이상의 장음이 동일한 위치에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기를 기대한다.

3. 어휘적 장음

어휘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장음을 어휘적 장음이라고 한다. 현대국어에서 어휘적 장음은 상당 수준 비음운화되었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어휘적 장음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을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사전마다 표시된 어휘적 장음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하얗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하:야타]로 표시되어 있지만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하야타]로 나타난다. 또 '넣다'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너:타]로,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너타]로 표시하여 어휘적 장음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때 사전이 무엇을 근거로 어휘적 장음을 표시한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만약 동일한 원칙을 따랐다면 사전마다 그 표시가 달라지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어휘적 장음의 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전에 나타난 어휘적 장음의 근거를 찾는 것이다.

결론부터 제시하자면, 현대국어의 어휘적 장음은 중세국어 상성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할 수 있다. 중세국어의 상성과 현대국어의 어휘적 장음이 일종의 대응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이 대응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응에서 벗어나는 예도 적지 않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렇듯 대응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중심으로 어휘적 장음의 형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로써 상이하게 나타나는 사전의 기술에서 어떤 원칙에 따라 어휘적 장음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1. 상성과 장음의 대응

3.1.1. 중세국어 성조와 현대국어 장음

이기문(1972:153)에서는 상성, 즉 저조와 고조의 병치가 중세에 장음으

로 실현되었고, 성조가 없어지고 난 뒤에 상성이 지니고 있던 음장이 그대로 남아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나타남을 지적한다. 현대국어의 장음이 중세국어의 상성에 대응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세국어의 상성이 현대국어의 장음에 대응되고, 평성이나 거성은 단음에 대응되는 예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14) 평성, 거성 > 단음[27]

ㄱ. 평성 > 단음

굽히다(<구피다), 굳다, 긑다, 그대(<그듸), 기러기(<그려기), 기다(<긔다), 기다리다(<기드리다), 나비, 나뭇잎(<나못닢), 날다(<놀다), 다니다(<돈니다), 다섯(<다ᄉᆞᆺ), 맞다(迎), 맞다(打)

ㄴ. 거성 > 단음

굽(蹄), 귀, 귤, 기운(<긔운), 날래다(<놀나다), 날개(<놀개), 날(<놀, 刃), 들이다(<드리다, 入), 박, 반디(<반되), 반듯하다(<반ᄃᆞᆨᄒᆞ다), 쑥(<ᄲᅮᆨ), 따다(<ᄠᅡ다), 때(<ᄠᅴ), 싸매다(<ᄡᅡ ᄆᆡ다)

(15) 상성 > 장음

ㄱ. 골(洞), 곰(熊), 굼벵이(<굼벙이), 궤, 김(蒸), 가(邊), 낱(穀), 내(川), 나중(<내죵), 냇가(<냇ᄀᆞᄌᆞ), 냇물(<냇믈), 너삼(<너ᅀᅡᆷ), 널, 넷(<네), 네모, 입쌀(<니ᄡᆞᆯ), 임금(<님금), 임자(<님자), 대변, 대추(<대초), 돈, 돌(石), 도끼(<돗귀, 도긔), 농담(<롱담), 말, 말씀(<말ᄉᆞᆷ, 말ᄊᆞᆷ), 반날(半日), 밤(栗), 벗(<벋), 별(星), 병(病), 보배(<보ᄇᆡ), 비상(<비샹), 사람(<사ᄅᆞᆷ), 소경(<쇼경), 아무(<아모)

ㄴ. 굵다, 내다, 노닐다(<노니다), 놀라다, 놀랍다, 눈(雪), 이다(<니다[28]), 일다(<닐다), 잇다(<닛다), 더럽다, 데다, 데치다(<데티다), 떫다(<ᄠᅲᆲ다), 쐬다(<ᄲᅬ다), 꺼리다(<ᄭᅥ리다), 얻다, 없다, 여쭙다(<엳ᄌᆞᆸ다), 우닐다(<우니다), 우습다(<웃ᄇᆞᆸ다), 적다, 젓다, 향하다(<향ᄒᆞ다)

---

27) 현대국어의 어휘적 장음에 관한 정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따랐다.
28) 기와나 이엉 따위로 지붕 위를 덮다. (『표준국어대사전』)

(16) 상평교체형 > 장단교체형

곪다, 굽다, 넘다, 놀다, 긷다, 길다, 깁다, 남다, 덜다, 덥다, 돌다, 말다(勿), 몰다, 묻다, 밀다, 묻다, 불다, 빌다(祝), 빌다(乞), 밟다(<ᄇᆞᆲ다), 떨다(<ᄈᆞᆯ다), 살다, 삼다, 세다(힘이), 세다(<셰다, 宣), 쉬다, 신다, 싣다, 삶다(<ᄉᆞᆱ다), 안다, 알다, 얼다, 열다, 엷다, 옮다, 울다, 일다, 절다(跏), 젊다(<졈다), 줍다(<ᄌᆞᇫ다), 쥐다, 짓다

(14)~(16)은 중세국어 성조와 현대국어 장단 사이의 대응을 보여준다. (14ㄱ)은 중세국어에서 첫음절에 평성을 지녔던 단어가 현대국어에서는 단음으로 나타나는 예를 보여준다. (14ㄴ)은 첫음절에 거성을 가졌던 단어가 현대국어에서 단음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15)는 상성과 장음 사이의 대응을 보여준다. 중세국어에서 첫음절에 상성이 놓였던 단어는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실현된다. (16)은 상평교체형과 장단교체형의 대응이다. 중세국어 용언 어간 중에는 자음 어미 앞에서는 상성, 모음 어미 앞에서는 평성으로의 성조 교체를 보이는 1음절 용언 어간이 존재하였는데 이를 '상평교체형'이라 한다. 현대국어에서 이는 자음 앞에서는 장음, 모음 앞에서는 단음으로 실현돼 성조와 평행한 실현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14)~(16)의 예를 통해 중세국어 성조와 현대국어 장단 사이에 '평성, 거성>단음', '상성>장음'의 대응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3.1.2. '상성>장음' 대응의 예외

그런데 모든 단어가 '상성>장음'의 대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이 대응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예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17) '상성>장음'의 대응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ㄱ. 15세기 국어의 평성이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실현된 경우

: 겯다[29], 그림자(<그르메), 노랗다(<노ᄅᆞ다), 부옇다(<부희다)

ㄴ. 15세기 국어의 거성이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실현된 경우

: 그리다, 그림, 나(歲), 모기(<모ᄀᆡ)

ㄷ. 15세기 국어의 평성이 현대국어에서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된 경우

: 굴다, 긋다, 낳다, 넣다(<녛다), 눕다

ㄹ. 15세기 국어의 거성이 현대국어에서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된 경우

: 갈다(摩), 감다(<ᄀᆞᆷ다, 沐), 감다(<ᄀᆞᆷ다, 瞑)

ㅁ. 15세기 국어의 상성이 현대국어에서 단음으로 실현된 경우

: 거리끼다(<걸ᄢᅴ다), 만(의존명사), 뿐(<ᄲᅮᆫ)

ㅂ. 15세기 국어의 상평교체형이 장음으로 실현된 경우

: 모르다(<모ᄅᆞ다)

(17)의 ㄱ~ㄹ은 중세국어에서 첫음절에 평성이나 거성이 왔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장음이나 장단교체형으로 나타나는 예이다. ㅁ은 중세국어에서 상성을 지녔으나 현대국어에서 단음으로 실현되는 예이고, ㅂ은 중세국어에서 상평교체형으로 나타났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장음으로 실현되는 예이다.

이렇듯 중세국어 성조와 현대국어 장음이 항상 대응을 이루는 것은 아닌데, 김성규(2006)는 그 중 1음절 용언 어간에 주목하여 성조와 장음의 대응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유추'로 설명한다. 1음절 용언 어간 중 ㅁ-말음, ㅂ-불규칙 용언, 통시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을 갖는 용언 어간은 장단과 성조와의 대응을 고려할 때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될 것이 기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되는데, 이것은 같은 부류의 1음절 용언 어간들이 대부분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되는 체계적 압박에 의해 유추적 평준화를 겪은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김성규(2006)에서 제시한 1음절 용언 어간 부류에 속하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현대국어에서 장단교체형으로 나타난다.

---

29) 대, 갈대, 싸리 따위로 씨와 날이 서로 어긋매끼게 엮어 짜다. (『표준국어대사전』)

(18) 김성규(2006:277)에서 제시한 1음절 용언 어간 부류의 장단

ㄱ. ㅁ-말음 용언 어간은 대부분 장단교체형(상평교체형)으로 실현됨

: 감다(紮), 검다, 곪다, 남다, 넘다, 닮다, 담다, 뿜다, 삶다, 삼다(婿), 옮다, 젊다

ㄴ. 대부분의 ㅂ-불규칙 용언은 대부분 장단교체형(상평교체형)으로 실현됨

: 걷다, 굽다(魚), 깁다(補), 덥다(暑), 돕다, 줍다(拾)

ㄷ. 통시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을 갖는 용언 어간은 대부분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됨

: 데다(燙), 베다(枕), 베다(割), 세다(强), 세다(宣), 개다(晴), 깨다, 대다, 때다, 매다(耦), 배다(滲), 빼다(扒), 새다(明), 캐다, 패다(剿), 패다(掘), 뉘다(臥), 쉬다(休, 喂, 嗜, 餲), 쥐다, 쐬다(涼), 죄다(撙), 띄다(見)

(18)의 ㄱ은 대부분의 ㅁ-말음 1음절 용언 어간이 중세국어에 상평교체형으로 나타났으며 현대국어에서는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됨을 보여준다. 김성규(2006)는 동일 부류의 용언 어간이 모두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되는 체계적 압박에 의해 중세국어에서 거성을 지녔던 '감다, 숨다, 참다, 품다' 역시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되었다고 본다. ㄴ과 ㄷ의 경우도 어간 부류에서만 차이를 보일 뿐,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될 것이 기대되지 않던 예들이 유추에 의해 장단교체형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로써 성조와 장음이 대응을 이루지 않는 몇몇 부류의 1음절 용언 어간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진 듯하다.

본고에서는 이에 더해 김성규(2006)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어간 부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세국어의 성조와 현대국어의 장단이 대응을 이루지 않는 예들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시도해 볼 것이다. 이로써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어휘적 장음의 정체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3.1.2.1. 음절 축약에 의한 장음화

음절이 축약되며 장음화가 일어나면서 성조와 장단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19) ㄱ. 소홈 LH (소름[소:름])
소홈(15C) > 소오롬, 소오름(18C) > 소름(20C)
ㄴ. 나02 H (나[나:](‘나이’의 준말))
낳(15~18C) > 나히(19C) > 나이(19C)~나

(19)는 성조와 장단이 대응되지 않는 예이다. ㄱ의 ‘소홈’은 15세기에 평성을 지녀 현대국어에서 단음으로 실현될 것이 기대되나 장음으로 나타난다. ㄴ의 ‘나’ 역시 15세기에 거성을 지녀 현대국어에서 단음으로 실현될 것이 기대되나 장음으로 나타난다. 15세기 성조와 현대국어의 장단이 대응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 단어의 내적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19ㄱ)은 현대어 ‘소름’의 변화 과정이다. LH로 실현되던 ‘소홈’은 18세기 무렵 ‘소오름, 소오름’으로 음절이 확대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후 ‘소름’으로 음절이 축약되면서 ‘소름’의 첫음절이 장음으로 나타난다. 이는 3음절이 2음절로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음절이 줄어들며 보상적으로 장음이 나타난 것이다. (19ㄴ)은 현대어 ‘나이’의 변화 과정이다. 중세국어의 ‘낳’은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나히’가 하나의 단어로 굳어지며 현대어 ‘나이’에 이르게 되었다. 현대어에서 준말은 ‘나’[나:]로 나타나는데 이 역시 2음절이 1음절로 줄어든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30] 본고에서는 이처럼 음절이 줄어들며 장음화가 뒤따르는 경우를 ‘음절 축약에 의한 장음화’로 본다. 즉, 위에서 살

30) 다만 현대국어에서 준말인 ‘나’가 본래 형태인 ‘나이’와 공존하므로 이때 나타난 장음은 보상적 장음으로 봐야 한다.

펴본 ‘소홈’과 ‘나’는 15세기부터 현대로의 변화 과정에서 음절 축약에 의한 장음화를 겪어 15세기 성조와 현대국어의 장단이 대응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아래는 위와 유사한 예들이다.

(20) 뱀(<비얌, 비얌), 들(<드틀/드르), 개(<가히), 감(<ᄀᆞᆷ), 솜(<소옴), 끌-(<그스-), 졸-(<ᄌᆞ올-). 썰-(<사홀)

그런데 위의 예들이 모두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가히’는 LH의 성조를, ‘비얌’은 HL의 성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HL의 성조를 갖는 ‘비얌’은 성조가 축약되어도 상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뱀’으로의 음절 축약이 장음화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LH의 성조를 갖는 ‘가히’은 성조 축약으로 상성이 될 수 있다. 만약 성조 축약이 일어났다면 ‘개’의 어휘적 장음은 음절 축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성>장음’의 대응에 의한 것이 된다. 실제로 문헌을 살펴보면 구급간이방언해(1489)와 번역소학(1518)에서 ‘가히(LH)’와 함께 ‘개삿기(RLH)’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가히’는 적어도 16세기부터 ‘개(R)’로 실현되었으며, 따라서 현대국어 ‘개’에서 나타나는 장음은 ‘상성>장음’의 대응을 따른 것이다.

결국 음절 축약에 의한 장음화는 축약되어 상성이 될 수 있는 성조를 가진 음절의 축약(LH)과, 축약되어 상성이 될 수 없는 성조를 가진 음절의 축약(LL, HH. HL)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후자는 음절 축약에 의해 장음화된 것이 자명하지만 전자는 성조 축약의 여부에 따라 장음화의 원인을 음절 축약으로 볼 수도 있고, 성조 축약에 따른 ‘상성>장음’의 대응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31]

31) 이진호(2015)에 따르면 음절이 합쳐져서 성조 축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약이 지켜져야 한다. 첫째는 ‘율동 제약’이다. 이는 줄어드는 음절들의 앞에 거성(또는 상성)이 놓여서는 안 된다는 제약이다. 둘째는 ‘평성 모음 제약’이다. 평성을 담당하는 음절의 모음이 탈락하면 성조 축약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약이다. 이렇게 볼 때 ‘가히(LH)’는 두 제약을 모두 만족하므로 ‘개(R)’로의 성조 축약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3.1.2.2. ‘ㅖ,ㅐ,ㅚ’ 말음 1음절 용언 어간

앞서 언급했듯이 김성규(2006)에서는 하향 이중모음을 가졌던 다수의 1음절 용언 어간이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될 것이 기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단교체형으로 나타나는 것을 유추로 설명한다. 아래의 (21)는 통시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을 갖는 대부분의 단어들이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됨을 보여준다.

(21) 통시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을 갖는 단어들의 성조와 장단[32]

1) 장단교체형

ㄱ. 상평교체형 > 장단교체형 : 데다(熥), 베다(枕), 베다(割), 세다(强), 세다(宣), 개다(晴), 깨다, 대다, 때다, 매다(耩), 배다(滲), 빼다(扒), 새다(明), 캐다, 패다(剽), 패다(掘), 뉘다(臥), 쉬다(休, 唳, 嗜, 餲), 쥐다, 쐬다(涼), 죄다(撕), 띄다(見)

ㄴ. 평성 > 장단교체형: 띠다(衽)[33], 매다(系), 배다(胎)

ㄷ. 거성 > 장단교체형: 깨다(寤), 되다(測), 메다(荷), 째다(破), 꼬다(糾)

ㄹ. 상성 > 장단교체형: 꿰다, 내다, 세다(計), 쬐다(熙)

2) 고정적 단음

ㄱ. 거성 > 고정적 단음: 새다(漏)

여기서 주목할 점은 (21)에 제시된 예들이 모두 ‘ㅖ, ㅐ, ㅚ, ㅞ’로 끝난다는 것이다. 통시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을 가졌던 모음은 현대국어에서 단모음 ‘ㅖ’, ‘ㅐ’, ‘ㅚ’나 이중모음 ‘ㅞ’로 나타난다. 즉 공시적으로는 단모음 ‘ㅖ’, ‘ㅐ’, ‘ㅚ’나 이중모음 ‘ㅞ’로 끝나는 1음절 용언 어간들이 대부분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에 유추되어 통시적으로 하향 이중모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ㅖ’, ‘ㅐ’, ‘ㅚ’, ‘ㅞ’로 끝나는 1음절 용언 어간들이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

32) 김성규(2006:276)에 제시된 예를 재구성하였다.
33) (<띄다)

(22) 떼다(<뗘히다, HL), 에다(<어히다, LH), 베다(<버히다, LH), 괴다(< 괴다, L/ 고이다, LL), 빼다(빠혀다, HH/ 빼히다, LL/ 빼혀다, HL)

(22)의 중세국어 성조는 모두 거성 혹은 평성이다. 성조와 장단의 대응을 고려하면 제시된 예는 모두 현대국어에서 단음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괴다(L)'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대국어에서 음절이 줄어든 형태로 나타나므로 음절 축소에 의해 장음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의 예들이 모두 현대국어에서 장단교체형으로 나타난 것은 어말에 'ㅐ, ㅒ, ㅚ'가 오는 1음절 용언 어간 대부분이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되는 체계적 압박에 의해 유추적 평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3.1.2.3. ㅎ-말음 1음절 용언 어간, 르-불규칙 용언 어간

ㅎ-말음 1음절 용언 어간 중에는 15세기에 고정적 평성을 지녔음에도 현대국어에서 장단교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낳다'와 '닿다'가 그렇다. 이 역시 다른 경우처럼 체계적 압박에 의한 유추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니 ㅎ-말음 1음절 용언 어간의 장단을 먼저 살펴보자.

(23) ㅎ-말음 1음절 용언 어간의 장단
ㄱ. 고정적 장음: 좋다(<둏다, R)
ㄴ. 고정적 단음: 놓다(L), 앓다(L), 잃다(L)
ㄷ. 장단교체형: 낳다(L), 닿다(L)

(23)은 ㅎ-말음 1음절 용언 어간의 장단과 성조를 보여준다. 장단교체형을 가지는 단어의 수가 유추를 야기할 만큼 지배적이지 않으며, 고정적 장음이나 단음으로 나타나는 단어의 수도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고정적 장음이나 고정적 단음을 갖는 ㄱ, ㄴ의 경우에는 모두 중세국어 성조와 현대국어 장단의 대응이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실제로 ㅎ-말음 1음절 용언 어간을 성조와 장단의 대응이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살피면 아래와 같다.

<표 5> ㅎ-말음 1음절 용언 어간의 성조와 장단

번호	단어	성조 장단 대응 여부	15세기 성조	현대국어 장단
1	좋다(<둏다)	O	상성	장음
2	놓다	O	평성	단음
3	앓다	O	평성	단음
4	잃다	O	평성	단음
5	낳다	X	평성	장단교체형
6	닿다	X	평성	장단교체형

위의 표를 통해 성조와 장단이 대응을 이루지 않는 ㅎ-말음 1음절 용언 어간들이 일괄적으로 장단교체형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르-불규칙 용언 어간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성조와 장단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고정적 장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표 6> 르-불규칙 용언 어간의 성조와 장단

번호	단어	성조 장단 대응 여부	15세기 성조	현대국어 장단
1	흐르다	O	LL	단음
2	부르다(<브르다)	O	HH	단음
3	오르다(<오ᄅᆞ다, 오르다, 올오다)	O	오ᄅᆞ LL 오르 LL 올오 LH	단음
4	바르다(<ᄇᆞᄅᆞ다, 바르다)	O	ᄇᆞᄅᆞ LL 바르 LL	단음
5	누르다	X	누르 LH ~ 눌ㄹ R	장음
6	모르다(<모ᄅᆞ다)	X	모ᄅᆞ LH ~ 몰ㄹ R	장음

<표 6>은 르-불규칙 용언 어간의 성조와 장단을 보여준다. 제시된 6개의 단어 중 성조와 장단이 대응되지 않는 '누르다'와 '모르다'는 모두 현대국어에서 고정적 장음으로 나타난다. 15세기의 '누르다'와 '모ᄅᆞ다'는 자음 어미와 매개모음 어미 앞에서는 '누르-'(LH), '모ᄅᆞ-'(LH)로, 모음 어미 앞에서는 '눌ㄹ-'(R), '몰ㄹ-'(R)로 나타난다. 그래서 성조와 장단의 대응을 고려하면 각각의 복수 기저형이 단음과 장음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누르다'와 '모르다'의 복수 기저형은 모두 장음으로 실현된다. 성조와 장단의 대응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3.1.2.4. 색채 형용사

'노랗다, 파랗다, 하얗다, 벌겋다'와 같은 'X앟/엏-' 구성 색채 형용사의 첫음절은 모두 단음으로 실현될 것이 기대되지만 장음으로 나타난다. 아

래는 ‘X앟/엏-’ 구성 색채 형용사의 15세기 성조와 현대국어 장단이다.

<표 7> ‘X앟/엏-’ 구성 색채 형용사의 성조와 장단

색채 형용사	첫음절의 성조	첫음절의 장단 (『표준국어대사전』 기준)
노랗다(<노ᄅᆞ다)	L	장음
누렇다(<누러ᄒᆞ다)	H	장음
파랗다(<파라ᄒᆞ다)	H	장음
퍼렇다(<퍼러ᄒᆞ다)	H	장음
하얗다(<하야ᄒᆞ다, 하여ᄒᆞ다, 해야ᄒᆞ다)	H	장음
허옇다(<허여ᄒᆞ다)	H	장음
벌겋다(<벌거ᄒᆞ다)	H	장음
부옇다(<부희다)	L	장음
발갛다(<볼가ᄒᆞ다)	L	장음
환하다(<환ᄒᆞ다)	L	장음
훤하다(<훤ᄒᆞ다)	L	장음

<표 7>에서는 모든 색채 형용사가 평성이나 거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국어에서 장음으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추에 의해 장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의미 부류에 따라 해당 단어 전부가 장음으로 실현되는 예는 색채 형용사 말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특이하다.

이러한 현상은 사전의 어휘적 장음 표시가 표현적 장음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김창섭(1991:749~750)은 색채어의 표현적 장음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실현되어 어떤 면에서는 어휘적 장음 이상의 고정성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함을 지적하였고, 정인호(1999:76) 역시 대부분의 색채어가 표현적 장음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결국 단음으

로 나타날 것이 기대되는 색채 형용사가 장음으로 등재된 것은, 색채 형용사에서 표현적 장음이 상당히 고정적으로 나타나는 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연 '색채어'라는 의미 부류가 표현적 장음을 야기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색채 명사인 '빨강, 파랑, 하양, 노랑' 등은 사전에 단음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색채어'라는 의미 부류 자체가 고정적으로 실현되는 표현적 장음을 유발한다면 색채 명사 역시 장음으로 등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색채 형용사의 표현적 장음이 '색채어'라는 의미 부류가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 유발되었음을 의미한다.

김창섭(1991)에서는 강화접미사[34]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는 어두 음절이나 어근 말 음절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색채 형용사의 '-앟/엏-' 역시 강화접미사에 해당하는데, 김창섭(1991)의 논의에 따르면 이때의 강화접미사가 색채 형용사의 표현적 장음을 유발한 듯하다. 결국 색채 형용사의 표현적 장음은 '색채어'라는 의미 부류가 아닌 강화접미사에 의해 유발되었고, 강화접미사에 의한 표현적 장음이 사전에 반영되어 단음으로 실현될 것이 기대되는 색채 형용사들이 장음으로 등재된 것이다.

3.1.2.5. 성조 변동을 겪은 복합어

15세기 국어에서 복합어가 형성될 때, 구성 요소의 성조가 유지되기도 하고 변화를 겪기도 한다. 김성규(1994:34~49)에서는 복합어의 성조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를 '복합어 형성 규칙'과 '복합어 성조 변화 규칙'을 통해 설명한다. 이때 '복합어 형성 규칙'은 복합어가 만들어지면서 성조가

34) 강화접미사란 '기다마하다, 길찍하다, 깊숙하다'와 같이 정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형용사들의 '-다마, -직, -숙'과 같은 어근형성 접미사들을 가리킨다.(김창섭 1991:748)

변하는 복합어 고유의 공시적 성조 규칙이고, '복합어의 성조 변화 규칙'은 복합어가 만들어진 후 성조가 단일어와 같은 변화를 겪는 통시적 규칙이다. '복합어 형성 규칙'은 복합어를 구성하는 선행 요소의 성조를 바꾸고, '복합어의 성조 변화 규칙'은 후행 요소의 성조를 변화시킨다. 현대국어의 어휘적 장음은 단어의 첫음절에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휘적 장음과 관련되는 것은 '복합어 형성 규칙'이다.

복합어 형성 규칙은 세 양상으로 나타난다. 상성과 상성이 결합하였을 때 선행하는 상성이 평성이 되는 경우와, 거성과 평성이 결합하였을 때 선행하는 거성이 평성이 되는 경우, 거성과 상성이 결합하였을 때 선행하는 거성이 평성이 되는 경우이다. 가령 아래 (24)의 1)에서는 상성 어간 '감-'과 '돌-'이 결합했을 때 선행 요소인 '감-'의 성조가 평성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2)와 3)의 선행 요소의 성조도 모두 평성으로 변동을 겪는다.

(24) 복합어 형성 규칙

1) R + R(X) → LR(X)

: 감-(R) + 돌-(R) + -숩고(H○) → 갊도숩고(LRLH)[35]

: 낮(R) + 낮(R) + -이 → 낟나치(LRH)

: 뫼(R) + 골(R) + -애 → 묏고래(LRH)

2) H + L(X) → LL(X)

: 귀(H) + 밑(L) → 귀밑 > 구밑(LL)

: 눈(H) + 섭(L) + -이(H) → 눈서비(LLH)[36]

: 눈(H) + ᄌᆞᅀᆞ(LH) + -롤(H) → 눈ᄍᆞᅀᆞ롤(LLHH)

: 발(H) + 가락(LL) + -ᄋᆞ로(H○) → 밧가락ᄋᆞ로(LLLHH)

: 발(H) + 바당(LH) → 밠바당 > 밧바당(LLH)

: 손(H) + 가락(LL) → 솑가락(LLL)

---

35) '-숩-'의 성조는 특이한데 여기서는 일단 거성으로 처리하였다.(김성규 1994:35)

36) 원문에서는 '눈(거) + 섭(평) + -이(거) → 눈썹(평평거)'라 되어 있어 수정하였다.

: 손(H) + 바당(LH) + -이(H) → 솝바다이(LLHH)

: 입(H) + 시울(LH) → 입시울(LLH)

3) H + R(X) → LR(X)

: 발(H) + 귀머리(R○○) → (밡귀머리>) 밧귀머리(LRLH)

: 뿔(H) + 벌(R) → 뿟벌(LH)

(김성규 1994의 예)

앞서 우리는 현대국어의 장단이 15세기 국어의 성조에 대응됨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첫음절의 상성이 평성이 된 복합어는 현대국어에서 단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1)에 속하는 '감돌다'와 '낱낱이'는 현대국어에서 [감:돌다], [난:나치]로 나타난다. 현대국어의 장단이 구성 요소 본래의 성조에 대응되는 것이다.

이는 김성규(1994:38)에서 "<복합어 형성 규칙>이 적용된 단어들의 성조는 16세기에 들어서도 15세기에 실현되던 성조와 동일하게 실현된다."고 한 것과도 상충한다. 만약 복합어 형성 규칙이 적용된 어형이 후대에도 나타난다면 더더욱 현대국어에서 장단을 지켜 나타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표준국어대사전』이 복합어의 어휘적 장음을 표시할 때 복합어 형성 규칙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 요소 각각의 성조만을 따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복합어 성조와의 대응을 따른다면 '감돌다'와 '낱낱이'는 [감돌다], [난나치]로 실현되어야 한다.[37]

지금까지 우리는 '상성>장음'의 대응에서 벗어난 예들을 살펴보았다. 김성규(2006)에서 특정 부류의 1음절 용언 어간을 유추로 설명한 것에 더해 음절 축소에 의한 장음과 'ㅐ, ㅒ, ㅚ'말음 1음절 용언 어간의 장음, ㅎ-말음 1음절 용언 어간과 르-불규칙 용언 어간의 장음, 색채 형용사의 장음, 성조 변동을 겪은 복합어의 장음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현대국어의

37) (24-1)에 해당하는 단어 중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단어가 둘밖에 되지 않아 더 많은 예를 살펴보지 못했다.

어휘적 장음이 단순히 '상성>장음'만의 원칙을 따라 형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성조와 대응을 이루지 않는 어휘적 장음은 음절 축약, 유추, 표현적 장음, 혹은 어떠한 경향성에 의한 장단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대국어의 장음이 사전에 따라 다른 기술을 보이는 이유는 이런 요소들이 사전마다 다르게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그런데 과연 어휘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는 운소가 사전마다 다르게 기술되는 것이 가능할까? 가령 사과는 모든 사전에서 '사과'로 표시되고 수박은 모든 사전에서 '수박'으로 표시된다. 사과를 '시과'로 쓰거나 '수박'을 '스박'으로 썼다면 그것은 잘못된 단어가 된다. 음운은 의미를 변별하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이다. 음운이 달라지면 의미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휘적 장음의 표시가 사전마다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현대국어에서 어휘적 장음이 지니는 운소로서의 지위가 극히 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과연 현대국어에서 어휘적 장음이 운소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3.2.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본 절에서는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를 다룬다. 어떤 음운이 더 이상 음운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것을 '비음운화'라고 한다. 장단에 의해 구별되던 최소대립쌍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 장단은 비음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오래도록 장음 연구의 관심이 되어 왔다. 특히 여러 연구들이 연령대별 변이에 관심을 둔 조사를 진행하였다. 아래의 <표 8>은 연령대별 변이에 따른 어휘적 장음 실태 조사를 정리한 것이다.

<표 8> 어휘적 장음 실태 조사 결과

선행 연구	○	△
박주경(1985)	40대 이상	30대 이하
정명숙·황국정(2000)	60대 이상	50대 이하
김수형(2001)	-	10대, 50대
김선철(2003)	-	60대 포함 전 연령
한준일(2014)	-	20대, 50대
김혜림·김민희(2019)	-	20~30대, 70~80대

가장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박주경(1985)과 정명숙·황국정(2000)에서는 각각 40대 이상 그룹과 60대 이상 그룹에서 어휘적 장단이 지켜진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어느 연령대에서도 어휘적 장음이 변별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이는 어휘적 장음이 연령별 변이를 보인다는 기존의 논의와도 부합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표 8>의 결과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결과가 상충하는 조사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박주경(1985), 정명숙·황국정(2000), 김선철(2003)이 그렇다. 박주경(1985)과 정명숙·황국정(2000)에서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한다고 보고되었던 세대가 김선철(2003)에서는 어휘적 장음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 항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박주경(1985)은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단어와 이루지 않는 단어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정명숙·황국정(2000)은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김선철(2003)은 최소대립쌍은 이루지 않고 기저에 장음을 갖는 단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 항목의 차이가 조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 듯한데, 이는 달리 말하면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어휘에 따라 상이한 속도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언어 변화가 일어날 때 어휘마다 적용받는 시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어 변화는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장음이 운소로서의 지위를 잃는 언어 변화 역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모든 어휘에서 동시에 장단의 구별이 사라질 수는 없다. 일부 어휘에서 먼저 장단의 구별이 사라졌을 것이고, 이후 더 많은 단어에서 장단이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연구는 여부(與否)의 이분보다는 변화의 연속적인 과정을 포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법이 어휘 유형과 항목을 고려하는 것이다.

어휘 유형을 고려하여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에 접근해야 함은 박주경(1985)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주경(1985)은 서울 토박이를 10대부터 60대 이상으로 나누고 각 연령층마다 5명의 제보자를 선정하여 총 30명의 제보자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0대 이하인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어휘적 장음이 거의 사라졌지만 40대 이상인 '안정된 세대'에서는 아직 어휘적 장음이 남아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9> 박주경(1985)의 조사 결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조사 결과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하지 않음 (자라나는 세대)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함 (안정된 세대)		

그런데 박주경(1985)의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 유형에 따라 장단 구별의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0>은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하는 '안정된 세대'의 조사 결과를 어휘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0> ‘안정된 세대’의 어휘적 장음 실태 조사 결과

어휘 유형	변별 가능 단어[38]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	6쌍/8쌍 (12개/16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 어간	3쌍/5쌍 (6개/10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한자어)	0쌍/5쌍 (0개/10개)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않지만 기저에 장음을 가진 단어 (이하 ‘기저에 장음을 가진 단어’)	7개/60개

‘안정된 세대’는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에서는 제시된 8쌍의[39] 단어 중 6쌍을, 용언에서는 5쌍의 단어 중 3쌍을 변별하여 발음하였다. 그러나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한자어)에서는 제시된 5쌍의 단어 모두 장단을 변별하지 못했으며, 기저에 장음을 가진

38) ‘안정된 세대’(40대~60대)의 과반 이상이 장음형과 단음형을 지켜 발음하면 해당 단어의 장단이 변별 가능하다고 보았다. 가령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장음형 ‘줄’과 단음형 ‘줄’의 조사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박주경(1985)은 각 연령층마다 5명의 제보자를 조사하였으므로 3명이 넘으면 과반이 된다. 장음형 ‘줄’은 40대~60대 모두에서 장음형을 지켜 발음하는 사람의 수가 과반이 넘으며, 단음형 ‘줄’ 역시 40~60대에서 단음형을 지켜 발음하는 사람이 수가 과반이 넘으므로 안정된 세대에서 ‘줄’은 변별 가능한 단어로 보았다. 반면 둘 중 하나라도 과반이 넘지 않으면 장단의 변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다.

낱말분류 기준번호 / 연령 기준형	10-19	20-29	30-39	40-49	50-59	60-	계
줄(繩)	0	1	3	5	3	5	17
줄(線)	5	5	5	5	5	4	29

(박주경 1985:38의 [표 4]를 편집하여 제시함)

39) 박주경(1985)에서는 10쌍의 항목을 조사했지만 2쌍은 잘못 조사되어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잘못 조사된 항목은 ‘눈’과 ‘솔’인데, 각각의 제시문을 “하얀 눈을 바라보니 눈이 부시다.”와 “구두솔에서 솔 향기가 풍긴다.”라고 하여 ‘하얀 눈’과 ‘구두솔’이 하나의 단어처럼 실현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박주경(1985)에서도 장음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제시문을 잘못 제시하여 어휘적 장음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후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60개의 단어[40] 중 제보자의 과반 이상이 장음형을 지켜 발음한 단어는 7개에 불과했다. 결국 안정된 세대에서 어휘적 장음은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과 용언 어간에서만 지켜질 뿐,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이나 기저에 장음을 가지는 단어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를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어휘 유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비음운화는 일시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므로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음운화를 연속적인 변화 과정으로 보고, 어휘 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비음운화의 과정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3.2.1. 활용 자료 검토

어휘 유형을 중심으로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실태 조사를 활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방법은 반영하는 실태 조사의 과정 및 방법을 모두 수용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떤 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할지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선별하기 위한 여섯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1) 방송인이 아닌 화자를 대상으로[41] 2) 녹음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 장음과 단음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4)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신뢰할 만하며 5) 제보자의 수가 너무 적지 않고 6) 어휘 항목별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껏 실시된 어휘적 장음 실태 조사는 박주경(1985), 정명숙·황국정

40) 박주경(1985)의 조사 항목은 400개였지만 지면상 논문에서는 여러 조사 항목을 생략하고 100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전체 조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박주경(1985)에 제시된 100개 항목에 대한 결과만을 활용하였다.

41) 아나운서나 기자와 같은 방송인의 경우 발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자의 발음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

(2000), 김선주(2000) 등을 포함한 9개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 위에서 제시한 기준에 적합한 4개의 조사를 활용한다. 본고에서 활용할 조사는 아래와 같다.[42] (구체적으로 이 조사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다음 항에서 다룬다.)

<표 11>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연구에 활용하는 조사 목록

선행 연구	길이 측정 방법	어종 (어휘 수)[43]	제보자 수
박주경 (1985)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단음과 장음의 비가 1:1.5~2를 보이면 장음으로 처리	1) 장단에 의해 변별되는 1음절 체언(8쌍)·용언(5쌍) 2) 장단에 의해 변별되는 2음절 체언(한자어)(5쌍) 3) 기저에 장음을 가지는 단어(60개)	세대별 5명 (총 30명)
정명숙·황국정 (2000)	모음의 길이와 전체 음절에서의 모음의 비율 측정	장단에 의해 변별되는 2음절 체언(한자어) (24쌍)	세대별 4명 (총 12명)
한준일 (2014)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제시[44]	장단에 의해 변별되는 1음절 체언(5쌍)[45]	20대 10명, 50대 10명 (총 20명)

42) 본고에서는 각 연구에서 제시한 실태 조사만을 활용할 뿐,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은 따르지 않았다.

김혜림·박민희(2019)	모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단음 대 장음 비가 1:1.5 이상이 되는 경우 장음으로 처리	1) 장단에 의해 변별되는 1음절 체언(11쌍) 2) 장단에 의해 변별되는 2음절 체언(한자어) (5쌍)	20~30대 10명, 70~80대 10명 (총 20명)

이에 더해 김선철(2003), 김선철(2006)[46]의 조사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김선철(2003), 김선철(2006)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350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어휘적 장음을 가지는 29개 단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장음과 단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수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음 항에서는 선별한 실태 조사를 활용하여 어휘 유형별 비음운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어휘 유형은 크게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분하고,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경우는 다시 1음절 체언과 용언, 2음절 체언(한자어)으로 나누어 살핀다. 각 어

43) 선행 연구에서 실시한 실태 조사 전체 항목이 아닌, 본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목만을 표시하였다. 가령 박주경(1985)의 경우 전체 조사 항목은 400개였지만 지면상 논문에서는 여러 조사 항목을 생략하고 100개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만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100개 항목에 대한 결과만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표 11>에는 활용할 수 있는 100개 항목에 관한 정보만을 담았다.

44) 제시된 길이의 비가 1:1.5~2를 보이는 경우 필자가 장음으로 처리하였다.

45) 한준일(2014)에서는 한자어 6쌍과(7쌍을 조사하였지만 '세'와 '체'는 장단에 의해 변별되는 예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고유어 5쌍을(6쌍을 조사하였지만 '일'과 '길'은 장단에 의해 변별되는 예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조사하였는데, 본고에서는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한자어는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아 <표 11>에 포함하지 않았다.

46) 김선철(2003)을 보완한 것이다.

휘 유형별로 활용할 조사는 아래와 같다.

<표 12> 어휘 유형별로 활용하는 조사 목록

어휘 유형		활용 자료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경우	1음절 체언	박주경(1985), 한준일(2014), 김혜림·박민희(2019)
	1음절 용언	박주경(1985)
	2음절 체언 (한자어)[47]	정명숙·황국정(2000), 김혜림·박민희(2019)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않는 경우		박주경(1985) (+김선철(2003), 김선철(2006))

어휘 유형별로 비음운화 과정을 살펴볼 때에는 각 조사의 제보자를 출생 연도로 구분한다.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한데 모아 비교하고 분석하기에는 연령대보다 출생연도로 제보자를 구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제 어휘 유형별로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자.

3.2.2.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용언

장단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1음절 체언과 용언의 비음운화는 박주경(1985), 한준일(2014), 김혜림·박민희(2019)를 통해 살핀다. 본고에서는 각 조사의 분석 방법과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이들을 종합한 결과를 후술한다.

47) 박주경(1985)에서도 2음절 체언(한자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조사 항목에 장단의 기본형이 잘못된 것이 있어 활용하지 않았다.

1) 조사 분석

① 박주경(1985)의 조사 분석

박주경(1985)은 서울 토박이를[48] 10대부터 60대 이상의 6개 연령층으로 나누고, 각 연령층마다 5명의 제보자를 두어 총 30명의 제보자를 조사하였다. 박주경(1985)에서 조사한 제보자의 출생 연도는 아래와 같다.[49]

<표 13> 박주경(1985) 제보자의 출생 연도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출생 연도	1967 ~1976	1957 ~1966	1947 ~1956	1937 ~1946	1927 ~1936	~1926

이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과 체언을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박주경(1985)에서는 연령층별로 5명의 제보자를 두었는데, 제보자들이 어떤 응답을 하였는지를 각각 기록하지는 않고 장단을 지켜 발음하는 제보자의 수만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박주경(1985)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제시하였는지를 보여준다.[50]

48) '서울 토박이'의 기준은 "본인은 물론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이 3대 이상 서울에서 출생, 교육을 받고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였다.(박주경 1987:17)

49) 박주경(1985)의 논문 작성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10대의 경우 1985년 기준으로 10~19세에 해당하므로 출생 연도는 1967~1976년이 된다.

50) 박주경(1985)에서는 두 가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제보자에게 장음으로 발음하는 음절 위에 'ㅡ'표시를 하게 하여 장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기준형의 일치도를 살펴보는 조사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화자의 발화를 녹음하여 어휘적 장음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조사이다. 본고에서는 후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활용한다.

표 4. 기준형과 실제 발음의 일치 상황표

낱말분류 기준번호	연령 / 기준형	10-19	20-29	30-39	40-49	50-59	60-	계
Ⅰ. 1)가.	눈(雪)	0	1	0	2	1	0	4
	눈(眼)	5	5	5	5	5	5	30
	발(簾)	1	2	3	5	5	5	21
	발(足)	5	5	5	5	5	5	30
	밤(栗)	1	4	4	5	5	5	24
	밤(夜)	5	5	5	5	5	5	30

<그림 18> 박주경(1985:38)의 조사 결과 제시 방법

<그림 1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박주경(1985)에서는 각 단어의 장음형과 단음형을 지켜 발음하는 제보자의 수를 제시한다. 이때 장단에 따른 의미 구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음형과 단음형의 결과를 종합하여 봐야 한다. 예를 들어 '발(簾)'의 경우 40대, 50대, 60대 그룹에서는 제보자 모두가 장음과 단음을 지켜 발음한다. 장단에 따른 의미 변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0대 그룹의 '발'은 단음형(足)만 잘 지켜지고 있을 뿐 장음형(簾)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5명의 제보자 중 오직 1명만이 장음형을 장음으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음운론적으로 장음과 단음은 대립하므로 장음으로 실현되어야 할 '발(簾)'이 오로지 1명에게서만 장음으로 나타났다면, 나머지 4명은 단음으로 발음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결국 10대 그룹에서 '발'이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10대 그룹에서 '발'의 장단이 비음운화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박주경(1985)의 조사 결과를 재구성해볼 것이다. 제보자들이 각 어휘 항목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분석이 보다 간편하고 정확하겠지만, 조사 결과가 장단형을 지켜 발음한 제보자의 수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장단을 구분하여 발음하는 화자의 수가 5명 중 4명 이상일 때만 해당 어휘

항목에서 장단이 운소의 기능을 한다고 볼 것이다. 장단이 운소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80% 이상의 화자에게서 어휘적 장음이 변별적이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발'의 경우, 40대 이상에서는 장음이 운소의 역할을 하지만 10대 그룹에서는 장음이 의미 변별에 어떠한 기능도 하지 못한다고 본다.

한편 80%보다 적은 사람들이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하는 경우도 그 수를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연령층에 따른 변이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각 단어별로 장단을 구분하는 제보자의 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만약 5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눈'의 장음형을 지켜 발음하는 제보자의 수가 3명이고, 단음형을 지켜 발음하는 제보자의 수도 3명이라면 장단을 구분하는 제보자는 3명이 될 수도 있지만 1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명은 장음형과 단음형을 지켜 발음한 제보자가 모두 같다는 가정에서 나온 숫자이고, 1명은 장음형과 단음형을 지켜 발음한 제보자가 가능한 겹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나온 숫자이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정을 통해 나온 인원의 평균으로 장단을 구분하는 제보자의 수를 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방금 예로 든 '눈'의 경우, 장단을 구분하는 제보자의 수는 2명이 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박주경(1985)의 조사 결과를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14> 박주경(1985)의 조사 결과 재구성

	어휘 (장음형, 단음형)	10대 (1967~1976)	20대 (1957~1966)	30대 (1947~1956)	40대 (1937~1946)	50대 (1927~1936)	60대 이상 (~1926)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	발 (簾, 足)	1	2	3	5	5	5
	밤 (栗, 夜)	1	4	4	5	5	5
	줄 (剿, 絃)	-	1	3	5	3	5
	일 (事, 一)	-	1	2	5	5	5
	굴 (窟, 蠣)	1	2	3	2	4	4
	돌 (乭, 石)	2	1.5	1	3.5	3	5
	말 (語, 馬)	0.5	1	1.5	4	4	5
	벌 (蜂, 野)	-	2	1.5	2	1.5	3.5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 어간	배다 (侵, 姙)	0.5	1.5	1	1	-	I .5
	안다 (안다, 앉다)	-	2	1	4	3	5
	낫다 (낫다, 낮다)	-	2	3	2.5	3	5
	물다 (脆, 咬)	-	-	-	-	1	-
	산다 (住, 買)	2	1	2	5	4	5

각 셀의 숫자는 해당 단어의 장단을 구분할 수 있는 제보자의 수이다. 그 수가 0일 때는 '-'로 표시하였다. 장단을 구분할 수 있는 제보자가 5명 중 4명 이상인 셀, 즉 어휘적 장음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는 셀은 흑색으로 표시하였다. 과반 이상(3명 이상)이 장단형을 구분한 셀은 연한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재구성한 결과를 60대 이상과 40~50대, 20~30대, 10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은 8쌍이 조사되었다. 60대 이상은 이 중 7쌍의 장단을 변별하여 발음하였다. 40~50대는 장단을 구분할 수 있는 제보자를 합쳐 8명 이상일 때 장단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8쌍의 단어 중 5쌍에서 장단이 변별되었다. 20대~30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장단을 구분할 수 있는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오직 '밤'에서만 장단이 구분되었다. 10대의 경우 어느 단어에서도 장단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높은 연령층일수록 더욱 많은 단어에서 장단이 변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어휘 항목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는 연령층별로 장단의 구분이 가능한 1음절 체언의 어휘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5>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의 연령별 변이

연령(출생 연도)	어휘 항목 (총 8쌍)
60대 이상 (1926년 이전 출생)	발, 밤, 줄, 일, 굴, 돌, 말 (7쌍)
40대, 50대 (1927~1946)	발, 밤, 줄, 일, 말 (5쌍)
20대, 30대 (1947~1966)	밤 (1쌍)
10대 (1967~1976)	-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의 경우, 1926년 이전 출생 그룹에서는 장단이 꽤 잘 지켜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단의 구분은 1946년 이전 출생 그룹까지 어느 정도 지켜지다가, 이후에 출생한 그룹부터 급속하게 자취를 감춰 1967년 이후에 출생한 제보자에게서는 어휘적 장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된 듯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6>과 같다.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해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을 표로 제시한 것이다. 색이 진할수록 더 많은 단어에서 어휘적 장음이 지켜짐을 의미한다.

<표 16>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 중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
(박주경(1985)의 조사 활용)

	~1926	1927 ~1936	1937 ~1946	1947 ~1956	1957 ~1966	1967 ~1976
체언	87.5%	62.5%		12.5%		0%

10%이하 10~20% 20~50% 50~70% 70%이상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 어간은 5쌍이 조사되었다. 이 중 '배다'와 '불다'는 어느 연령층에서도 장단이 지켜지지 않았다. 반면 '산다'는 40~60대 모두에서 장음형과 단음형이 구별되었으며, 60대는 '안다'와 '낫다'의 장단도 구분하여 발음하였다. 10~30대는 어떤 단어의 장단도 변별하지 못했다. 아래의 <표 17>은 연령층별로 장단의 구분이 가능한 1음절 용언 어간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역시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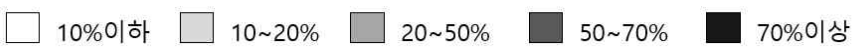
<표 17>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의 연령별 변이

연령(출생 연도)	어휘 항목 (총 5쌍)
60대 이상 (1926년 이전 출생)	안다, 낫다, 산다 (3쌍)
40대, 50대 (1927~1946)	산다 (1쌍)
10~30대 (1947~1976)	-

1음절 용언 어간의 경우, 1926년 이전 출생 그룹에서 이미 5쌍의 단어 중 3쌍만 변별되는 모습을 보인다. 체언에 비해 더욱 빠른 비음운화가 진행된 것이다. 1927~1946년 출생 그룹에서는 장단에 의해 변별 가능한 단어가 1쌍으로 줄고, 1947년 이후 출생 그룹부터는 어떤 단어도 장단을 지켜 발음되지 않는다.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해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18>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 중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
(박주경(1985)의 조사 활용)

	~1926	1927 ~1936	1937 ~1946	1947 ~1956	1957 ~1966	1967 ~1976
용언	60%	20%		0%		



② 한준일(2014)의 조사 분석

한준일(2014)은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의 서울 토박이[51] 20대 10명

51) 한준일(2014)은 서울 토박이의 기준을 20대는 “부모가 모두 서울에서 30년 이상

과 50대 10명을 대상으로 어휘적 장음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제보자의 출생 연도는 아래와 같다.

<표 19> 한준일(2014) 제보자의 출생 연도

	20대	50대
출생 연도	1986~1995	1956~1965

한준일(2014)에서는 장단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1음절 한자어와 고유어 체언을 조사 항목으로 하여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1음절 한자어의 비음운화 정도는 다루지 않으므로 고유어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한준일(2014)에서 조사한 고유어는 6쌍이지만 이중 '일'과 '길'은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예가 아니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준일(2014)에서는 발화에서 나타난 모음이 장음인지 단음인지는 판단하지 않고 모음의 지속 시간만을 제시한다. 이에 본고는 장음형과 단음형의 길이의 비가 1:1.5 이상인 경우 장모음이 실현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가령 아래의 <그림 19>는 한준일(2014:39)이 제시한 '눈'의 장음형(눈04)과 단음형(눈01)의 모음의 지속 시간이다. 본고에서는 굵은 네모로 표시한 '남4'의 경우처럼 장음형의 모음의 길이가 단음형의 그것보다 1.5배 이상 길 때 장단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준일(2014)의 결과를 재구성하면 아래의 <표 20>과 같다.

거주했고,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는 자", 50대는 "서울에서 태어났다가 타 지역에서 이주했더라도 30년 이상 거주하여 지역 방언을 쓰지 않는 자"로 정하였다.

연령대	화자	위치	지속시간	
			눈[04]	눈[01]
20대	남1	어두	0.2027	0.181
		어중	0.1565	0.1321
	남2	어두	0.1650	0.1656
		어중	0.1173	0.1137
	남3	어두	0.1956	0.1571
		어중	0.1674	0.1458
	남4	어두	0.2551	0.1438
		어중	0.2225	0.1209
	남5	어두	0.1964	0.1854
		어중	0.1750	0.1527

<그림 19> '눈'의 어휘적 장음 조사 결과

(한준일 2014:39)

<표 20> 한준일(2014)의 조사 결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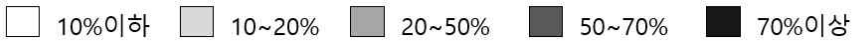
	20대 (1986~1995)		50대 (1956~1965)	
	어두	어중	어두	어중
개	-	-	-	-
벌	-	-	-	-
말	2	1	-	-
눈	1	1	-	-
돌	1	1	-	3

<표 20>은 단어별로 어두와 어중에서 장단을 구분하는 화자의 수를 보여준다. 어떤 단어 항목에서 장단이 운소의 기능을 잃지 않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0% 이상의 화자들이 장단을 지켜 발음해야 한다. 한준일(2014)에서는 20대와 50대 각 1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므로 8명 이상의 화자가 장단을 구분할 때, 해당 단어가 장단에 의해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표 20>에서는 어떤 단어에서도 8명 이상의 화자가 장단을 지켜 발음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8명에 훨씬 못 미치는 3명 이하의 제보자만이 일부 단어에서 장단을 구분하는 모습을 보여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상당 수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해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 중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
(한준일(2014)의 조사 결과 활용)

	1956 ~1965	1986 ~1995
체언	0%	0%



③ 김혜림·박민희(2019)의 조사 분석

김혜림·박민희(2019)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표준어를 구사하는 70~80대 10명과 20~30대 10명을 대상으로 어휘적 장음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보자의 출생 연도는 아래와 같다.

<표 22> 김혜림·박민희(2019) 제보자의 출생 연도

	20~30대	70~80대
출생 연도	1981~2000	1931~1950

조사 단어는 장단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1음절 명사 11쌍과 2음절 명사(한자어) 5쌍이다. 김혜림·박민희(2019)는 연령별로 장음을 지켜 발음한 제보자의 수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1음절 명사 11쌍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23> 김혜림·박민희(2019)의 조사 결과
(최소대립쌍을 가지는 1음절 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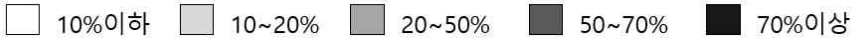
	20~30대 (1981~2000)	70~80대 (1931~1950)
말	-	4[52]
창	-	4
굴	-	3
밤	1	2
해	2	1
일	1	-
눈	2	-
돌	-	-
배	-	-
병	-	-
발	1	-

<표 23>는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어휘 항목에서 소수의 제보자만이 장단을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80% 이상의 제보자가 장단을 구분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두 그룹 모두에서 과반이 넘는 단어가 장단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표로 옮기면 아래의 <표 24>와 같다. 다만 70~80대의 경우, '말'과 '창'은 미약하게나마 어휘적 장음이 남아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52) '말'의 경우 70~80대 제보자 1명이 누락되어 총 제보자의 수는 9명이다.

<표 24>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 중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
(김혜림·박민희(2019)의 조사 결과 활용)

	1931 ~1950	1981 ~2000
체언	0%	0%



2)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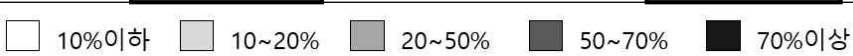
여기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과 용언의 비음운화 과정을 살펴본다.

앞서 우리는 박주경(1985)을 통해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어휘 항목의 개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변별 가능한 어휘적 장음이 줄어드는 양상을 통해 어휘 항목별 비음운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의 경우, 지금까지 제시한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표 25>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의 분석 결과 종합

	~1926	1927 ~1936	1937 ~1946	1947 ~1956	1957 ~1966	1967 ~1976	1977 ~1986	1987 ~1996	1997 ~2006
①	87.5%	62.5%		12.5%		0%			
②					0%			0%	
③			0%				0%		



①, ②, ③은 각각 박주경(1985), 한준일(2014), 김혜림·박민희(2019)의 분석 결과이다. 출생 연도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조사별로 제보자와 조사 항목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세 조사를 종합해보고자 한다.

<표 25>를 보면 조사별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1967년 이후 출생 그룹부터는 모든 단어에서 어휘적 장음이 비음운화된 듯한 모습을 보인다. 1926년 이전 출생 그룹에서는 어휘적 장음이 잘 지켜졌지만 그 이후부터 혼란을 겪은 듯하며, 1926년 이후 출생자부터 1966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아주 일부 단어에서만 어휘적 장음이 지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53]

<표 26>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의 비음운화 과정

~1926	1927 ~1936	1937 ~1946	1947 ~1956	1957 ~1966	1967 ~1976	1977 ~1986	1987 ~1996	1997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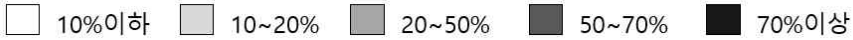
10%이하 10~20% 20~50% 50~70% 70%이상

이제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을 살펴보자. 용언의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박주경(1985)뿐이라 앞서 살펴본 박주경(1985)의 결과를 옮겨오기로 한다.

53) 각 조사의 제보자 수와 어휘 항목이 달라 이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색으로만 표시하였다.

<표 27>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의 비음운화 과정

~1926	1927 ~1936	1937 ~1946	1947 ~1956	1957 ~1966	1967 ~1976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은 1926년 이전 출생 그룹에서 장단의 구분이 체언만큼 잘 지켜지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체언에서의 비음운화가 1967년 이후 그룹에서 완료된 데 반해, 용언에서의 비음운화는 1947년 이후 그룹에서부터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에서 어휘적 장음이 더 빠르게 비음운화된 것이다.

3.2.3.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한자어)

장단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2음절 체언(한자어)의 비음운화는 정명숙·황국정(2000)과 김혜림·박민희(2019)를 통해 알아본다.

1) 조사 분석

① 정명숙·황국정(2000)

정명숙·황국정(2000)은 한자어의 어휘적 장음 실현 양상을 세대별로 살펴보기 위해 서울과 서울 근교 지역에서 출생한 화자 1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제보자는 세대별로 남녀 2명씩을 선정하였으며, 제보자의 분류와 출생 연도는 아래와 같다.

54) 보고된 제보자의 나이를 활용하여 계산하였다. 제보자의 나이는 아래와 같다.

<표 28> 정명숙·황국정(2000) 제보자의 출생 연도

	청년층 (20대)	장년층 (40대, 50대)	노년층 (60대, 70대)
출생연도[54]	1970~1979	1946~1956	1923~1936

조사 항목으로는 2음절 한자어 중 장단에 의해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어휘 24쌍을 선정하였고, 대상 어휘의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문장을 구성하여 문장 전체를 발화하게 하였다. 장음은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실현되므로 대상 어휘 바로 앞에 경계가 놓이도록 문장을 구성하고[55] 이를 음성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명숙·황국정(2000)에서는 우선 세대별 장음형과 단음형의 모음 길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장모음과 단모음의 길이 차이는 오로지 노년층에서만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때 장년층은 근소한 차이로, 청년층은 큰 차이로 장단음의 길이 차이가 무의미하다는 값이 도출되었다.

청년층: 25세(3명), 29세
장년층: 43세, 50세, 52세, 53세
노년층: 63세, 64세, 73세, 76세

55)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정명숙·황국정 2000:287)

⑵ 실험 대상 어휘와 문장

[ㄱ] 假定 가:정 내일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가정을 해 보자.
家庭 가정 언제나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監査 감사 내일 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온대요.
感謝 감:사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를 해야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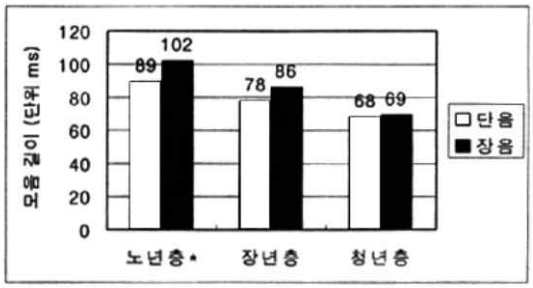


그림 5. 세대별 단음과 장음의 모음 길이 (* : 유의도 0.05 수준에서 유의미함)

<그림 20> 세대별 단음과 장음의 모음 길이
(정명숙·황국정 2000:292)

또한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어휘 항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노년층일수록 구분할 수 있는 어휘가 더 다양하고, 장년층은 그보다 적으며, 청년층은 장년층보다도 더 적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명숙·황국정(2000)의 조사 결과도 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래는 정명숙·황국정(2000)의 조사에서 80% 이상의 제보자가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한 단어의 목록이다. 노년층에서 가장 많은 단어의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고, 장년층에서는 그보다 적은 단어의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며, 청년층에서는 어떤 단어에서도 장단이 지켜 발음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9> 연령별로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
(정명숙·황국정(2000)의 조사 결과 활용)

연령	어휘 항목 (24쌍)
노년층 (1923~1936)	가정, 단정, 이사, 장기, 전신, 처형 (6쌍)
장년층 (1946~1956)	노비, 이사 (2쌍)
청년층 (1970~1979)	-

정명숙·황국정(2000)의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해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0>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 중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
(정명숙·황국정(2000)의 조사 결과 활용)

	1923 ~1936		1946 ~1956		1970 ~1979
2음절 체언 (한자어)	25%		8%		0%

□ 10%이하 ▒ 10~20% ▒ 20~50% ▒ 50~70% ■ 70%이상

② 김혜림·박민희(2019)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혜림·박민희(2019)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표준어를 구사하는 70~80대 10명과 20~30대 10명을 대상으로 어휘적 장음의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항목은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과 2음절 체언이었는데,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1> 김혜림·박민희(2019) 제보자의 출생 연도

	20~30대 (1981~2000)	70~80대 (1931~1950)
부정	1	2
구조	1	1
동기	0	1
용기	0	1
거리	1	0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30대와 70~80대 모두 몇몇의 어휘

항목에서 소수의 제보자가 장음을 지켜 발음하였을 뿐, 80%가 넘는 제보자가 장음을 지켜 발음한 어휘 항목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김혜림·박민희(2019)의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해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2>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 중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
(김혜림·박민희(2019)의 조사 결과 활용)

	1931 ~1950	1981 ~2000
체언	0%	0%

□ 10%이하 ▒ 10~20% ▒ 20~50% ▒ 50~70% ■ 70%이상

2) 분석 결과

각각의 조사에서 확인한 '어휘적 장음이 지켜 발음되는 어휘 항목의 비율'은 아래의 <표 33>과 같다. ①은 정명숙·황국정(2000)의 조사를, ②는 김혜림·박민희(2019)의 조사를 의미한다.

<표 33>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의 분석 결과 종합

	~1926	1927 ~1936	1937 ~1946	1947 ~1956	1957 ~1966	1967 ~1976	1977 ~1986	1987 ~1996	1997 ~2006
①		25%		8%		0%			
②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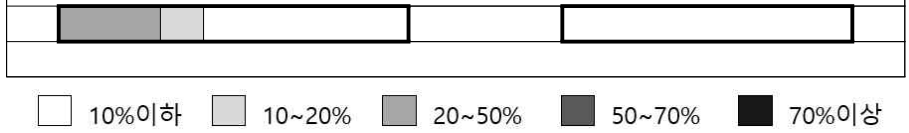
□ 10%이하 ▒ 10~20% ▒ 20~50% ▒ 50~70% ■ 70%이상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두 조사의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조사 항목과 제보자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만일 두 조사의 제보자 수가 비슷하고 겹치는 조사 항목이 있다면 두 연구를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어휘 항목에서 어휘적 장음이 이른 시기에 소멸하였고, 어떤 어휘 항목에서 어휘적 장음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는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조사에서 겹치는 조사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둘의 결과를 종합하여 어휘별 비음운화 정도를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체 어휘 유형에 대한 비음운화 과정만을 살피기로 한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한자어)의 어휘적 장음은 1923~1936년 출생 그룹에서부터 25%의 어휘 항목에서만 지켜져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습을 보인다. 1937년 이후 출생 그룹부터는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완료 단계에 접어든 모습을 보여준다.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한자어)의 비음운화 과정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34>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의 비음운화 과정

~1926	1927 ~1936	1937 ~1946	1947 ~1956	1957 ~1966	1967 ~1976	1977 ~1986	1987 ~1996	1997 ~2006



3.2.4. 기저에 장음을 가진 단어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않지만 기저에 장음을 가진 단어의 비음운화 과정은 박주경(1985), 김선철(2003), 김선철(2006)을 통해 살펴본다. 이때 김선철(2003), 김선철(2006)에는 장음 판별의 기준이 명시되

어 있지 않으므로, 박주경(1985)의 연구를 통해 비음운화 과정의 경향성을 우선 확인한 후, 해당 경향성에 대한 부합 정도를 확인하는 보조 자료로 이용할 것이다.

1) 조사 분석

① 박주경(1985)

박주경(1985)에서는 기저에 장음을 가지는 단어와 단음을 가지는 단어가 실제 발화에서 얼마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고자 60개 단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60개의 조사 항목은 기저에 장음을 갖는 단어 52개와 기저에 단음을 갖는 단어 8개로 구성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장음을 갖는 단어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떤 단어의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위해선 적어도 80% 이상의 화자의 발화에서 어휘적 장음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주경(1985)의 조사에서도 80% 이상인 5명 중 4명 이상이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한 경우에 어휘적 장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았다. 연령층별로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한 단어의 수와 비율은 아래와 같다.[56]

56) 연령층별로 어휘적 장음이 지켜진 단어는 각주로 제시한다.
- 30대: 준준결승
- 40대: 구두시험, 사망선고, 동성연애
- 50대: 미술사, 반병신, 내친걸음, 근로소득, 미술고고학, 구두시험, 사망선고, 동성연애, 메치다
- 60대: 내친걸음, 사망선고, 동성연애, 메치다

<표 35>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한 단어의 수
(박주경(1985)의 조사 결과 활용)

	10대 (1967 ~1976)	20대 (1957 ~1966)	30대 (1947 ~1956)	40대 (1937 ~1946)	50대 (1927 ~1936)	60대 (~1926)
개수 (총 52개)	-	-	1	3	9	4
비율	-	-	1.9%	5.7%	17.3%	7.6%

전체 조사 항목에 대해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6> 기저에 장음을 가지는 단어 중
어휘적 장음이 지켜지는 어휘 항목의 비율
(박주경(1985)의 조사 결과 활용)

~1926	1927 ~1936	1937 ~1946	1947 ~1956	1957 ~1966	1967 ~1976
7.6%	17.3%	5.7%	1.9%	0%	0%

10%이하 10~20% 20~50% 50~70% 70%이상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은 이루지 않고 기저에만 장음을 갖는 단어는 1926년 이전 출생자 그룹부터 거의 모든 단어에서 장음이 지켜지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다른 어떤 단어 유형보다 빠른 속도로 비음운화가 진행된 것이다.

② 김선철(2003)[57]

김선철(2003)은 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말 화자 350명을 대상으로 어휘적 장음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자 그룹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이며, 조사 항목은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 중 조사자가 장단이 유동적이라고 판단한 41개를 임의적으로 추출하여 선정하였다. 41개의 단어 중 29개는 기저에 장음을, 12개는 기저에 단음을 가진 단어이다. 김선철(2003)은 기저에 장음을 갖는 29개의 단어 중 14개가 연령별 변이를 보인다고 보고하고,[58] 이에 한하여 연령별 응답자 수를 공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14개의 단어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김선철(2003)에서 조사한 제보자의 출생 연도를 먼저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7> 김선철(2003) 제보자의 출생 연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출생 연도	1976~ 1985	1966~ 1975	1956~ 1965	1946~ 1955	~1945

기저에 장음을 갖는 14개 단어의 연령별 장음 실현율은 아래의 <표 38>과 같다. 50% 이상의 제보자가 장음을 지켜 발음한 경우에는 흑색으로 표시하였다.

57) 김선철(2006)은 김선철(2003)에 조사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하고 그 결과를 다듬은 것이다. 주된 조사는 김선철(2003)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본고에서는 김선철(2003)으로 표시하되 김선철(2006)에서 추가된 내용도 함께 다룬다.

58) 통계 검증은 거치지 않았다.

<표 38> 기저에 장음을 갖는 단어의 장음 실현율(김선철 2003)

	20대 (1976 ~1985)	30대 (1966 ~1975)	40대 (1956 ~1965)	50대 (1946 ~1955)	60대 (~1945)
검문검색	8.0%	22.8%	33.3%	49.2%	45.5%
김밥	8.0%	4.3%	17.3%	42.2%	60.0%
넣지	12.2%	15.7%	31.9%	42.3%	63.3%
노발대발	4.0%	15.7%	33.3%	36.6%	58.2%
대천	12.2%	31.4%	47.8%	63.4%	73.6%
도끼	8.0%	17.1%	43.4%	54.9%	69.2%
도로	6.0%	8.3%	26.0%	39.4%	59.3%
미술	6.0%	20.0%	29.0%	36.6%	53.8%
방송	16.3%	33.3%	30.4%	57.7%	69.2%
빻고	30.6%	15.7%	42.0%	54.9%	62.6%
선남선녀	12.2%	25.7%	42.0%	52.1%	58.2%
오두방정	8.0%	7.0%	14.4%	29.6%	45.0%
이간질	6.0%	14.2%	17.3%	30.9%	62.6%
타점	12.2%	10.1%	27.5%	38.0%	53.8%
평균	11.31%	18.09%	31.71%	45.19%	59.62%

본고에서는 80% 이상이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할 때 어휘적 장음이 의미 변별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데, 위의 표에서는 어떤 연령층에서도 80% 이상의 화자가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1945년 이전에 출생한 60대 이상 그룹에서부터 이미 어휘적 장음이 상당한 비음운화를 겪은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박주경(1985)의 조사에 대한 분석과도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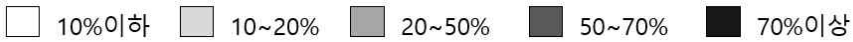
2) 분석 결과

기저에 장음을 가지지만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은 이루지 않는 단어의 경우, 다른 어떤 어휘 유형보다 빠른 비음운화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이 든 세대에서조차 어휘적 장음을 지켜 발음하는 단어의 수가 극히 적은 것이다. 박주경(1985), 김선철(2003)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39> 기저에 장음을 가지는 단어의 비음운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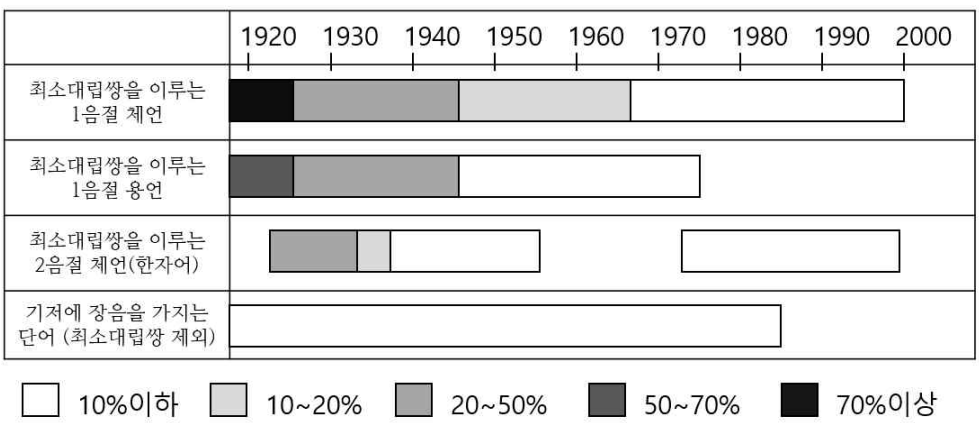
~1926	1927 ~1936	1937 ~1946	1947 ~1956	1957 ~1966	1967 ~1976	1977 ~1986



3.2.5. 분석 결과 종합

지금까지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과 용언, 2음절 체언(한자어), 그리고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않지만 기저에 장음을 갖는 단어의 어휘적 장음이 비음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장음을 지켜 발음하는 어휘 항목의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들의 비음운화 과정을 한데 모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40> 어휘 유형별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과정



<표 40>의 색깔 막대는 장단의 구분이 남아있는(기저에 장음을 가지는 단어의 경우 장음을 지켜 발음하는) 단어의 비율을 나타낸다. 검은색은 조사 항목의 70% 이상에서 어휘적 장음이 남아있음을, 흰색은 10% 이하에서 어휘적 장음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한자어)의 경우 막대그래프가 연속적이지 않은데, 이는 활용한 실태 조사에서 제보자의 출생 연도가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는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생 그룹에만 색깔 막대를 표시하였다.

<표 40>은 어휘 유형별로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과정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에서 가장 느리게 진행되었다. 1920년 중반 이전 출생 그룹에서는 70% 이상의 어휘에서 장음이 지켜졌지만, 이후에 출생한 그룹부터 그 비율이 점차 줄어들어 1940년 중반~1960년 중반 출생 그룹에서는 20% 미만, 1960년 중반 이후 출생 그룹에서는 10% 미만의 어휘에서만 어휘적 장음이 나타난다. 사실상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완료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은 1920년 중반 이전 출생 그룹에서부터 50~70% 정도의 어휘에서만 장음이 지켜진다.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체언보다 빠른 비음운화를 겪은 것이다. 장음이 지켜 발음되는 어휘의 수가 10% 미만으로 줄어드는 시점도 체언보다 빠른 1940년 중반 출생 그룹부터이다.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2음절 체언은 1920년 중반~1930년 초 출생 그룹부터 20~50%의 어휘에서만 장모음이 지켜진다. 1930년 중반 이후 출생 그룹부터는 10% 미만의 어휘에서만 장음이 지켜져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1음절 용언보다 빨리 어휘적 장음이 비음운화된 모습을 보인다.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않고 기저에 장음을 가지는 단어는 가장 빨리 비음운화된 모습을 보인다. 1920년대 이전 출생 그룹에서부터 이미 10% 미만의 단어에서만 장음이 지켜진 것이다. 이는 해당 어휘 부류가 최소

대립쌍을 이루지 않아 장음의 기능 부담량이 적은 데 기인한 듯하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어휘 부류에 따라 그 과정과 속도가 상이하게 나타난다. 가령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어휘 유형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느린 속도로 비음운화를 겪는다.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어휘 유형별로 상이하게 진행되다가, 1970년 이후에 출생한 그룹부터는 모든 어휘 유형에서 비음운화가 완료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원인과 그 방향을 살펴보고 본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원인으로는 첫째, 표기 수단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방점으로 표기되던 중세국어 성조와 달리 장음은 별도의 표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어휘적 장음의 계승은 전적으로 이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관습에 기댈 수밖에 없었는데, 표기로 드러나지 않는 장음을 관습에만 의존하여 그대로 계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성조가 사라진 직후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는 장음이 잘 유지되었겠지만, 시간이 흐르고 변화가 축적되며 표기로 확인할 수 없는 장단의 구별은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이진호 2012:237~238)

둘째 원인은 어휘적 장음의 낮은 기능부담량이다. 한국어에는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의 수가 많지 않으며(김수형 2001:62~63), 어휘적 장음은 단어의 첫머리에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장단에 따른 최소대립쌍의 성립 자체가 상당히 제약된다.(이진호 2012:237) 게다가 장단에 의한 최소대립쌍을 이루지 않고 기저에만 장음을 갖는 단어의 경우, 기저의 장음을 지키지 않아도 의미 전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나리’나 ‘거짓말’은 첫음절의 모음이 장모음으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장모음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단어의 의미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모두 어휘적 장음의 기능부담량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낮은 기능부담량은 어휘적 장음이 운소로서의 기능을 잃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제 어휘적 장음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장단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단어의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는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장음이 짧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장모음과 단모음 길이의 비는 장단이 중화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한 길이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가 장음이 단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장단에 의해 의미가 변별되는 항목만을 대상으로 길이를 측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장음과 단음의 길이 비가 연령별 변이를 보이는 것이 확인된다면, 어휘적 장음의 비모음화는 장음이 단음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수진(2002)의 조사를 참고할 수 있다. 공수진(2002)에서는 장단을 구분하는 제보자만을 대상으로 단모음과 장모음의 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대, 30대, 40대가 차례로 1:1.93, 1:2.28, 1:1.86의 비를 보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박주경(1985)에서 제시한 '안정된 세대'의 장단 비인 '1:2'나, 지민제(1993:41)가 2명의 화자에게서 측정한 '1:1.74', '1:1.86'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결과이다. 각 연구가 진행된 시기와 제보자의 출생 연도를 고려해도 연령층에 따른 어휘적 장음의 비율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 게다가 40대의 장모음이 20대, 30대보다 짧게 나타나 연령층에 따른 장단음의 길이 차이는 무의미하다는 데 힘을 실어준다.

공수진(2002)의 제보자 수가 3명으로 매우 적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본고는 결국 어휘적 장음이 남아 있는 화자에게서는 그 길이의 비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본다. 어떤 화자에게 어휘적 장음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화자 본인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장모음과 단모음의 길이 차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는 장단으로 변별 가능한 단어의 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단에 의해 변별되지 않는 단어를 포함하여 장모음과 단모음의 비를 측정했기에 어휘적 장음이 단모음화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4. 표현적 장음

장음의 실현이 단어나 발화의 의미를 미묘(微妙)하게 변화시키거나 뉘앙스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표현적 장음이라고 한다. 2.2.4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표현적 장음은 다른 장음에 비해 두드러지게 길게 나타난다. 그래서 해당 장음이 표현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발화에서는 '돋들림에 의한 장음'과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게다가 표현적 장음의 기능이나 음성적·음운적 특징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둘을 구분할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표현적 장음의 기능과 음성적·음운적 특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표현적 장음의 기능은 무엇이며 어느 위치에서 실현되는지,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면 어떤 음소가 길어지는지, 기식이나 피치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등을 다룰 것이다. 다른 종류와 구별되는 표현적 장음만의 특징을 찾음으로써 발화에 나타난 장음이 표현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현적 장음 연구에는 표현적 장음이 사용된 문장 504개를 직접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드라마, 영화, 자유 발화, 유튜브 컨텐츠 등에서 필자의 청각적 판단에 따라 문장을 수집하였으며, 수집한 문장은 본고 뒤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직접 자료를 수집한 이유는 표현적 장음이 전사된 말뭉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세종 계획 말뭉치에서 장음이 전사된 구어 말뭉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표현적 장음과 자유 발화 고유 요소에 의한 장음을 모두 같은 기호로 전사하고 있다. 반복이나 수정에 의한 장음, 말 끌기에 의한 장음 등이 모두 한 기호로 전사되어 있어 어느 것이 온전한 표현적 장음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외에는 장음을 전사한 구어 말뭉치가 존재하지 않아 필자가 직접 표현적 장음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우선 표현적 장음의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지금껏 표현적 장음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면서도 정작 그 기능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현적 장음은 주로 '강조'의 기능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과연 '강조'만이 표현적 장음의 기능인지, 다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강조를 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후 표현적 장음이 어느 음절에 나타나며 그 음성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볼 것이다.

4.1. 표현적 장음의 기능

표현적 장음의 기능에 관해서는 이병근(1986), 김창섭(1991), 안병섭(2010b), 남기탁(2012), 박미경(2016), 고언숙(2017), 황은하(2019) 등에서 언급되었다. 이병근(1986:35~36)은 발화에 나타나는 장음 중에는 뉘앙스의 차이를 유발하는 장음이 있음을 지적하고 '빨::간, 새::까만, 무::척'을 예로 들었다. 김창섭(1991)은 표현적 장음이 '어휘 의미 강화' 기능뿐 아니라 '지시 영역 넓힘'의 기능도 가짐을 지적하고 이를 강화접미사와 완화접미사의 결합을 통해 설명하였다. 안병섭(2010b)은 본고의 표현적 장음에 해당하는 개념을 '의미 구조적 장음화'로 보고, 이것을 "강조, 감정이 악센트로 실현되면서 장음화가 동반된" 것으로 보았다. 남기탁(2012)은 음장을 '초분절적 음운'[59]과 '초분절적 요소'로 분류하고, 표현적 장음에 해당하는 초분절적 요소는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장음화 음절"이라고 하였다. 박미경(2016:48)은 발화에서 관찰되는 장음에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청지각적 돋들림을 표현한" 화용적 장음이 있음을 지적하고, 화용적 장음에는 망설임 장음과 반복·수정 장음, 그리고 강조 장음이 속한다고 하였다. 고언숙(2017)은 표현적 장음은 어휘의 핵심 속성을 강

59) 본고의 '어휘적 장음'에 해당한다.

조하는 ‘강조’와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단어의 의미적 속성을 유지하는 ‘시간적·공간적 지속’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60] 고언숙(2017:335)은 ‘시간적·공간적 지속’의 예로 ‘편안::하다’와 ‘똑똑::’을 제시한다. 전자의 경우 표현적 장음을 통해 편안한 상태가 지속됨을 의미하며, 후자의 경우 노크하는 소리가 공간을 통해 퍼져나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황은하(2019)는 표현적 장음이 ‘어휘 의미 강조’와 ‘화제·초점 강조’의 기능을 한다고 보며, 두 번째 기능의 예로 “전에:: 과거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사용하셨서.”(황은하 2019:242)를 들고 있다. 시간적 부사어에 대한 화자의 강조 의도가 표현적 장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다.[61]

<표 41>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표현적 장음의 기능

표현적 장음의 기능	선행 연구
강조	안병섭(2010b), 고언숙(2017), 황은하(2019)
태도·감정 표출	안병섭(2010b), 남기탁(2012), 박미경(2016)
뉘앙스 차이 유발	이병근 (1986)
정도 높임	김창섭(1991)
지시 영역 넓힘	김창섭(1991)
시간적·공간적 지속	고언숙(2017)
화제·초점 강조	황은하(2019)

위의 <표 41>은 표현적 장음의 기능과, 해당 기능을 언급한 선행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표현적 장음의 기능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것은 ‘강조’와 ‘태도·감정 표출’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표현적 장음의 기능은 서로 중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가령 “돈은 되::게 조금 주는데 일은 되::게 많

60) 고언숙(2017)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강조’는 “enhancing the graduable core property of a word”의 기능이며 이를 ‘intensific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지속’은 “sustainment of the word’s semantic property in the temporal or spatial dimension”이며 이는 ‘diffusive lengthening’으로 명명하였다.

61) 본고에서는 이를 말마디 경계 억양과 연접에 의한 동반적 장음으로 보았다.

고.”<151>[62]라는 문장은 표현적 장음이 쓰이지 않았을 때에 비해 ‘되게’의 정도를 높이고 뉘앙스 차이를 유발한다. 또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며, 문장 내에서 ‘되게’라는 단어 자체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이렇게 넓::은 인천에서 내가 픽한 맛집 하나.”<125>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면서 ‘넓은’의 정도가 높아지고, 뉘앙스 차이가 유발되며, 문장에서 ‘넓은’이라는 단어 자체가 강조된다. 정도 높임과 뉘앙스 차이, 단어 강조 등의 기능이 항상 함께 실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표현적 장음에서 상술한 기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묵묵::하게 자기 갈 길 가는 거야.”<198>에 나타난 표현적 장음은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할 뿐, ‘되::게’나 ‘넓::은’처럼 ‘묵묵하다’의 정도를 높이지는 않는다.

우리는 여기서 표현적 장음의 기능을 의미 층위과 화용 층위로 구분할 필요를 느낀다. 표현적 장음이 의미적으로는 정도 높임의 기능을, 화용적으로는 단어 강조의 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가령 “돈은 되::게 조금 주는데 일은 되::게 많고”<151>의 표현적 장음은 의미적으로 단어의 정도를 높이고 화용적으로는 단어를 강조하는 기능까지 지니지만 “묵묵::하게 자기 갈 길 가는 거야.”<198>의 표현적 장음은 화용적 기능인 강조의 기능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적 장음의 기능을 의미 층위와 화용 층위로 구분하면 어떤 표현적 장음에서는 ‘정도 높임’과 ‘강조’의 기능이 모두 나타나고, 어떤 표현적 장음에서는 ‘정도 높임’은 나타나지 않지만 ‘강조’는 나타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현적 장음의 기능을 의미 층위와 화용 층위로 구분하고, 각 층위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의 기능이 다르다고 본다.

아래의 표는 표현적 장음의 기능 층위와 세부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표현적 장음은 의미적으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단어의 정도를 높이거나, 지시 영역을 넓히거나,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을 한다. 동시에 화용적

62) <>은 수집한 표현적 장음의 <부록> 번호이다. <부록>에서 전문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으로는 발화 내 어휘를 강조하거나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표현적 장음은 의미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을 모두 가지지만 어떤 표현적 장음은 화용적 기능만을 담당한다. 각 기능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자.

<표 42> 표현적 장음의 기능

층위	세부 기능
의미 층위	정도 높임
	지시 영역 넓힘
	의미 분화
화용 층위	어휘 강조
	화자 태도 강조

4.1.1. 표현적 장음의 의미적 기능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한다. 영향을 줄 경우 단어의 정도를 높이거나, 지시 영역을 넓히거나, 의미를 분화하는 역할을 한다.

4.1.1.1. 정도 높임

표현적 장음의 실현이 단어의 정도를 높이는 경우가 있다. 가령 “줄이 엄::청 길더라고.”의 ‘엄::청’은 표현적 장음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보다 그 정도가 높음을 드러낸다. 이처럼 표현적 장음이 정도 높임의 기능을 함은 일찍이 김창섭(1991)에서 지적되었다. 김창섭(1991:747)에서는 어두 음절에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의 의미적 기능을 ‘정도의 높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그 정도가 개방적인 단어에서 정도 높임 기능의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정도 높임의 기능이 어두 음절뿐 아니라 정도성을 가지

는 모든 단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2음절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과자를 무진::장 많이 먹었어요.”<197>의 ‘무진장’은 사전적 의미가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음’인데, 이때 나타난 표현적 장음은 많음의 정도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도 높임의 표현적 장음은 위치에 관계없이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그 정도가 개방적인 모든 단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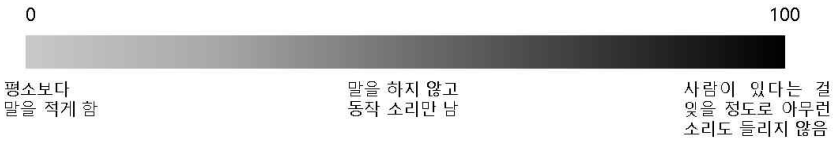
정도성을 가진 대표적 어휘는 정도 표현이다. 아래의 (25)는 정도 표현에 나타난 표현적 장음을 보여준다. 이때의 표현적 장음은 모두 정도 높임의 기능을 한다.

(25) ㄱ.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100장을 쓰지 못해. <62>
ㄴ. 애들의 성적을 방해하는 주범이 엄마 아빠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16>
ㄷ. 과자를 무진::장 많이 먹었어요. <197>
ㄹ. 아::주 정당한 진화적 적응 현상입니다. <243>
ㅁ. 제가 보기엔 약::간 이질감이 좀 드는 거예요. <248>
ㅂ. 바지가 조::금만, 조::금만 여유가 있거나. <384>
ㅅ. 행복하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496>
ㅇ. 보험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20>

정도 높임의 기능이 정도 표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어떤 단어가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 정도가 개방적이라면 표현적 장음의 실현이 정도 높임의 기능을 할 수 있다.(김창섭 1991:747) 가령 “언니 저번에 조::용히 이거 칠하고 있었잖아.[63]”<386>에서 실현된 표현적 장음은 대화의 맥락에서 기대되는 조용함의 정도를 높여준다. 아래의 <그림 21>은 해당 문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조용히’의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63) ‘조용::히’로도 나타날 수 있다. 표현적 장음의 실현 위치에 관해서는 뒤에서 다룬다.

<그림 21> ‘조용히’의 정도



<그림 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문장에서 ‘조용히’는 어떤 사람이 평소보다 말을 적게 해서 말수가 적은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말없이 발소리나 숨소리, 타이핑 소리와 같은 동작 소리만 나는 경우를 의미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평소보다 말을 적게 함”을 의미하는 ‘조용히’를 0,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의미하는 ‘조용히’를 100으로 둘 때, 표현적 장음의 실현은 ‘조용히’의 정도가 100에 가까워지도록 한다.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조용함의 정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듯 정도 표현이 아닌 단어에서 정도 높임 기능의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예는 아래와 같다.

(26) ㄱ. 아주 달콤::한 과자고… <143>
ㄴ. 이렇게 넓::은 인천에서 내가 딱 픽한 맛집 하나. <125>
ㄷ. 숨 마시면서 손으로 원 크::게 그리며 두 손 하늘 위에서 합장합니다. <457>
ㄹ. 너 얼굴이 허::옇다. <490>
ㅁ. 신발이 아주 누::런데. <127>
ㅂ.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거죠. <14>
ㅅ. 강::한 바람이 분다. <16>
ㅇ. 그러나 문제는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게 반드시 유리할까… <82>

4.1.1.2. 지시 영역 넓힘

김창섭(1991)은 표현적 장음이 '어휘 의미 강화'뿐만 아니라 '지시 영역 넓힘'의 기능도 함을 지적하였다. 완화접미사가 결합된 'X하다' 용언의 어근 말에 표현적 장음이 올 경우, 해당 장음은 '지시 영역 넓힘'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어휘 의미 강화'는 기준점으로부터 대상점까지의 거리를 양의 방향(+)으로 확대하여 '더욱 그렇다'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비해, '지시 영역 넓힘'은 지시 영역을 음의 방향(-)으로도 확대한다. '더욱 그렇다'뿐만 아니라 '덜 그렇다'의 의미까지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집을 보러 온 사람이 "벽이 노르스름::하니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라고 한다면, 이때의 '노르스름::'은 노르스름한 상태 그대로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너그러운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노르스름하다고 볼 수도 있다."를 의미할 수도 있다. 김창섭(1991)에서는 '-으스름, -음, -읏, -으레, -으께'와 같이 완화접미사가 결합한 단어에서 이러한 용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64]

4.1.1.3. 의미 분화

의성어나 의태어에 실현된 표현적 장음은 의미 분화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때 '의미 분화'는 모음 조화에 의해 의성어나 의태어의 의미가 분화되는 것과 유사한 의미이다. 양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깡총깡총'과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껑충껑충'은 기본 의미는 비슷하지만 전자는 밝고 가벼운 느낌을, 후자는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준다. 표현적 장음 역시 의성어나 의태어에 사용될 때, 핵심 의미는 유지하면서도 지속 시간에 변화를 주어 의미를 분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남자가 이마를 쓱 닦았어."보다 "남자가 이마를 쓱:: 닦았어."에서 남자가 이마를 문지르거

64) 완화접미사가 결합한 단어로는 '붉으스름하다', '기름하다', '파릇하다', '붉으레하다', '노르께하다' 등이 있다.

나 비비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길게 표현된다. 이는 “가슴을 쫙 펴주세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비해 “가슴을 쫙:: 펴주세요.”는 가슴을 활짝 펴는 동작이 좀 더 오랫동안 천천히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의성어나 의태어에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경우, 지속 시간에 차이가 생기는 방향으로 의미 분화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4.1.2. 표현적 장음의 화용적 기능

표현적 장음의 사용이 항상 단어에 특정한 의미를 더해주는 것은 아니다. 표현적 장음은 화자가 발화 내에서 특정 단어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때 화자는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에 표현적 장음을 실현시켜 청자가 해당 단어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발화 단위에서 표현적 장음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기능을 표현적 장음의 화용적 기능으로 본다. 표현적 장음의 화용적 기능에는 ‘어휘 강조’ 기능과 ‘화자 태도 강조’ 기능이 있다.

4.1.2.1. 어휘 강조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에 표현적 장음을 실현시켜 청자가 해당 단어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표현적 장음의 ‘어휘 강조’ 기능이다. 앞서 제시하였던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으면 100장을 쓰지 못해.”(25ㄱ)나 “이렇게 넓::은 인천에서 내가 딱 픽한 맛집 하나.”(26ㄴ)에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은 의미적으로는 정도 높임의 기능을 하며, 화용적으로는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를 강조한다. 이와 달리 표현적 장음의 실현이 의미적으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고, 어휘 강조의 화용적 기능만을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가 그 예이다.

(27) ㄱ. 묵묵::하게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198>
ㄴ. 아까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속이 더부룩::하니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147>
ㄷ. 처음에는 뻣뻣::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211>
ㄹ. 한:: 번도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485>

(27)의 ㄱ에 나타난 표현적 장음은 발화 내에서 '묵묵하게'라는 단어를 강조할 뿐, 정도를 높이거나 지시 영역을 넓히거나 단어의 의미를 분화하는 기능은 하지 않는다. ㄴ과 ㄷ 역시 더부룩하고 뻣뻣한 상태를 강조할 뿐이다. ㄹ의 표현적 장음은 '한 번'을 강조하는데, 정도성을 가지지 않는 단어일뿐더러 완화접미사가 결합하지도 않았고, 의성어·의태어도 아닌지라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적 장음의 의미적 기능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화용적 기능만을 하는 표현적 장음도 존재한다.

4.1.2.2. 화자 태도 강조

표현적 장음이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도 한다. 아래의 예를 보자.

(28) ㄱ. A: 나는 사실 아이돌이 되고 싶었어.
B. 니::가?
ㄴ.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217>

(28ㄱ)에서 B의 응답은 B가 A의 말에 대해 얼토당토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B의 태도가 어중의 장음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 (28ㄴ) 역시 화들짝 놀란 화자의 태도가 표현적 장음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발화 단위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은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는 화용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표현적 장음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표현적 장음

의 기능을 의미적 기능과 화용적 기능으로 구분하였으며, 의미적 기능에는 정도 높임, 지시 영역 넓힘, 의미 분화의 기능이, 화용적 기능에는 어휘 강조, 화자 태도 강조의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표현적 장음의 실현은 항상 화용적 기능을 동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음절의 길이가 두드러지게 길어지면 문장 내에서 해당 단어가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의미적 기능은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는 단어와 발화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때 정도 높임의 기능은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에서만 나타날 수 있고, 지시 영역 넓힘의 기능은 완화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의미 분화의 기능은 의성어와 의태어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즉 표현적 장음은 항상 화용적 기능을 가지며, 특수한 경우에 의미적 기능이 동반되는 것이다.

같은 문장이나 단어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더라도 그 기능은 발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가령 어떤 발화에서는 “벽이 노르스름::하다.”의 표현적 장음이 어휘 강조의 기능만을 갖지만, 다른 발화에서는 어휘 강조의 기능과 더불어 지시 영역 넓힘의 기능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표현적 장음은 돋들림에 의한 장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65] 뒷장에서는 계속해서 표현적 장음의 음성적·음운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4.2. 표현적 장음의 음성적·음운적 특징

본 절에서는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의 음성적·음운적 특징을 다룬다. 표현적 장음이 어느 음절, 어떤 음소에서 실현되는지, 표현적 장음이

65) 돋들림에 의한 장음은 돋들림에 의해 동반된 것일 뿐, 표현적 장음처럼 그 자체로 어떤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나타날 때 피치나 강세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4.2.1. 표현적 장음의 실현 위치

표현적 장음의 실현 위치는 음절 차원과 음소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음절 차원에서는 표현적 장음이 단어의 몇 번째 음절에 나타나는지를, 음소 차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장음으로 실현되는 음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노르스름::하다'의 표현적 장음은 넷째 음절에 나타나며, 장음으로 실현되는 음소는 중성 'ㅡ'이다.

4.2.1.1. 음절

표현적 장음은 한 단어에서 한 번만 실현될 수 있는데[66], 주로 첫음절에서 나타난다. 조사된 504개의 문장 중 94.6%에 달하는 477개의 문장에서 단어의 첫음절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표현적 장음이 항상 1음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음절 이하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도 존재한다. 아래의 (29)는 1음절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을, (30)은 2음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의 예를 보여준다.

(29) **1음절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경우**

ㄱ. 계속　옷을 계::속 사도 옷이 없다면 옷이 없는 게 아니죠. <52>
　　계::속 누군가가 나를 도청하는 것 같거든요. <47>

ㄴ.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95>
　　그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돼버린 거야. <96>

66) 본고가 수집한 504개의 문장 중 한 단어에 표현적 장음이 두 번 이상 나타나는 예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이 한 문장에서 하나의 표현적 장음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236>에서처럼 둘 이상의 단어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 있다.

ㄷ. 모든　　이 고성능 마이크로 모::든 소리를… <178>
　　모::든 일이 계획된 대로 뜻한 대로… <183>
ㄹ. 아무런　아::무런 상관없어. <239>
ㅁ. 길다　　그러나 문제는 긴:: 안목으로 보면… <82>
　　척추 위로 길::게 뽑아봅니다. <83>
ㅂ. 평생　　끽해야, 잘::해야 평::생 그런 노력을 했어. <477>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니는 평::생 모를 기다. <476>

(30) **2음절 이하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경우**
ㄱ. 가장　　내가 본 방 중에 가::장 깨끗해. <7>
　　제가 가장:: 부러운 건 뭐냐 하면… <8>
ㄴ. 이렇게　바깥에 창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315>
　　예를 들어서 팔이 요렇::게 가다가 여기가 벌어져서… <314>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은 데를 뚫고 제 옆 뒤에 딱… <313>
ㄷ. 가만히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1>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2>
ㄹ.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답이 될 수 있어요. <90>
　　꾸준::히 따라하시면 점점 부드러워질 거예요. <89>
ㅁ. 편안하다 편안::한 그 쇼츠에 뭔가 이분이 MZ의 대표주자 같은 느낌. <475>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그런 말씀 할 수 있는지… <474>
ㅂ. 더부룩하다　　속이 더부룩::하니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147>
ㅅ. 어마어마하다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더라. <250>

2음절 이하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체로 ‘하다’ 형용사거나 그 파생 부사이다. (32)의 예에서도 ‘가장’과 ‘이렇게’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하다’ 형용사이거나 그 파생 부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집된 504개의 문장을 바탕으로 2음절 이하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단어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1) 가장, 그대로, 이렇게, 가만히, 꾸준히, 단순하다, 달콤하다, 묵묵하다, 불룩하다, 뻣뻣하다, 편안하다, 평안하다, 더부룩하다, 어마어마하다

(31) 역시 '가장', '그대로', '이렇게'를 제외한 모든 단어가 '하다' 형용사이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부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창섭(1991:758)에서는 '하다' 형용사처럼 후행 요소가 의미상으로 잉여적인 경우에 어근말 음절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모든 '하다' 형용사와 그 파생 부사가 2음절 이하의 위치에서만 표현적 장음을 실현시키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32)처럼 1음절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존재한다. 즉 2음절 이하의 위치에 표현적 장음을 가지는 단어들은 대부분 '하다' 형용사와 그 파생 부사이지만, 모든 '하다' 형용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부사가 2음절 이하에서 표현적 장음을 갖지는 않는 것이다.

(32) **'하다' 형용사이거나 그로부터 파생된 부사이지만 1음절에 표현적 장음을 갖는 경우**

ㄱ. 굉장히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62>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 <63>
굉::장히 긴 기간 동안… <64>
이게 유전자가 굉::장히 강한가 봐요. <72>

ㄴ. 완전히 걔는 그럼 완::전히 개는…<304>

ㄷ. 조용히 언니 저번에 조::용히 이거 칠하고 있었잖아. <386>

ㄹ.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먹어. <447>

ㅁ. 충분히 충::분히 먹어야 해요. <452>

ㅂ. 강력하다 그러면 강::력하게 긍정성이 올라가요. <9>
강::력하게 권해요. <10, 11>

(32)는 첫음절에 표현적 장음을 갖는 '하다' 형용사와 그로부터 파생된

부사이다. 그런데 어떤 단어들은 2음절 이하의 위치에서도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 있는 듯이 보인다. 가령 ㄷ의 '조용히'는 '조::용히' 뿐만 아니라 '조용::히'도 가능할 듯하고, ㄹ 역시 직관상 '천::천히'뿐만 아니라 '천천::히'도 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ㅁ도 '충::분히'뿐 아니라 '충분::히'도 나타날 수 있는 듯 보인다.

여기서 본고는 직관상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 있는 듯 보이는 위치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그런데 애초에 본고에서 표현적 장음을 직접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직관에 의한 판단을 배제하고 실제 사용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직관에 의한 판단은 연구자마다 다를 뿐 아니라 같은 연구자라도 너그러운 기준으로 직관을 적용하느냐,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문장의 가능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직관에 의한 위치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령 직관상 '천::천히'와 '천천::히'가 모두 가능하지만 자료에서 '천::천히'만 나타났다면 '천천히'의 표현적 장음은 첫음절에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을 취해 자료를 검토하던 중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직관적으로는 둘 이상의 위치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실제로는 하나의 위치에서만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가령 '굉장히'는 14번 조사되었는데 14번 모두 첫음절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났고, '강력하다'는 6번 조사되었는데 이 역시 6번 모두 첫음절에서 장음이 나타났다. 4번 조사된 '이렇게'와 2번 조사된 '가만히', '꾸준히', '편안하다'는 모두 2음절에서만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었다. 결국 표현적 장음의 실현에는 선호되는 위치가 있는 듯 보인다. 직관적으로 둘 이상의 위치에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수 있는 듯이 보여도, 실제로 표현적 장음은 특정 위치에서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67]

---

67) 물론 이러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보다 방대한 양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계량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고의 주장은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표현적 장음

4.2.1.2. 음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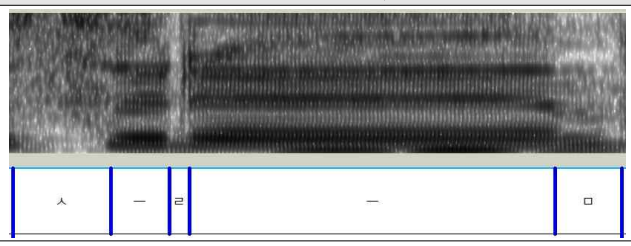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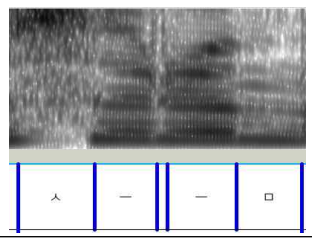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휘적 장음은 모음이 길어짐으로써 실현된다. 그러나 표현적 장음은 모음뿐 아니라 자음이 길어짐으로써 실현될 수도 있다. 본 절에서는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길어지는 음소는 무엇이고, 그것이 길어질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위치를 살펴보았을 때와 달리,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음소를 살펴볼 때는 계량적 접근을 취하지 않는다. 본고에서 수집한 504개의 표현적 장음은 일상 발화나 유튜브 컨텐츠 등에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음성 파일이 수집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음성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배경음이나 말소리가 겹쳐 음성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수집한 표현적 장음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찾고, 이를 필자가 직접 녹음하여 그 음성적 특징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뒤에서 다루는 표현적 장음의 피치와 강도에 관한 연구 역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표현적 장음이 어떤 음소에서 나타나는지는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모음이 길어지는 경우와 자음이 길어지는 경우이다. 우선 모음이 길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아래의 <그림 22>은 '노르스름하다'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스펙트로그램이다.[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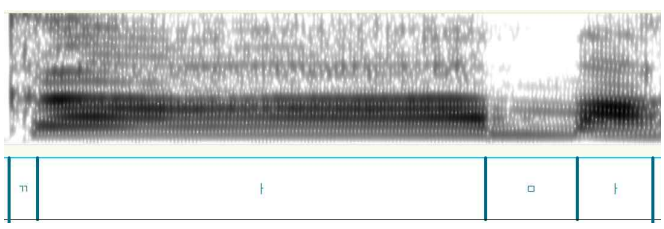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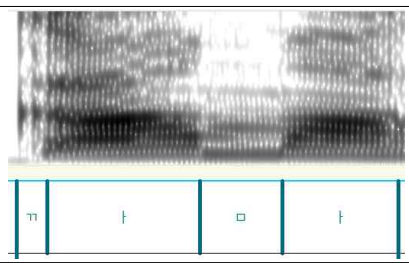
의 실현 위치에 대한 경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68)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문장과 나타나지 않은 문장의 발화 속도는 가능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스펙트로그램	길이
장음		0.37s
단음		0.07s

<그림 22> ‘노르스름하다’의 스펙트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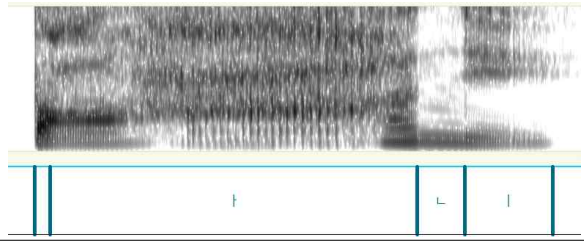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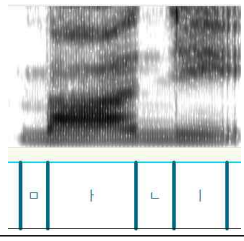
<그림 22>는 ‘스름’의 스펙트로그램인데,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름’의 중성 ‘ㅡ’가 단음으로 실현된 경우보다 5배 정도 길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며 중성의 모음이 길어지는 양상은 아래의 ‘까맣고’에서도 나타난다.

	스펙트로그램	길이
장음		0.37s
단음		0.10s

<그림 23> ‘까맣고’의 스펙트로그램

<그림 23>는 ‘까마’의 스펙트로그램이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까’의 모음이 단음으로 실현된 모음의 길이보다 3배 이상 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적 장음에 의해 중성의 모음이 길어질 때 기식이 동반되기도 한다. 아래의 그림은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며 기식이 동반된 ‘많이’의 스펙트로그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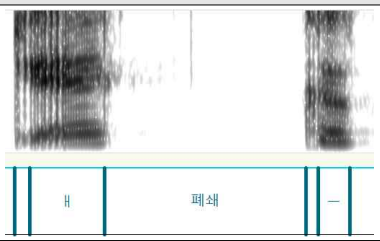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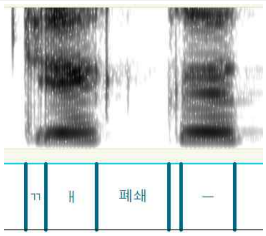
	스펙트로그램	길이
장음		0.70s
단음		0.17s

<그림 24> ‘많이’의 스펙트로그램

<그림 24>는 ‘마니’의 스펙트로그램이다.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마’의 모음이 단음으로 실현된 모음의 길이보다 4배가량 길게 실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음으로 실현된 모음에서 강한 기식이 확인된다. 전 주파수대에 걸쳐 지저분하게 나타나는 기식 구간이 확인되는 것이다. 기식 구간은 모음이 조음 과정 중 중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표현적 장음에 동반되는 이러한 기식은 화자와 맥락에 따라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난다. 발화에 따라 “많::이”에 기식이 동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자음이 길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자.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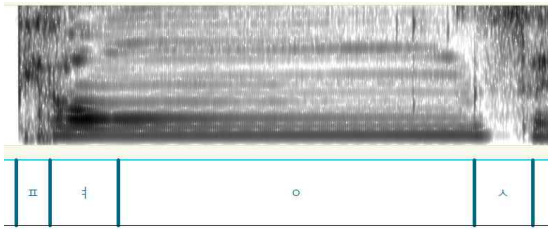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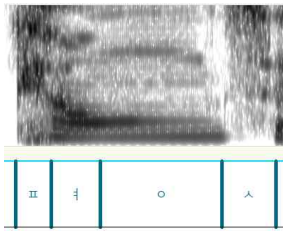
음이 길어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성이 길어지는 경우와 종성이 길어지는 경우다. 우선 초성의 자음이 길어지는 경우를 알아보자. 아래는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깨끗하다'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스펙트로그램이다.

	스펙트로그램	길이
장음		0.24s
단음		0.11s

<그림 25> '깨끗하다'의 스펙트로그램

<그림 25>는 '깨끄'의 스펙트로그램이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ㄲ'의 폐쇄 구간이 단음의 그것보다 2배가량 길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성의 자음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경우, 폐쇄 구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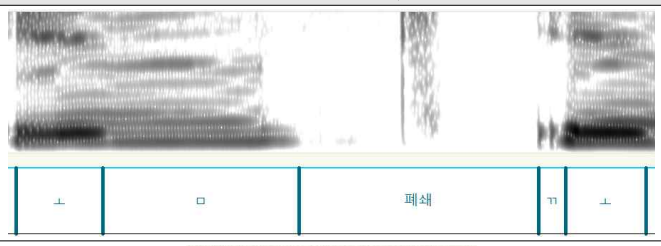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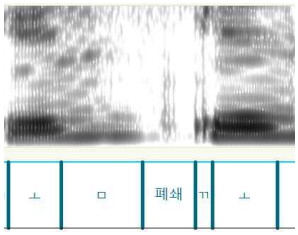
이제 종성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자. 아래는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평생'과 그렇지 않은 '평생'의 스펙트로그램이다.

	스펙트로그램	길이
장음		0.64s
단음		0.21s

<그림 26> '평생'의 스펙트로그램

<그림 26>은 '평ㅅ'의 스펙트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의 종성 'ㅇ'이 단음보다 세 배 이상 길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종성에 놓인 자음이 길어지는 것은 종성에 공명음이 올 때에만 가능하다. 장애음이 종성에 올 때는 평파열음화를 겪어 장음으로 실현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성에 공명음이 올 때만 종성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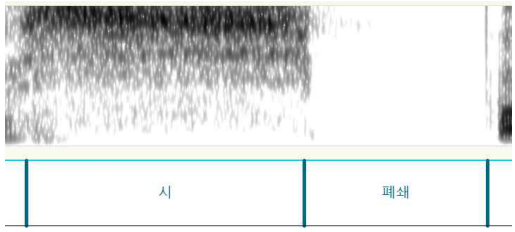
종성과 초성의 폐쇄 구간이 함께 길어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는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꼼꼼하다'와 단음으로 실현된 '꼼꼼하다'의 스펙트로그램이다.

	스펙트로그램	길이
장음		ㅁ 0.18s 폐쇄 0.22s
단음		ㅁ 0.09s 폐쇄 0.06s

<그림 27> '꼼꼼하다'의 스펙트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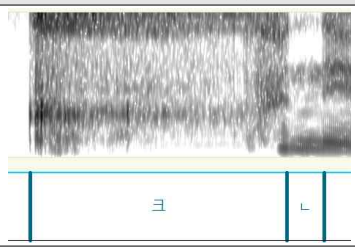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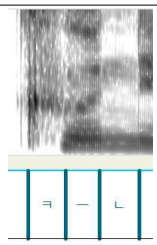
<그림 27>은 '꼼꼼하다'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부분의 스펙트로그램이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종성의 길이와 초성의 폐쇄 구간의 길이가 모두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성 'ㅁ'은 두 배 정도, 폐쇄 구간은 세 배 이상 길게 나타난다. 즉, 자음이 표현적 장음은 1) 종성에 오는 공명음이 길어지거나 2) 초성에 오는 자음의 폐쇄 구간이 길어지거나 3) 둘 모두가 길어짐으로써 나타난다.

지금까지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모음이 길어지는 경우와 자음이 길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런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초성과 중성의 덩어리, 즉 자음과 모음의 덩어리가 길어지는 듯한 양상도 확인된다. 이는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시꺼멓다'와 '큰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는 '시꺼멓다'의 스펙트로그램이다.

	스펙트로그램	길이
장음		0.29s
단음		0.12s

<그림 28> '시꺼멓다'의 스펙트로그램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시'의 경우, 마찰 소음에 의해 모음의 포먼트를 확인할 수 없다. 결국 자음과 모음 중 무엇이 길어진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는 '큰일'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아래의 <그림 29>를 보자.

	스펙트로그램	길이
장음		0.56s
단음		0.15s

<그림 29> '큰일의 스펙트로그램

<그림 29>은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큰'과 단음으로 실현된 '큰'의 스펙트로그램이다. 단음으로 실현될 때는 'ㅋ'과 'ㅡ'의 스펙트로그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만,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는 'ㅡ'의 포먼트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ㅋ'의 기식이 강하게 실현되며 마찰 소음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초성에 마찰음이 오거나 강한 기식이 동반되는 경우, 스펙트로그램상으로 어떤 음소가 길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청지각상으로는 초성과 중성을 이루는 덩어리가 함께 길어진 것으로 들린다.

이렇듯 거센 기식의 동반은 표현적 장음이 가지는 음성적 특징 중 하나다. 앞서 '많이'의 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식은 유기음뿐만 아니라 모음에도 나타나며, 동일한 단어에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다고 하더라고 발화에 따라 기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가령 동일한 화자가 "많::이"를 발화한다고 할 때, 경우에 따라 기식이 동반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즉,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기식은 불규칙적으로 동반된다.

지금까지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어떤 음소가 길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현적 장음은 모음뿐 아니라 자음이 길어짐으로써 나타날 수도 있고, 항상 하나의 음소만이 길어지면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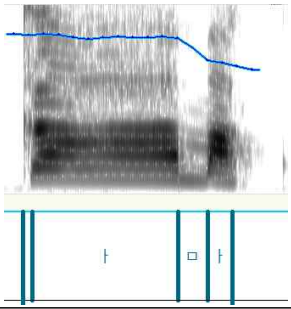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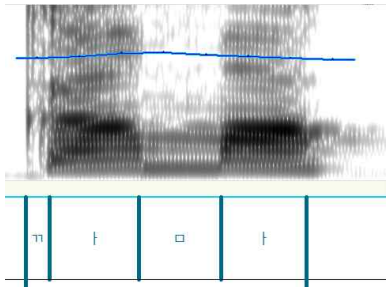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길어지는 음소>

1) 중성의 모음이 길어질 수 있다.
   (기식이 동반될 수도 있다.)
2) 초성에 오는 자음의 폐쇄 구간이 길어질 수 있다.
3) 종성의 자음이 길어질 수 있다.
4) 초성의 폐쇄 구간과 종성이 함께 길어질 수 있다.
5) 강한 마찰이나 기식으로 초성과 중성이 함께 길어진 듯한 양상도 나타난다.

표현적 장음의 실현되는 음절의 위치를 일반화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는 음소의 위치 역시 일반화하기 어렵다. 상술한 것처럼 표현적 장음이 주로 나타나는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화자와 맥락에 따라 그 외의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깨끗하다'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첫음절의 모음이 길어질 수도 있고, 둘째 음절의 모음이 길어질 수도 있으며, 둘째 음절 초성의 폐쇄 구간이 길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길어지는 음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양상만을 제시할 뿐, 어휘에 따른 일반화는 시도하지 않았다.

4.2.2. 표현적 장음의 피치(pitch)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면 해당 음절과 음절 시작점의 피치(pitch)가 높게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래의 <그림 30>은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까맣다'와 그렇지 않은 '까맣다'의 피치 곡선인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음절 시작점의 피치와 평균 피치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음으로 실현될 때에는 후행하는 음절과의 피치 차이가 미미하지만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경우에는 후행하는 음절과의 피치 차이가 두드러진다.

장음	단음
	

<그림 30>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까맣다'의 피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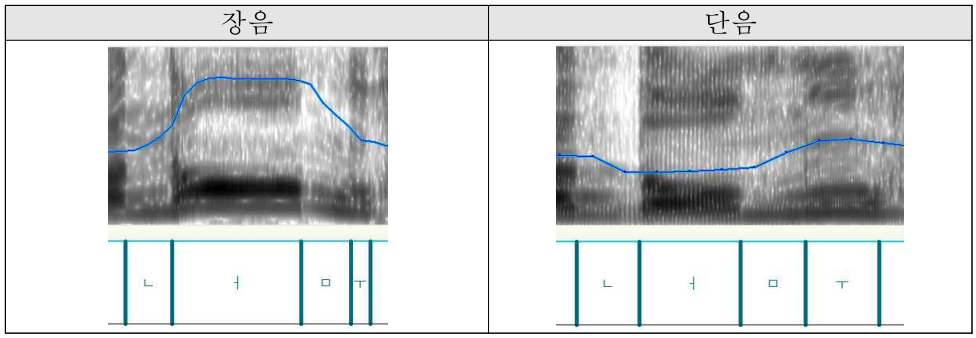
<표 43> '까맣다'의 피치

	시작점	음절 평균		시작점	음절 평균
장음1	338.8 Hz	335 Hz	단음1	283.5 Hz	288.3 Hz
장음2	325.4 Hz	327 Hz	단음2	284.5 Hz	286.9 Hz
장음3	328.9 Hz	326.9 Hz	단음3	281.0 Hz	287.0 Hz
평균	331.0 Hz	329.6 Hz	평균	283.0 Hz	287.4 Hz

<그림 3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까맣다'는 중성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데, 이때 중성뿐 아니라 해당 음절 전체의 피치가 높게 실현된다. <표 43>에서도 단음으로 나타날 때의 음절 평균 피치는 287.4Hz인데 반해 장음으로 나타날 때는 329.6Hz라고 보고하고 있다.

음절의 시작점 역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더 높은 피치로 실현된다. <표 43>을 보면 단음으로 실현된 음절 시작점의 피치는 평균 283.0Hz인데 반해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음절 시작점의 피치는 331.0Hz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음절 시작점의 피치와 음절 평균 피치가 모두 더 높게 실현되는 것이다.

음절 전체의 피치는 높아지지 않고, 장음으로 실현되는 음소의 피치만 높게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중성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너무'가 그러한데, 그 피치 곡선을 아래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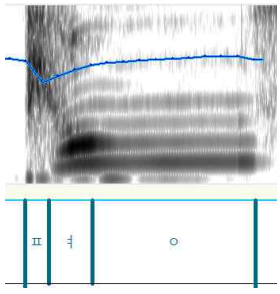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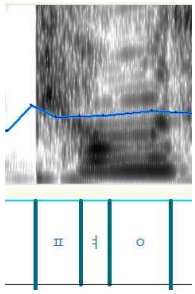
<그림 31>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너무’의 피치 비교

<표 44> ‘너무’의 피치

	시작점	음절 평균		시작점	음절 평균
장음1	260.1 Hz	434.5 Hz	단음1	244.5 Hz	207.1 Hz
장음2	261.9 Hz	502.8 Hz	단음2	231.7 Hz	206.2 Hz
장음3	261.4 Hz	477.3 Hz	단음3	259.3 Hz	204.2 Hz
평균	261.13 Hz	471.53 Hz	평균	245.17 Hz	205.83 Hz

<그림 31>는 ‘너무’의 피치 곡선이다. ‘까맣다’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의 음절 시작점과 음절 평균 피치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높게 실현된다. 이때 두드러진 피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장음으로 실현되는 중성 ‘ㅓ’이다. <그림 31>를 통해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ㅓ’의 피치는 주변 음소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게 실현되지만, 단음으로 나타난 ‘ㅓ’는 주변 음소에 비해 낮은 피치로 실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음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도 해당 음절과 음소의 피치가 높아진다. 아래는 종성의 자음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평생’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피치 곡선이다.

장음	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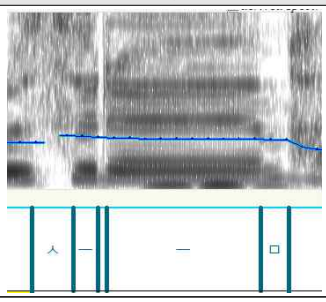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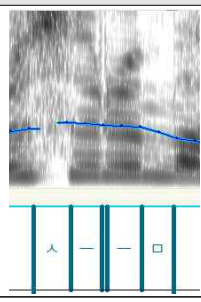
<그림 32>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평생'의 피치 비교

<표 45> '평생'의 피치

	시작점	음절 평균		시작점	음절 평균
장음1	556.1 Hz	551.1 Hz	단음1	341.6 Hz	339.1 Hz
장음2	557.9 Hz	542.0 Hz	단음2	458.9 Hz	337.6 Hz
장음3	545.4 Hz	539.8 Hz	단음3	289.6 Hz	318.8 Hz
평균	553.13 Hz	544.30 Hz	평균	363.37 Hz	331.83 Hz

'평생' 역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음절 시작점과 음절 평균 피치가 훨씬 높게 실현된다. <표 45>에 보고되었듯이 단음의 시작점의 피치는 363.37Hz, 음절 평균 피치는 331.83Hz이지만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경우 시작점의 피치는 553.13Hz, 음절 평균 피치는 544.30Hz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피치로 실현된 것은 장음으로 발음되는 종성 'ㅇ'이다.

그런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다고 하여 항상 피치가 높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피치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다' 형용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부사의 어근 말에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경우가 그러하다. 아래는 '하다' 형용사 중 하나인 '노르스름하다'의 피치 곡선이다.

장음	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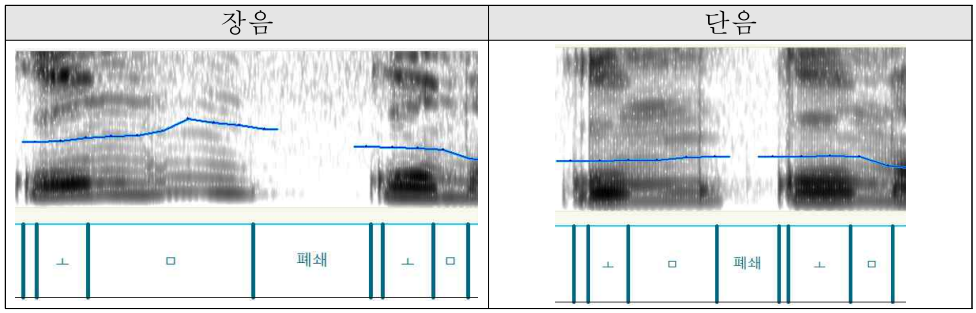
<그림 33>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노르스름하다'의 피치 비교

<표 46> '노르스름하다'의 피치

	시작점	음절 평균		시작점	음절 평균
장음1	250.6 Hz	243.4 Hz	단음1	298.7 Hz	285.3 Hz
장음2	224.8 Hz	223.3 Hz	단음2	272 Hz	263.5 Hz
장음3	240.4 Hz	236.9 Hz	단음3	277.6 Hz	266.3 Hz
평균	238.60 Hz	234.53 Hz	평균	282.77 Hz	271.70 Hz

<그림 33>에 나타난 '스름'의 피치 곡선을 살펴보면,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ㅡ'의 피치 곡선은 후행 음소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단음으로 실현된 'ㅡ'는 후행하는 음소에 비해 더 높은 피치로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음절 시작점이나 평균 피치도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더 높게 실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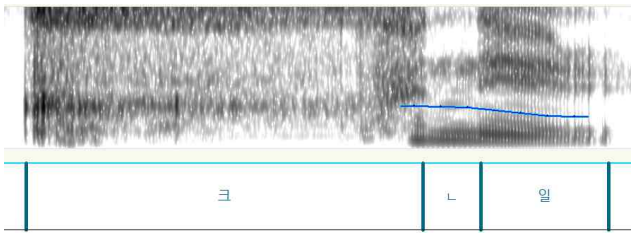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다' 형용사나 그 파생 부사라 하더라도 어근 말 외의 위치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면 높은 피치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아래는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꼼::꼼하다'의 피치 곡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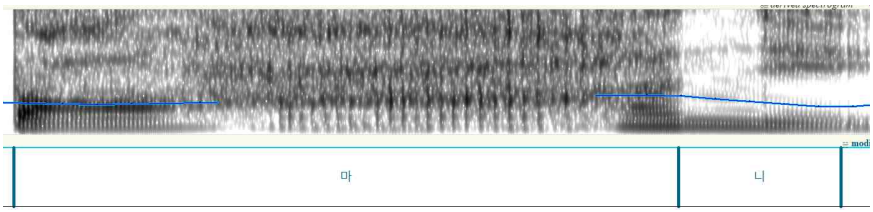
<그림 34>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꼼꼼하다'의 피치 비교

<그림 34>는 어두의 종성 'ㅁ'과 후행하는 폐쇄 구간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꼼꼼'의 피치 곡선이다. 장음으로 실현된 'ㅁ'의 피치가 단음으로 실현될 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단음에 비해 장음에서 인접 음소와의 피치 차이가 두드러진다. 즉,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낮은 피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다' 형용사와 그 파생 부사의 어근 말에 표현적 장음이 놓일 때뿐이다. 어근 말 외의 위치에서 실현된 표현적 장음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높은 피치로 실현된다.

표현적 장음의 피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강한 마찰이나 기식이 동반되는 경우이다. 아래는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며 강한 기식이 동반된 '큰일'과 '많이'의 예이다. 둘 모두 강한 기식이 실현되는 구간에서 피치 곡선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5> 기식이 동반된 '큰일'의 피치 곡선



<그림 36> 기식이 동반된 '많이'의 피치 곡선

지금까지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피치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우에, 실현 위치에 상관없이 해당 음절의 시작점과 평균, 그리고 표현적 장음이 실현된 음소의 피치가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표현적 장음의 피치가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하다' 형용사나 그 파생 부사의 어간 말에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는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보다 낮은 피치로 실현되었다. 또한 표현적 장음에 강한 마찰이나 기식이 동반될 때에는 피치를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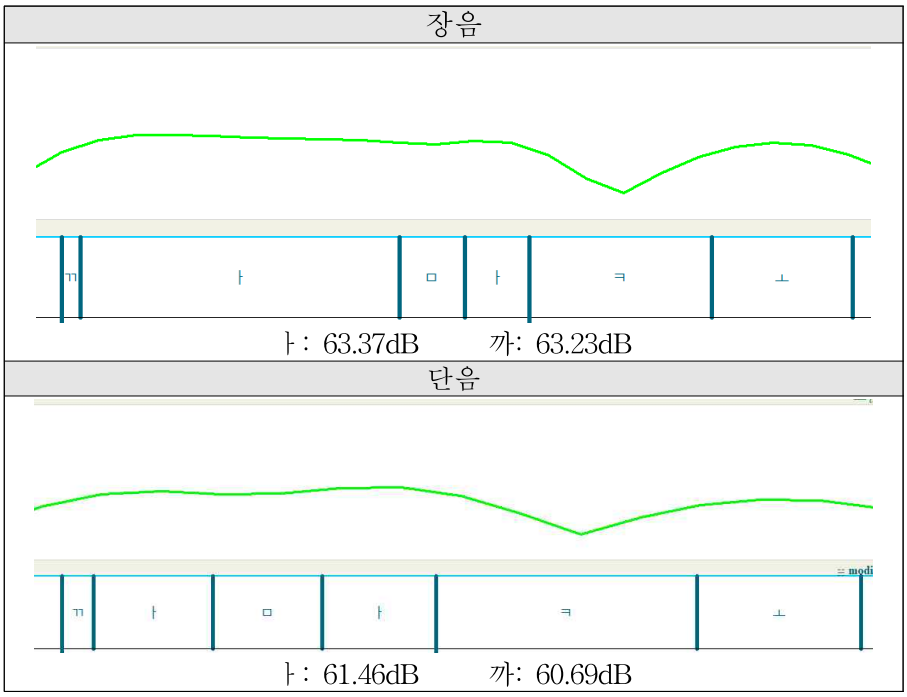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앞의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나타나는 피치의 양상도 정해진 것이 아니다. 같은 단어라도 화자의 의도, 맥락, 발화 습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화자는 '진::짜'를 높은 피치로 발화하지만, 다른 화자는 큰 변화 없는 피치로 발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어마다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나타나는 고정된 피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2.3. 표현적 장음의 강도(intensity)

강도(intensity)는 조음 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표현적 장음의 강도에 관해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본다. 첫째는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음절이나 음소가 인접 음절·음소에 비해 특히 더 센 강도를 가지는가이다. 둘째는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해당 음절이나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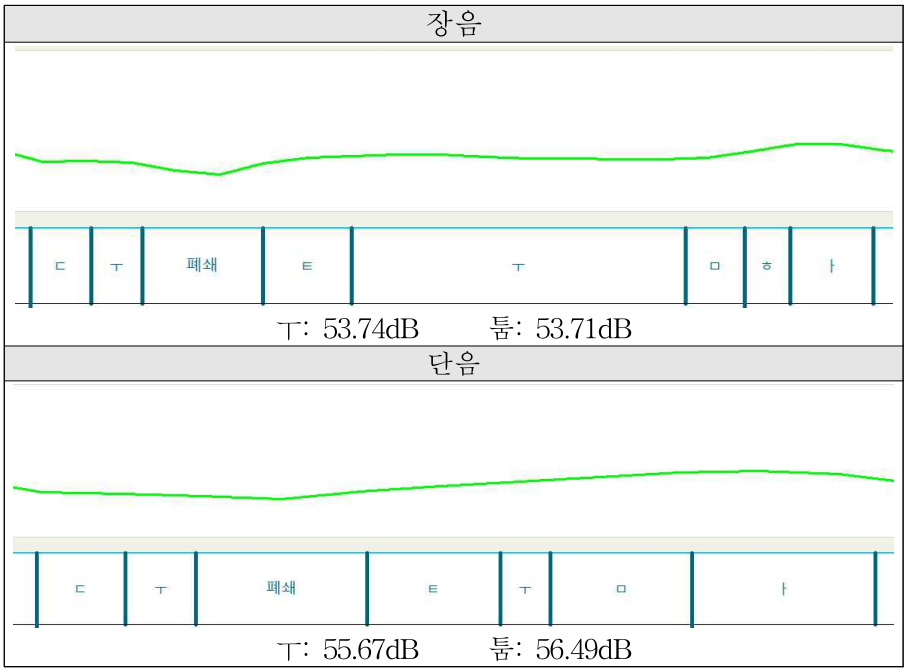
소에서 강도의 변화가 있는지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표현적 장음은 문장에서 해당 단어 자체를 강조하는 화용적 기능을 한다. 강조의 의도가 담기기 때문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면 해당 단어는 보다 강한 강도로 실현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표현적 장음의 실현이 더 큰 강도를 동반하지는 않는 듯하다. 아래에 제시된 '까맣고'의 강도 곡선을 보자.



<그림 37>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까맣고'의 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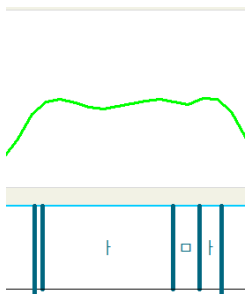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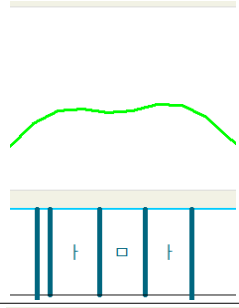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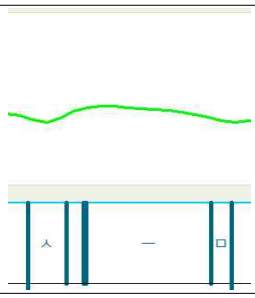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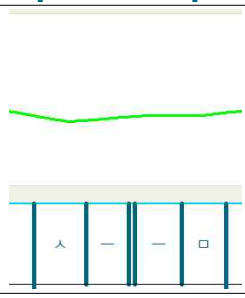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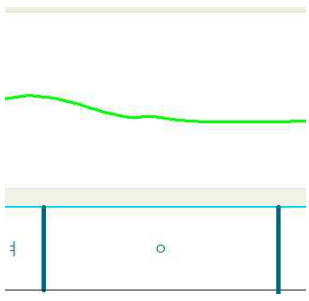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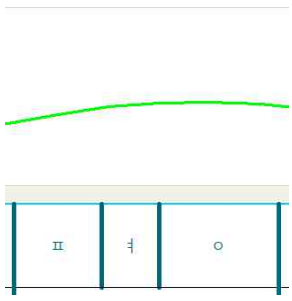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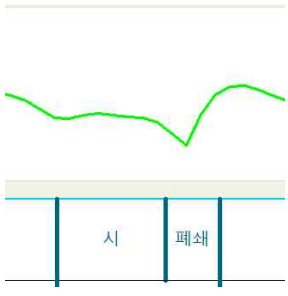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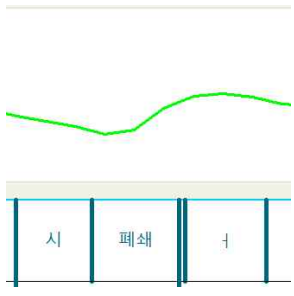
<그림 37>은 중성 'ㅏ'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까맣고'의 강도 곡선과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의 강도 곡선이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강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접 음소와의 강도 차이를 비교해보아도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미미하다. 이런 양상은 아래의 <그림 38>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그림 38>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두툼하다'의 강도 비교

<그림 38>는 '두툼하다'의 강도 곡선이다. 두 번째 음절의 중성 'ㅜ'가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었는데, 그 강도가 단음에서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표현적 장음의 실현이 특히 더 강한 강도를 동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표현적 장음과 강도는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해당 음절이나 음소의 강도에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위치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든지 간에 강도는 일정한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 아래의 <그림 39>는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의 강도 곡선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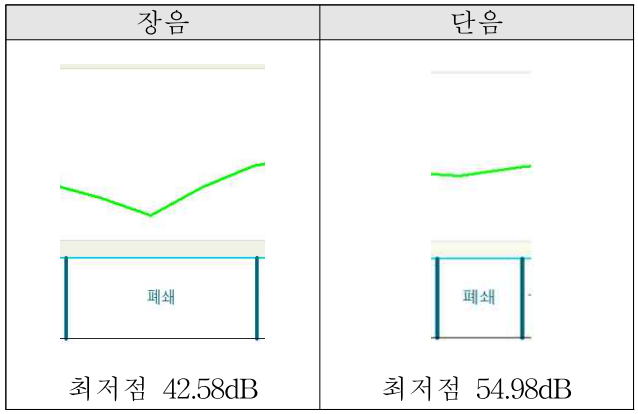
음소	위치	장음	단음
모음	어두 : 까맣고		
	비어두 : 노르스름하다		
자음	종성 : 평생		
자음+모음 : 시뻘겋다			

<그림 39>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의 강도 곡선

<그림 39>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음소와 음절의 강도 곡선을 보

면,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동안 강도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의 강도 곡선과 큰 차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폐쇄 구간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아래는 폐쇄 구간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꼼꼼하다'와 표현적 장음 없이 실현된 '꼼꼼하다'의 강도 곡선이다.(폐쇄 구간의 강도만을 제시한다.)



<그림 40> '꼼꼼하다'의 폐쇄 구간의 강도 곡선

<그림 40>은 폐쇄 구간의 강도를 보여주는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폐쇄 구간의 강도가 더욱 급격한 기울기를 보이며, 최저점도 더 낮게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도는 조음 시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폐쇄 구간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기류의 폐쇄 정도가 더 높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강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음절에 특히 강한 강도가 실현되지는 않으며, 장음으로 실현되는 음소의 강도는 일정한 수준으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단음으로 실현될 때의 강도와 큰 차이 없는 모습이다. 그러나 폐쇄 구간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는 폐쇄 구간의 강도 곡선이 단음형보다 급격한 기울기를 보였으며, 최저점도 더 낮게 나타났다. 이는 폐쇄 구간이 길어지며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때, 기류의 폐쇄 정도가 더 높음을 의미한다.

4.3. 표현적 장음의 계량적 특징

본 절에서는 수집된 504개 표현적 장음의 계량적 특징을 살펴본다. 표현적 장음이 어떤 단어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단어의 품사는 어떠한지,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는 위치는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다룰 것이다.

4.3.1. 단어별 빈도

여기서는 수집한 504개의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다고 수집된 단어 중 타입은 140개인데 이들이 모두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상위 4개 타입의 출현이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다고 수집된 문장에서 어떤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특히 더 자주 등장함을 의미한다. 타입에 따른 토큰 수는 아래의 <표 47>과 같은데, 타입에 따라 토큰 수가 한 개부터 38개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69]

69) 본고에서는 다른 단어는 별개의 타입으로 처리한다. 가령 '엄청'과 '엄청나다'는 별개의 타입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두 단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타입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예들을 하나의 타입으로 본다면, 전체 문장에서 상위 4개 타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27.0%가 된다. 이때 상위 4개 타입의 토큰 수는 아래와 같다.

토큰 수	타입	비율	토큰 수	타입	비율
39	진짜, 진짜로	7.74%	33	계속	6.55%
34	엄청, 엄청나다	6.74%	30	너무	5.95%

<표 47> 수집된 타입과 토큰 수

토큰 수	타입	비율
38	진짜	7.54%
33	계속	6.55%
30	너무	5.95%
25	엄청	4.96%
18	굉장히	3.57%
17	모든	3.37%
13	다	2.58%
12	크다	2.38%
11	전혀, 정말	4.37%
10	제일, 훨씬	3.97%
9	많다, 엄청나다, 쭉	5.36%
8	여러, 완전	3.17%
7	수, 강력하다, 아주, 절대, 거의	6.94%
6	되게, 반드시, 완전히, 조금	4.76%
5	가장, 아무, 잘, 쫙	3.97%
4	꾸준히, 이렇게, 한	2.38%
3	가만히, 약간, 저기, 점점, 진심, 항상	3.57%
2	개(접사), 길다, 꽉, 넓다, 똑같다, 매일, 맨날, 모든, 비슷비슷하다, 세다, 시(접사), 심지어, 옛날, 자꾸, 작다, 제발, 좋다, 최대한, 커다랗다, 큰일, 특별히, 편안하다, 평생, 확	9.13%
1	강하다, 거대하다, 겁나, 결코, 그냥, 그대로, 깊다, 깨끗하다, 꼭, 꾹, 난리, 누렇다, 늘, 단순하다, 달콤하다, 대략, 대부분, 대체로, 더부룩하다, 도저히, 막, 많이, 매번, 매우, 맨, 멀다, 멀리, 명료하다, 무조건, 무지하게, 무진장, 묵묵하다, 바로, 분명히, 불굴, 불룩하다, 뻣뻣	15.5%

	하다, 삭, 살짝, 세계적, 세상에, 실제로, 심하다, 십, 싹, 썩, 아무런, 어마어마하다, 얼마나, 왜, 으쓱 이만하다, 일시적, 잘하다, 잠시, 저쪽, 전, 점잖다, 정반대, 조용히, 좀, 진짜로, 천만에, 천천히, 철저하다, 충격, 충분히, 탈탈, 툭, 퍽퍽하다, 평안하다, 푹, 풍부하다, 하얗다, 한참, 허옇다, 확실하다, 활짝	

<표 4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토큰 빈도 상위 4개 단어는 '진짜', '계속', '너무', '엄청'이다. 504개의 표현적 장음 중 '진짜'는 38회, '계속'은 33회, '너무'는 30회, '엄청'은 25회 보고되었다.

이렇듯 수집된 표현적 장음에서 특정 단어가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실제로 해당 단어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이 경우 표현적 장음이 보다 잘 나타나는 어휘적 조건이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반면 '진짜', '계속', '너무', '엄청'과 같은 단어들에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확률은 다른 단어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해당 단어들이 발화에서 더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표현적 장음 수집에서 더 많이 보고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단어만을 수집한 본고의 연구 방법상, 둘 중 어느 가설이 타당한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두 가설 중 무엇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현적 장음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까지 모두 조사하여, 단어 각각에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확률을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본고에서는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단어들을 수집했을 때, 보고되는 타입들의 빈도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가 위의 두 가설 중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규모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3.2. 품사별 빈도

표현적 장음은 부사나 형용사에서 잘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통계적으로 다루어진 적은 없다. 이에 본 절에서는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단어의 품사가 계량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에서 수집한 표현적 장음은 504 문장이고, 그 중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단어의 타입은 140개이다. 이 140개 타입의 품사를 살펴본 결과, 부사가 전체의 51.43%, 형용사가 전체의 27.86%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타입의 품사 비율을 아래의 <표 48>과 같다.

<표 48> 수집된 타입의 품사 비율

품사	타입 수	비율
부사	72	51.43%
형용사	39	27.86%
명사	13	9.29%
관형사	5	3.57%
접사	4	2.86%
대명사	3	2.14%
감탄사	2	1.43%
동사	1	0.71%
수사	1	0.71%
	140	100%

그런데 이 수치만을 가지고 부사와 형용사에서 표현적 장음이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다. 전체 어휘 목록에서 부사와 형용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에 존재하는 전체 단어 항목에서 각 품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49>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공하는 표제어의 품사별 통계이다. 명사가 73.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동사가 15.47%, 형용사가 3.68%, 부사가 3.38%로 그 뒤를 잇는다.[70]

<표 49> 『표준국어대사전』의 표제어 품사 비율

품사	표제어 수	비율(%)
명사	267,852	73.94%
동사	56,037	15.47%
형용사	13,315	3.68%
부사	12,239	3.38%
품사 없음[71]	7,757	2.14%
관형사	1,550	0.43%
의존 명사	857	0.24%
어미	781	0.22%
감탄사	640	0.18%
접사[72]	506	0.14%
대명사	348	0.10%
수사	177	0.05%
조사	164	0.05%
보조 동사	28	0.01%
보조 형용사	14	0.004%
합계	362,265	100

만약 품사마다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는 정도가 비슷하다면, 본고에서 수집한 표현적 장음의 타입 중 74%는 명사, 15%는 동사, 3%는 형용사, 또 다른 3%는 부사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단어들을 살펴보면, 부사와 형용사가 각각 50%, 27%를 차지하는 반면 명사와 동사의 비율은 9%, 0.71%에 그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통계적 사실은 특정 품사에서 표현적 장음이 더 잘 나타나고, 어떤 품사에서는 표현적 장음이 보다 덜 나타남을 의미한다. 즉, 한국어에서

70)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하나의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로 쓰일 경우에는 중복으로 계산하여 품사별 현황의 합계 수치가 단위별 현황의 단어 수치보다 많다.

71)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각주로 "'품사 없음'은 '어근'과 구 구성이 줄어든 한 어절 표제어로 품사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을 말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7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각주로 "'어미'와 '접사'는 문법적으로 품사에 속하지 않지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품사와 같은 층위로 처리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사와 형용사는 다른 품사에 비해 표현적 장음으로 실현될 확률이 높지만, 명사와 동사는 그 확률이 낮은 것이다.

4.3.3. 실현 음절별 빈도

수집된 504문장 중 94.8%에 달하는 478문장에서 어두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났다. 둘째 음절 이하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문장은 5.2%뿐이다. 아래는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는 음절별 비율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50> 수집된 표현적 장음의 실현 음절별 비율

실현 위치	문장 수	비율
1음절	477	94.64%
2음절	23	4.56%
3음절	1	0.20%
4음절	3	0.60%
	504	100%

타입을 기준으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되는 음절의 위치도 살펴보았다. 140개의 타입 중 둘 이상의 위치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 있는 단어는 '가장'뿐이었다. '가장'은 첫음절에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수도 있고, 둘째 음절에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장'을 제외한 139개 단어들은 모두 하나의 위치에서만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 비율은 아래의 <표 51>과 같다.

<표 51> 수집된 타입의 실현 음절별 비율

실현 위치	타입 수	비율
1음절	124	89.21%
2음절	12	8.63%
3음절	1	0.72%
4음절	2	1.44%
	139	100%

결국 표현적 장음은 전체 토큰을 기준으로 접근하든 타입을 기준으로 접근하든 90%에 달하는 높은 비율로 어두에서 실현된다. 또한 둘 이상의 위치에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다고 조사된 항목이 '가장'밖에 없는 것으로 보아, 단어마다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수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4.2.1.1에서 언급했듯이, 직관적으로는 둘 이상의 위치에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수 있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위치에서만 지배적으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것이다. 다만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대규모 말뭉치와 실험이 뒷받침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고는 발화에서 나타나는 장음의 정체 밝히기를 목적으로 현대국어의 장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2.1장에서 장음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본고에서는 “어떤 음소가 다른 환경에 놓인 동일한 음소보다 길게 실현되고, 청자가 그것을 긴 소리로 지각할 수 있을 때” 해당 음소가 장음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았다.

2.2장에서는 현대국어에 존재하는 장음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현대국어에 어휘적 장음, 보상적 장음, 동반적 장음, 표현적 장음이 존재한다고 보고 각각의 특징과 예시를 제시하였다. 각 장음을 살펴보며 현대국어에 나타난 장음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휘적 장음의 경우 비음운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어휘적 장음이 나타날 자리에 실현된 장음이 어휘적 장음이라고 확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전마다 어휘적 장음의 기술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도 문제가 되었다. 표현적 장음의 경우 그 기능이나 특징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현된 장음이 표현적 장음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근거를 마련할 수 없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를 3장과 4장에서 해결함으로써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장음의 정체에 다가가고자 했다. 3장에서는 어휘적 장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다. 3.1에서 어휘적 장음의 형성을 살펴보았는데, ‘상성>장음’의 대응에서 벗어나는 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3.2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어휘적 장음이 과연 현대국어에 남아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를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고, 어휘 유형별로 비음운화 과정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속도가 어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음운화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이전에 실시된 실태 조사를 활용하였다.

4장에서는 표현적 장음을 다루었다. 우선 표현적 장음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표현적 장음의 기능을 의미 층위와 화용 층위로 구

분하고, 표현적 장음은 기본적으로 화용적 기능을 하며, 경우에 따라 의미적 기능이 함께 나타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표현적 장음의 음성적·음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현적 장음이 나타나는 음절과 음소의 위치를 살펴보고, 표현적 장음이 나타날 때 피치와 강도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등을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직접 수집한 504개의 표현적 장음을 대상으로 계량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수집된 504개의 단어 중 타입은 몇 개이고 그 중 특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지, 품사별 빈도는 어떠한지, 실현되는 위치는 통계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등을 다루었다.

본고는 이렇듯 현대국어의 장음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대국어에 나타나는 장음의 정체에 다가가고자 했다. 그러나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과정을 다루며 구체적인 어휘 항목을 제시하지 못했고, 개별 단어에서 표현적 장음이 실현될 확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표현적 장음의 연구에 음성 파일이 확보된 말뭉치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은 이후에 대규모 말뭉치와 음성 실험을 기반으로 한 표현적 장음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많은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본고를 통해 몇 가지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었다. 현대국어에 어떠한 종류의 장음이 존재하는지를 제시하였고, 어휘 유형에 따라 어휘적 장음의 비음운화 속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금껏 깊이 있기 다루어지지 않았던 표현적 장음의 기능과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직접 수집한 504개의 문장을 통해 표현적 장음이 계량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서론에서 제시한 질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답할 수 있게 되었다. 서론에서 필자는 아래의 문장에 나타나는 장음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다.

(33) ㄱ. 저 **밥**빵이 맛있어 보여.
ㄴ. **거**짓말 하지 마.

(33)의 문장은 필자가 20대 화자의 발화에서 수집한 것이다. 3.2에서 우리는 1960년 후반 이후 출생 그룹에서는 모든 어휘 유형에서 어휘적 장음이 비음운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대 화자에게서 발화된 (33)의 장음은 어휘적 장음일 수 없다. 그러나 어휘적 장음이 아니더라도 '밤'과 '거'가 장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밤'에 의미 초점이 실려 돋들림에 의한 장음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기식군의 첫음절에서 돋들림이 나타나 장음이 실현되었을 수도 있다. 또한 화자가 발화 내에서 '거짓말'이란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 화용적 기능을 가진 표현적 장음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 표현적 장음은 대체로 높은 피치로 실현되기에, (33)의 장음이 어떤 피치로 실현되었는지에 따라 표현적 장음이 될 수도 있고 돋들림에 의한 장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둘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비록 어떤 종류의 장음이 나타난 것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현대국어에 어떤 종류의 장음이 존재하고, 또 발화에 나타난 장음이 어떤 이유로 나타났을 것이라고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본고의 시도가 장음의 정체를 밝히는 앞으로의 작업에 미약하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고광모(1991), “국어의 보상적 장음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고도홍(1997), “Mieko Han의 한국어 음성학 연구”, 《음성과학》 1, 한국음성학회, 213~223.

고언숙(2017), “The Phonology and Semantics of Expressive Lengthening in Korean”, 《음성음운형태론연구》 23-3, 한국음운론학회, 325~347.

공수진(2002), “한국어 장·단모음의 실험음성학적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경근(1999), “국어 음장의 발달에 대하여”, 《언어학》 25,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3~28.

권경근(2011), “구어의 음운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5~23.

권경근(2014), “운율자질을 기반으로 한 음운론적 유형화 -음장과 음절 마침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8, 우리말학회, 5~27.

김 현(2003), “음운규칙과 형태음운규칙의 구분에 대하여”,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25~246.

김두봉(1916), 《조선말본》, 경성: 신문관.

김민지(2021a), “한국어 소형문의 억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지(2021b), “한국어 평서문과 의문문의 음성적 차이에 대한 연구 - ‘어’ 종결형 문장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110, 어문연구학회, 5~27.

김선주(2000), “한국어 리듬패턴 변화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철(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연구원.

김선철(2006), 《중앙어의 음운론적 변이양상》, 경진문화사.
김선철(2011), “국어 형용사와 부사의 표현적 장음화 - 《연세 한국어사전》을 중심으로”, 《언어학》59,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51~69.
김선철, 권미영, 황연신(2004), “서울말 장단의 연령별 변이”, 《말소리》50, 대한음성학회, 1~22.
김선희(2009), “한국어 자유 발화 음성의 억양 패턴”, 『말소리와 음성과학』1-4, 한국음성학회, 85~94.
김성규(1994), “중세 국어의 성조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성규(2006), “음장의 변화 방향”, 《國語學論叢》, 태학사, 267~289.
김수형(1973), “한국어의 지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수형(2001), 《현대국어의 음장》, 역락.
김완진(1972), “형태론적 현안의 음운론적 극복을 위하여”, 《동아문화》11,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273~299.
김지은(2022), “서울말 어휘적 장단의 비음운화 재고: 선행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4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7.
김진우(1976), “국어음운론에 있어서의 모음음장의 기능”, 《어문연구》9, 어문연구학회, 47~56.
김창섭(1991), “‘하다’ 형용사에서의 표현적 장음”,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김완진 선생 회갑기념 논총)》, 서울: 민음사, 744~762.
김혜림, 박민희(2019), “현대 한국어 장음의 실현 양상 및 인식 조사 - 서울·경기 지역 화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15-3, 79~97.
남광우(1954), “장단음고(上)”, 《국어국문학》12, 국어국문학회, 5~9.
남광우(1955), “장단음고(下)”, 《국어국문학》13, 국어국문학회, 203~216.
남광우(2014), 《고어사전》, 교학사.
남기탁(2012), “국어 한자음 장단음의 발음 양상”, 《국어학》64, 국어학회, 35~63.

박미경(2016), “자유발화의 장음화 실현 양상과 기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주경(1985), “현대 한국어의 장단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초흔(2023), “보상적 장모음화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배주채(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성철재(1991), “표준 한국어 악센트의 실험 음성학적 연구: 청취 테스트 및 음향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지영(2010), “한국어 사전 표제어 발음의 음소 및 음절 빈도”,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15-1,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94~106.
신지영(2014), 《말소리의 이해(개정판)》, 한국문화사.
안병섭(2010a), “음장 변동의 비규칙성과 그 의미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36, 우리어문학회, 187-211.
안병섭(2010b), 《한국어 운율과 음운론》, 월인.
오재혁(2016),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국어 단모음의 길이 변화 양상”, 《겨레어문학》 57, 겨레어문학회, 185~207.
오재혁(2017), “단모음의 길이에 미치는 인접 자음의 영향”, 《한국어학》 76, 한국어학회, 55~81.
오재혁(2021), “국어 단모음(單母音)의 내재적 길이”, 《한국어학》 91, 한국어학회, 315~338.
유재원(1988), “현대국어의 악센트 규칙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19, 성곡언론문화재단, 293~322.
이기문(1972), 《국어음운사연구》,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이병근(1978), “국어의 장모음화와 보상성”, 《국어학》 6, 국어학회, 1~28.
이병근(1986), “발화에 있어서의 음장”, 《국어학》 15, 국어학회, 11~39.
이병근(1990), “음장의 사전적 기술”, 《진단학보》 70, 진단학회, 107~124.

이숭녕(1959), “현대 서울말의 accent 고찰”, 《서울대학교 논문집》 9, 107~152.
이진호(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이진호(2012), 《한국어의 표준 발음과 현실 발음》, 아카넷.
이진호(2015), “중세 국어의 성조 축약 양상과 제약”, 《국어학》 75, 국어학회, 60~83.
이진호(2017), 《국어 음운론 용어 사전》, 역락.
이진호(2021), 《국어 음운론 강의(개정 증보판)》, 집문당.
이진호, 이수진, 선한빛(2016), 《16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 한국문화사.
이진호, 최영선, 이수진, 선한빛(2015), 《15세기 국어 활용형 사전》, 박이정.
이현복(1974), “서울말의 리듬과 억양”, 《국어연구》 10-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5~25.
이현복(1976), “한국어 단음절어의 억양연구”, 《언어학》 1,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31~143.
이호영(1987), “현대 한국어의 악센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호영(1991), “한국어의 억양체계”. 《언어학》 13, 사단법인 한국언어학회, 129~151.
이희승(1960), 《國語學槪說(3판)》, 서울: 민중서관.
전선아(2006), “The Role of Intonation in Sentence Processing”, 《인문학연구》 33-1,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5~211.
정명숙(2002), “방송 언어에 나타난 말소리의 사적 변천”, 《국어학》 39, 국어학회, 221~250.
정명숙, 황국정(2002), “국어학: 국어 한자어의 장단음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1)”, 《어문논집》 42, 민족어문학회, 285~299.
정인호(1999), “전남방언 색채어의 형성과정”. 《한국문화》 2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61~80.

정일진(1997), “표준어 단순 모음의 세대간 차이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3/34, 대한음성학회, 111~124.

정철주(1992), “국어의 보상적 장음화에 대하여”, 《한국어문연구》 7, 한국어문연구학, 109~134.

조남민(2010), “한국어 화자의 음장 인식에 관한 연구 - 일본어 장음절 핵의 시간성과 관련하여”, 《배달말》 46, 배달말학회, 55~86.

지민제(1993), “우리말 소리의 길이”, 《새국어생활》 3-1, 국립국어원, 39~57.

최명옥(2013), 《국어음운론(제2판)》, 태학사.

최현배(1929), 《우리말본 첫재매》, 연희전문학교출판부.

한영균(1988), “비음절화 규칙의 통시적 변화와 그 의미”, 《울산어문논집》 4,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26.

한준일(2014), “서울 지역 화자를 대상으로 한 단모음 음장에 대한 실험음성학적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허웅(1993), 《국어음운학》, 서울: 샘문화사.

홍종선, 도원영, 차재은, 유해원, 김서형, 장혜진, 송인성, 정경재, 정연주(2016), 《현대 한국어 구어의 형성과 변천 1》, 한국문화사.

홍종선, 도원영, 차재은, 유해원, 김서형, 장혜진, 송인성, 정경재, 정연주(2017), 《현대 한국어 구어의 형성과 변천 2》, 한국문화사.

황은하(2019), “세종 구어 말뭉치에 기반한 한국어 표현적 장음 연구”, 《어문론총》 82, 한국문학언어학회, 237~267.

Bloomfield, Leonard. (1958). *Language*.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Elert, Claes-Christian. (1964). *Phonologic studies of quantity in Swedish*. Stockholm-Göteborg-Uppsala: Almqvist & Wiksell.

Han, M. S. (1963). *Acoustic Phonetics of Korean*.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an, M. S. (1964). *Studies in The Phonology of Asian Languages. II.*

Duration of Korean Vowels. Los Angeles: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Jones, Daniel. (1962). *The Phoneme : It's Nature and Use*(2nd ed.). Cambridge: W.Heffer & Sons LTD.

Jun, Sun-Ah. (2000). K-ToBI(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s (version 3.1., October2000). *UCLA Working Papers in Phonetics,* 99, 149~173.

Lee, H. B. & Zhi, M. J. (1987). A Spectrographical Study of Korean Vowel. *Korea Journal*, 27(2), 37~41.

Lehiste, Ilse. (1970). *Suprasegmentals*. Cambridge, Massachusetts: The M.I.T. Press.

Lehiste, Ilse., & Peterson, G. E. (1960). *Studies of Syllable Nuclei 2*.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Mission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Etrangères de Paris. (1881). *GRAMMAIRE CORÉENNE*. Yokohama: L. Lévy et S. Salabelle.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1880).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Yokohama: C. Lévy.

Pike, Kenneth. L. (1947). *Phonemic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Yang, Dong-Whee. (1978). Consonant Influence on Duration of Vowels in Korean. 언어, 3(1), 33~60.

<부록> 수집된 표현적 장음

본고에서 수집한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문장 504개를 제시한다. 문장은 수집된 문장을 그대로 제시하였으며, 표현적 장음이 나타난 단어순으로 나열하였다. 각 문장의 출처는 맨 뒷장의 Q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번호	단어	문장
1	가만히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2	가만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3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4	가장	그 중에 가장 큰 거가 뭘까요? 가::장 큰 거
5	가장	사촌끼리 짝짓기 하는 게 가::장 유리할지 모른다.
6	가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7	가장	걔 방이 진짜 깨끗하다니까. 내가 본 방 중에 가장 깨끗해.
8	가장	제가 가장:: 부러운 건 뭐냐 하면…
9	강력하다	그러면 강::력하게 긍정성이 올라가요.
10	강력하다	강::력하게 권해요.
11	강력하다	강::력하게 권해요.
12	강력하다	강::력한 의지.
13	강력하다	강::력한 수학 50점 올리는 힘이 더 생겨요.
14	강력하다	그럼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하는 거죠.
15	강력하다	아직 어떠한 treatment도 이런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게 없어요.
16	강하다	강::한 바람이 분다.
17	개	당구를 개::못 칠 거 같고…
18	개	개::싸구려 조이패드로 해서 그래요.
19	거대하다	그래서 거기서 거::대한 섹스 향연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0	거의	보험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21	거의	거::의 중간고사 이후까지예요.
22	거의	이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죠.

23	거의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안 벌어지거든요.
24	거의	거::의 비슷합니다.
25	거의	가동되는 네트워크랑 거::의 비슷한데 살짝 달라.
26	거의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다 지금…
27	겁나	파리 물가가 겁::나 비싸죠.
28	결코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29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뭐 계속 공부시키잖아요. 뭐 계속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고…
30	계속	같은 건물에서 계::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늘 보는 분들을 보잖아요.
31	계속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32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면 어느 날…
33	계속	그래서 그게 계::속 저를 녹음하는 거예요.
34	계속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35	계속	그걸 계::속 하면은 뇌신경가소성 때문에 뇌가 그 방향으로 발전되고 굳어져요.
36	계속	계::속 뇌과학적 바탕으로 20년 가까이 이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37	계속	계::속 그동안 공동 연구를 해왔습니다.
38	계속	그리고서는 2017년도에, 계::속 이런 걸 알려지니까…
39	계속	계::속 올라가.
40	계속	계::속 좌절하고 주저앉고 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아요.
41	계속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42	계속	결혼 생활이 이혼에 이르지 않고 계::속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사람의 특징은…
43	계속	이거의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는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44	계속	우리 눈에 계::속 들어오니까.
45	계속	계::속 단 맛을 집어요.
46	계속	계::속 모든 거를 다 듣는 거 같은 거예요.

47	계속	안 그러면 자기만 알게 계::속 누군가가 나를 도청하는 거 같거든요.
48	계속	나를 계::속 보고 있는 거 같애.
49	계속	나를 계::속 감찰하고 검열하는 이 마이크나 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50	계속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는 거 같애요.
51	계속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52	계속	옷을 계::속 사도 사도 옷이 없다면 옷이 없는 게 아니죠.
53	계속	물건을 계::속 사고 택배를 계::속 시켜도 쓸 만한 물건이 없다면 그건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모르거나 마음이 목마르거나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거래요.
54	계속	물건을 계::속 사고 택배를 계::속 시켜도 쓸 만한 물건이 없다면 그건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취향을 모르거나 마음이 목마르거나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거래요.
55	계속	계::속 편하면…
56	계속	계::속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짜증내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57	계속	그리고 계::속 취업이나 이게 바뀌게 될 거예요.
58	계속	그래서 저녁도 차리고 막 이러면서 계::속 살펴야 되는 거죠.
59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인종 간의 유전자가 많이 섞이다 보면…
60	계속	지금 자연이 계::속 이동하고 있잖아요.
61	계속	이런 식물들의 분포가 계::속 북상하고 있는 건…
62	굉장히	굉::장히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으면 100장을 쓰지 못해.
63	굉장히	아저씨 저 연극배우예요. 발음이 굉::장히 정확한 사람인데.
64	굉장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65	굉장히	사랑과 존중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연구가 많이 됩니다.

66	굉장히	굉::장히 많이 다루어집니다.
67	굉장히	굉::장히 빨리 할 거거든요.
68	굉장히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잇고요.
69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70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1	굉장히	굉::장히 오해가 많아가지고…
72	굉장히	이게 유전자가 굉::장히 강한가봐요.
73	굉장히	교육학에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74	굉장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75	굉장히	뭘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76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7	굉장히	굉::장히 마초 같은 남성들이 있는가 하면…
78	굉장히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79	굉장히	굉::장히 먼 지역에 사는…
80	그냥	나는 그 안에 속해있으면서 그 조직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그::냥 하잖아요.
81	그대로	(피트니스강사가)지금 자세에서 다리는 그대::로 하시고요, 팔만 좌우로 뻗어줍니다.
82	길다	그러나 문제는 긴:: 안목으로 보면 그게 반드시 유리할까…
83	길다	척추 위로 길::게 뽑아봅니다.
84	깊다	깊::은 산악지역에 위치한다.
85	깨끗하다	깨::끗한 물로 닦아야지.
86	꼭	내가 꼭:: 이거 해야 된다.
87	꽉	엉덩이에 힘 꽉:: 줍니다.
88	꽉	오줌보가 꽉:: 찬 거 같은 느낌.
89	꾸준히	꾸준::히 따라하시면 점점 부드러워질 거예요.
90	꾸준히	천천히 달리거나 빨리 걷거나 하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답이 될 수 있어요.
91	꾸준히	어떤 사람이 지구력을 갖고 꾸준::히 무슨 일을 한다고 했을 때…
92	꾸준히	예를 들어오래 달리기를 꾸준::히 해서…
93	꾹	바닥에 꾹:: 누르면서…

94	난리	한참 꽃 때매 중앙공원 난::리 났잖아.
95	너무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96	너무	그니까 이게 너::무 습관이 돼버린 거야.
97	너무	근데 저는 너::무 눈치를 보다가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98	너무	근데 사연으로 너::무 어두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99	너무	방어가 비린 게 너::무 많아.
100	너무	너::무 꼬소하다.
101	너무	아 나 주부 습진 진짜 너::무 심해졌어.
102	너무	그리고 우리 애기가 우유를 너::무 좋아해서 우유 살짝만 데펴주세요.
103	너무	어머 그거 너::무 신선하잖아.
104	너무	너::무 맛있는 거야.
105	너무	머리가 너::무 안 돌아가.
106	너무	그래서 너::무 할아버지 보는 느낌인가?
107	너무	그거 진짜 너::무 매워.
108	너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랐더라.
109	너무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잘해.
110	너무	오늘 너::무 많이 돌아다녔다.
11	너무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112	너무	사진이 너::무 다 남달라.
113	너무	내용이 너::무 좋다고. 이거 학회지에 실어보자는 거예요.
114	너무	단 게 너::무 땡겨.
115	너무	날이 너::무 꾸리꾸리한 거야.
116	너무	왜냐하면 애들의 성적을 방해하는 주범이 엄마 아빠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17	너무	너::무 내 스타일 아닌데.
118	너무	나 이거 너::무 싫어.
119	너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120	너무	너::무 가족.
121	너무	너::무 가족.

122	너무	요즘 진짜 한숨이 너::무 많이 나.
123	너무	너::무 관심 있는 걸 봤을 때도 활성화돼요.
124	너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맞는 건가 싶었어요.
125	넓다	이렇게 넓::은 인천에서 내가 딱 픽한 맛집 하나.
126	넓다	그 넓::은 네트워크에서 창의성,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127	누렇다	신발이 아주 누::런데.
128	늘	감정이 항상 늘:: 차분하고 안정적이라고 하십니다.
129	다	그니까 다:: 듣는 거예요.
130	다	천몇백 개 언어의 후음에 관한 걸 다:: 정리를 했어.
131	다	돈 권력 사랑 명예 다:: 인간관계에서만 생산됩니다.
132	다	옷을 입으면 다:: 큰 거야.
133	다	뭐 다:: 할려면 엄청 많으니까요.
134	다	학교 졸업하면 다:: 취업해야 된다, 그거 지난 세기 얘기에요.
135	다	유학 경비도 내가 다:: 부쳐주고…
136	다	아파트도 내가 다:: 사주고…
137	다	다:: 유전적으로 비슷비슷하니까.
138	다	다:: 바다로 어느 순간에 돌아가는 거죠.
139	다	자기 부모가 살았던 그 강을 찾아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140	다	제이콥 브로노우스키가 다:: 정리해서…
141	다	지구 표면에 다:: 흩어져 있다면…
142	단순하다	1+1=2다. 이걸로 살려고요. 단순::하게.
143	달콤하다	아주 달콤::한 과자고…
144	대략	회복탄력성 검사를 해보면 대::략…
145	대부분	대::부분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146	대체로	대::체로 우리 인류들이…
147	더부룩하다	아까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속이 더부룩::하니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148	도저히	생각만으로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149	되게	저 이달의 소녀 되::게 좋아해요.
150	되게	의사들이 전문의를 따고 나면 되::게 그 허무함을 느껴요.
151	되게	돈은 되::게 조금 주는데 일은 되::게 많고…
152	되게	되::게 커 보인다.
153	되게	그래서 애기 때 사람 발을 되::게 물고…
154	되게	되::게 기분 나쁜 그…
155	똑같다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바람막이를 입었어요.
156	똑같다	똑::같은 소정씨가 하시는데 완전 이제 모범생으로…
157	막	그러고는 막:: 책상을 두들기더니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난거예요.
158	많다	대학교 가면 학점도 펴야돼 토익 따야돼 자격증 따야돼. 뭐 할 게 많::아요.
159	많다	많::은 자료들이 과학적인 근거들이…
160	많다	많::은데.
161	많다	장에서 많::은 신호가 올라오는 거 중에 일부가…
162	많다	통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163	많다	감정 조절 장애가 많::이 옵니다.
164	많다	자식을 많::이 키우는 성향이 있더라.
165	많다	그런 예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기 때문에…
166	많다	많::죠.
167	많이	돈이 많::이 남는다.
168	매번	지금 내가 내쉬는 숨이 마지막 숨이 될 수 있어요 매::번.
169	매우	파업이 없으면 운이 매::우 좋은 거예요.
170	매일	매::일 가난한 얼굴을 하는 사람이 있어.
171	매일	모든 포유동물은요 매::일 암세포가 생겨요.
172	맨	우리 맨::뒤에 앉았나.
173	맨날	너는 맨::날 그러드라.
174	맨날	우리 맨::날 그리고 10시부터 10시까지 학교에 있고…

175	멀다	그리 먼:: 미래가 아닐 때…
176	멀리	멀::리 있는 친구.
177	명료하다	명::료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야 해요.
178	모든	이 고성능 마이크로 이 모::든 소리를…
179	모든	이 모::든 마음근력을 떠받치고 있는 제일 핵심 역량이 뭐죠?
180	모든	모::든 분야가 다 모이는…
181	모든	이 모::든 마음근력을 떠 받들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제일 핵심 역량이 뭐죠?
182	모든	왜냐면 모::든 보험 상품은 가치가 똑같거든요.
183	모든	모::든 일이 계획된 대로 뜻한 대로…
184	모든	모::든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185	모든	그럼 잘해야 모::든 면에서 평균적인 인간이 되어버려요.
186	모든	모::든 물질이, 웬만한 거…
187	모든	모::든 마음근력과 회복탄력성의 핵심 근거가 되는 거죠.
188	모든	모::든 조사를 다 했는데도…
189	모든	나머지 모::든 생물들은…
190	모든	인간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인 목표고…
191	모든	다른 모::든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192	모든	인간도 모::든 진화한 생물 중의 하나의 뿐이다.
193	모든	그럼 인생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달라져요.
194	모든	모::든 종류의 사망 원인이 5배 이상 감소하는데…
195	무조건	12시 반까지 무:조건 있다고 약속할 수 있어.
196	무지하게	털이 무::지하게 빠져요.
197	무진장	과자를 무진::장 많이 먹었어요.
198	묵묵하다	묵묵::하게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199	바로	바::로 자기비난, 자기비판, 나아가 자기 혐오로 옵니다.
200	반드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신념.
201	반드시	야구 선수가 반::드시 이번 타석에 안타 쳐야된다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202	반드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신념.
203	반드시	반::드시 성공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204	반드시	그럼 반::드시 제가…

205	반드시	그러나 100억을 반::드시 벌겠다고 집착하면 망합니다.
206	분명히	황금기가 끝났다는 거를 분::명히 말하겠다.
207	불굴	불::굴의 의지.
208	불룩하다	딱 봐도 배가 불룩::한 게 딸이네 딸.
209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해질 거다.
210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해질지도 모른다.
211	뻣뻣하다	처음에는 뻣뻣::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212	삭	제 엉덩이를 삭:: 만지더라고요.
213	살짝	살::짝 실루엣을 보니까 부가티가 있네요.
214	세계적	이게 세::계적인 커::다란 트렌듭니다.
215	세다	저 사람은 진::짜 뇌과학, 해도 세::게 하는 사람이다.
216	세다	역경을 더 쎄::게…
217	세상에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래.
218	수	수::천쌍을 갖고 실제로 연구해서…
219	수	수::십만편의 연구 결과가 나온 학문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220	수	수::십명의 학자들이, 물론 다 해외 학자들이지만…
221	수	비행기를 수::천 대를 사려면 또 땅도 필요하잖아요.
222	수	수::십 년 동안 이런 저런
223	수	그런데 우리는 수::십만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하고 살았어요.
224	수	수::백 마리가 나옵니다.
225	시	얼굴이 시::꺼멓거든.
226	시	선배가 한겨울에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 다리가 시뻘겋더라고.
227	실제로	실::제로 조사해보면, 과학적으로 연구해보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228	심지어	내가 심::지어 우리 마누라도 존중하는데…
229	심지어	내가 심::지어 우리 남편 그 인간도 존중하는데…
230	심하다	그런 심::한 역경을 겪었거든요.
231	십	십::분만 뭐 해도 돼요.

232	싹	고민 듣자마자 머릿속에 싹:: 그려졌어요.
233	썩	신제품이 뭐 썩:: 신선했던 거는 없었다?
234	아무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고 시간만 천천히 가더라고요.
235	아무	아::무 문제도 없어.
236	아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237	아무	핀 조명 하나만 주고 아::무도 없는 거 같애.
238	아무	여러분이 아::무 잘못 안했어도.
239	아무런	아::무런 상관없어.
240	아주	아::주 고강도의…
241	아주	날씨가 아::주 덥다.
242	아주	아::주 잘하고 있어.
243	아주	아::주 정당한 진화적 적응 현상입니다.
244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처음부터 안 하는…
245	아주	아::주 이런 의무교육제도가 가져온 굉장히 잘못된 그런 거예요.
246	아주	아::주 바람직해.
247	약간	트새(트러플 새우깡)는 좀 약::간 과해.
248	약간	제가 보기엔 약::간 이질감이 좀 드는 거예요.
249	약간	약::간 갈색 피부에…
250	어마어마하다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더라…
251	얼마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소리로 강의를 했겠냐.
252	엄청	피해를 엄::청 크게 입었대.
253	엄청	일식은 엄::청 많아.
254	엄청	엄::청 큰 땅에 농사를 짓는 거야.
255	엄청	줄이 엄::청 길더라고.
256	엄청	이거에 대한 연구 엄::청 많거든요.
257	엄청	크림이 엄::청 많다.
258	엄청	엄::청 많이 했어.
259	엄청	엄::청 짜.
260	엄청	뛰는 거 엄::청 힘들다매.
261	엄청	그 임팩트는 엄::청 나죠.
262	엄청	여름 옷 엄::청 많던데.
263	엄청	엄::청 달라요 혈당 올라가는 게.
264	엄청	아니에요. 엄::청 똑똑합니다.

265	엄청	여자는 엄::청 늘죠.
266	엄청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엄::청 활성화시켜주는 걸로 확실히 밝혀졌고요.
267	엄청	아직 엄::청 헤매고 있어요.
268	엄청	엄::청 집중해서…
269	엄청	막판에 엄::청 아픈데…
270	엄청	그럼 편도체가 엄::청 활성화됩니다.
271	엄청	울산 친구도 사투리 엄::청 심해.
272	엄청	목소리도 엄::청 좋아.
273	엄청	연기도 엄::청 잘해.
274	엄청	엄::청 위험한 독이라던데…
275	엄청	막 엄::청 내리는 게 아니라…
276	엄청	노력 엄::청 많이 한 거예요.
277	엄청나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가요.
278	엄청나다	아 근데 엄::청나게 심사숙고를 한…
279	엄청나다	제 생각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혈당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280	엄청나다	그러더니 엄::청난 마이크가 저한테 딱 붙었어요.
281	엄청나다	엄::청난 비밀이 있대.
282	엄청나다	대중들이 지불해야 하는 엄::청난 대가는 뭐냐면 자기혐오예요.
283	엄청나다	엄::청나게 많은 게 올라와요.
284	엄청나다	엄::청나게 후진국이에요.
285	엄청나다	이른 봄에 엄::청나게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286	여러	여::러 대학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어요.
287	여러	2부, 3부, 5부에 여::러 실험이 들어가는데…
288	여러	정확하게 과학자들이, 제임스 에커만 같은 사람이라든지 여::러, 제임스 에커만은 소셜 데어터로 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데서는 빅데이터로 했고…
289	여러	여::러 연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2009년 10년 11년, 한 10여 년 전부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290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91	여러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을 겪거나…
292	여러	그래서 72시간 단식을 하면 여::러 가지 이 몸이 리

		셋되고…
293	여러	그래서 케이스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294	옛날	옛::날에 소몰이 개였거든요.
295	옛날	서울 사투리는 그게 있어. 그 옛::날…
296	완전	완::전 다를 수 있죠.
297	완전	아 이거 완::전 장기주차네.
298	완전	우리 할머니 완::전 토박이인데…
299	완전	사투리 완::전 심하고…
300	완전	우리가 조류독감 때문에 그냥 완::전 살처분을 하잖아요.
301	완전	지금 뭐 여자애들이 완::전…
302	완전	사쿠라 완::전 일본인이던데.
303	완전	상처가 완::전 개징그러웠어.
304	완전히	걔는 그럼 완::전히 걔는…
305	완전히	그게 완::전히 잘못된…
306	완전히	영국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307	완전히	예를 들어서 완::전히 자기 주관에 의한 선택을 하면…
308	완전히	완::전히 다른 거구요.
309	완전히	감정과 생각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에요.
310	왜	왜::이렇게 말랐냐고.
311	으쓱	어깨까지 으::쓱 올려볼게요.
312	이렇게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뱀처럼 저를 보더니…
313	이렇게	이렇::게 그 사람들 많은 데를 뚫고 데 옆 뒤에 딱 붙더라고요.
314	이렇게	예를 들어서 팔이 요렇::게 가다가 여기가 벌어져서 떨어지는 핏이 만약에 돼요.
315	이렇게	바깥에 창문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316	이만하다	이:;따만 말벌이 와.
317	일시적	그리고 일::시적으로 진짜 위험하고 자기혐오 불러일으키는 게…
318	자꾸	진행비 청구했는데 자::꾸 밀리고…
319	자꾸	자::꾸 걱정스러운 생각이 들고.

320	작다	작::은 논문은 어차피 작기 때문에 작게 쓰면 돼.
321	작다	청소년 아이들에게 작::은 도전과 실천에도 칭찬을 해주려고…
322	잘	상황 파악 잘:: 하고…
323	잘	잘:: 나가죠. 잘 나가다가…
324	잘	끽해야, 잘::해야 평::생 그런 노력을 했어…
325	잘	잘:: 끌고 나가서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도록…
326	잘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327	잘하다	1등부터 10등, 잘::하고 있잖아요 영업을.
328	잠시	우리 잠::시 쉬었다가…
329	저기	저::기, 저기를 좀 봐.
330	저기	저::기 좀 나보다 낮은 사람…
331	저기	저::기 엄청난 멧돼지가 다가오고 있어.
332	저쪽	그 다음에 이제 mPFC랑 저::쪽 두정엽 쪽으로 연결된…
333	전	인천 전::지역의 맛집을 파헤칠건데…
334	전혀	전::혀 그렇지 않아요.
335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336	전혀	인공지능과 전::혀, 인공지능이 연구 못해요.
337	전혀	전::혀 없는 말이 2011년도에…
338	전혀	술 담배를 전::혀 안했는데도…
339	전혀	그건 전::혀 아니에요.
340	전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341	전혀	전::혀 그런 거 아니고…
342	전혀	발 모양이 어떻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343	전혀	전::혀 없습니다.
344	전혀	그게 실제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345	절대	자기는 절::대 결혼 안하겠다고 했대.
346	절대	난 절::대 그렇게 못해.
347	절대	절::대 아니에요.
348	절대	내가 절::대 실패 안 할래.
349	절대	망해요 절::대 우승 못해요.
350	절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351	절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352	점잖다	그런 장면을 아주 점::잖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거죠.
353	점점	점::점 그게 누적돼가지고…
354	점점	자연계는 점::점 다양화하는 겁니다.
355	점점	산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면적이 넓어지는 산은…
356	정말	회라는 것은 정::말 맛있는 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357	정말	정::말 빈말이 아니라 제 인생의 1위 회였습니다.
358	정말	잘 친다고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누구나 알아요 걔 실력.
359	정말	여러분 보험 매판원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360	정말	통찰력 좋으시다는데 정::말 그 점이 존경스럽습니다.
361	정말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362	정말	그게 정::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363	정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364	정말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서 정::말 극단적으로 막 일시적으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365	정말	정::말 항노화제를 하나 딱 먹는 거예요.
366	정말	젊었을 때 아테네에서 정::말 미남으로…
367	정반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368	제발	제::발 진지하게 해 주세요.
369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370	제일	제 친구 중에 돈 많은 친구가 제::일 가난한 얼굴을 해요.
371	제일	그분들 중에서 제::일 고통이 심한 분이 어떤 사람일까요?
372	제일	제::일 맛있는 데는 어디야?
373	제일	라면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치즈라면인데…
374	제일	니가 제::일로다가 편한 데로 잡아.
375	제일	제::일 큰, 정신 의학의 모 학회입니다.
376	제일	끝에 제::일 헤매고 있는 매출 못 올리는 애.
377	제일	일반적으로 존중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요…
378	제일	제::일 무시무시하고…

379	제일	정신과에 오는 환자 중에 제::일 많은 질병이 뭘까요?
380	조금	맛있긴 한데 조::금 부족한 요소가 있어요.
381	조금	요렇게 매치가 쪼::끔 잘못됐다.
382	조금	요거는 거기서 쪼::끔 벗어난 컬러감과 디테일이다.
383	조금	이번에는 72시간 조::금 안되게 했어요.
384	조금	바지가 쪼::끔만, 쪼::끔만 여유가 있거나…
385	조금	요즘은 논문 준비 쪼::금 안 되겠네.
386	조용히	언니 저번에 조::용히 이거 칠하고 있었잖아.
387	좀	쫌:: 더 정확하게는…
388	좋다	선순환의 고리로 오는 거의 아주 좋::은 방법은 운동일 거예요.
389	좋다	어떤 좋::은 유전자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390	진심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존중심을 이끌어내서 존중 고백을 하세요.
391	진심	진::심으로 존중력이 올라와요.
392	진심	존중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내뱉잖아요? 내가 행복해져요.
393	진짜	개 방이 진::짜 깨끗하다니까. 내가 본 방 중에 가장 깨끗해.
394	진짜	진::짜 공교롭게도 터틀 아저씨가 마침 그 패드를 하시니까 터틀 비치 패드를…
395	진짜	그땐 진::짜 피곤한 표정이었거든요.
396	진짜	제가 이번에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397	진짜	옛날엔 진::짜 싫었어요.
398	진짜	근데 매새(매운새우깡)은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진::짜 장난 아니었어.
399	진짜	진::짜 조그맣게 바나나랑 킥 사이에 진::짜 조그맣게 향이라고 쓰여있을 거 같아 약간.
400	진짜	진::짜예요. 한번 끝까지 보세요.
401	진짜	와 진::짜 편해.
402	진짜	저 진::짜 자신 있어요.
403	진짜	근데 진::짜 고춧가루 매운맛이야.
404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수학을 한 거예요.

405	진짜	자신감을 진::짜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
406	진짜	핀란드 갔는데 진::짜 좋던디.
407	진짜	진::짜 재미 없는 수업이 몇 개가 있는데…
408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뇌과학, 해도 세::게 하는 사람이다.
409	진짜	진::짜 오기 싫다는 걸…
410	진짜	진::짜 많이 받았는데…
411	진짜	오늘 감골 진::짜 맛있었어.
412	진짜	웰시코기들이 어렸을 때는 진::짜 짓궂어요.
413	진짜	진::짜 예뻐요.
414	진짜	진::짜 귀여워요.
415	진짜	할머니 안 본 지 진::짜 오래 됐어.
416	진짜	축구 선수 돈 진::짜 많이 번대.
417	진짜	진::짜 세련됐다.
418	진짜	자전거가 진::짜 무겁잖아.
419	진짜	진::짜 뿌듯하단 표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420	진짜	진::짜 열심히 하더라.
421	진짜	그랬더니 진::짜 체질 바껴가지고…
422	진짜	진::짜 진지하게…
423	진짜	자신감 갖고 진::짜 코너킥의 달인으로 가는 거예요.
424	진짜	그러면 진::짜 행복해져요.
425	진짜	진::짜 많던데…
426	진짜	오늘 날씨 진::짜 좋다.
427	진짜	나 진::짜 그런 적 없거든.
428	진짜	얼마 안 남았지만 진::짜 행복하게 살고 가요.
429	진짜	옷이 진::짜 많을 거 같다.
430	진짜	진::짜 잘해요.
431	진짜로	사람이 침울해져요 진::짜로.
432	쫙	14년 칩니다. 2007년부터. '휴학 경험 있음'이 쫙::.
433	쫙	마지막으로 숨 마시면서 앞 목 쫙:: 길어집니다.
434	쫙	그게 쫙:: 귀결되는 건…
435	쫙	쫙:: 올라가죠.
436	쫙	체지방이 쫙:: 느는 거예요.
437	쭉	죽:: 가는 사람은…

438	쭉	손바닥 하늘 향하게 쭉:: 밀어봅니다.
439	쭉	쭉:: 올라가지 일직선으로.
440	쭉	난 사주팔자 좋아 쭉:: 올라가야해.
441	쭉	쭉:: 올라가는 거 없어요.
442	쭉	쭉:: 가죠.
443	쭉	어떤 걸 쭉:: 해 나가려면요.
444	쭉	정신력을 쭉:: 발휘할려면…
445	쭉	역사를 쭉:: 설명해주신 그 와중에…
446	천만에	천::만에.
447	천천히	괜찮아. 천::천히 먹어.
448	철저하다	웬만한 거는 우리가 믿고 서로 보듬어 주고 그렇게 사는 거지,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매순간 냉철한 이성으로 산다는 거는…
449	최대한	최::대한 하여튼 미룰 수 있는 만큼은 미루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450	최대한	왼 무릎을 최::대한 왼쪽으로 쭉:: 열어볼게요.
451	충격	충::격이다. 충격.
452	충분히	충::분히 먹어야 해요.
453	커다랗다	이게 세:계적인 커:다란 트렌듭니다.
454	커다랗다	커::다란 배가…
455	크다	여러분, 나는 돈도 큰::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 만큼 있고…
456	크다	존중력을 키우는 크::게 세 덩어리.
457	크다	숨 마시면서 손으로 원 크게 그리며 두 손 하늘 위에서 합장합니다.
458	크다	학교를 크::게 돌아서…
459	크다	열두 권짜리 큰::책을 씁니다.
460	크다	그렇기 때문에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은…
461	크다	파악이 잘 안 된 상황에서 잘못 화를 내면 진짜 큰:: 화를 입습니다.

462	크다	큰::성취나 큰 발전을 이룬 사람은…
463	크다	이게 엄마들의 가장 큰:: 실수에요.
464	크다	마음 근력 훈련의 큰::파트…
465	크다	이것만 배우서도 정말 큰::거 깨닫는 겁니다.
466	크다	큰:: 흐름은 이견이 없을 정도로…
467	큰일	장군님, 아주 큰::일 났습니다요.
468	큰일	하지만 그것 때문에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469	탈탈	밑창 한 번 탈::탈 털어줘?
470	툭	후 내쉬면서 어깨를 툭:: 내려주시고요.
471	특별히	남성 중에서 또 특::별히 부드러운 남성이 있고…
472	특별히	저는 이 중에 특::별히 하나 꼭 읽어 드리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어요.
473	퍽퍽하다	퍽퍽::하다.
474	편안하다	그렇게 편안::한 얼굴로 그런 말씀 할 수 있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475	편안하다	편안::한 그 쇼츠에 뭔가 이분이 MZ의 대표주자 같은 그런 느낌.
476	평생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니는 평생 모를 기다.
477	평생	끽해야, 잘::해야 평::생 그런 노력을 했어…
478	평안하다	기도하고 그럴 때 표정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런 걸 보면…
479	푹	한 십 년 동안 푹:: 썩다 나오면 되겠네.
480	풍부하다	이게 아주 풍::부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481	하얗다	밀가루처럼 하::애가지고.
482	한	한::번도 없었어.
483	한	서울대생이랑 인터뷰를 하고 보니까 다들 엄마가 공부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484	한	한::번도 안 입은 거.
485	한	한::번도 실패를 겪지 않은 사람은…
486	한참	그래서 한::참 줄이다가 속도가 좀 늦춰졌어요.
487	항상	계::속 좌절하고 주저앉고 하는 사람이 항::상 더 많아요.

488	항상	항::상 체크하세요.
489	항상	항::상 체크하세요.
490	허옇다	너 얼굴이 허::옇다.
491	확	거기다 물을 확:: 끼얹으면서…
492	확	확:: 늘고 있는 게…
493	확실하다	그거를 확::실하게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494	활짝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으로 활짝 열어볼게요.
495	훨씬	사냥을 할 때 혼자 하는 거 보다 여럿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496	훨씬	행복하면 훨::씬 더 공부를 잘하게 돼 있습니다.
497	훨씬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498	훨씬	더위사냥보다 훨::씬 세련된 맛이고…
499	훨씬	상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어깨가 훨::씬 더 넓어 보여요.
500	훨씬	그럼 훨::씬 더 핏이 살아요.
501	훨씬	애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502	훨씬	네, 훨::씬 더 많아요.
503	훨씬	훨::씬.
504	훨씬	거기는 경쟁이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장 출처>

Abstract

A Study on Modern Korean Length

Hur, Yuj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takes a comprehensive look at the length of modern Korean. The goal is to uncover the nature of length in utterances. Specifically, this paper discusses what types of length exist in modern Korean and how they are characterized.

Before beginning the discussion, I define the concept of length in Chapter 2.1. In this paper, a phoneme is realized as long if "it is realized longer than the same phoneme in another environment and the listener can perceive it as a long sound."

Chapter 2.2 examines the types of length that exist in modern Korean. It introduces lexical length, compensatory length, companion length, and expressive length in modern Korean and presents characteristics and examples of each. However, when I looked at each of the lengths, I realized tha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type of length exists in modern Korean. First, for lexical length,

dephonologization is so advanced that we can't be sure that the realized length is the lexical length. It's also a problem that different dictionaries have different techniques for lexical length. The second was about expressive length: not enough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function or characteristics of expressive length to provide a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a length in an utterance is expressive or not.

These problems are the subject of my attempts in chapters 3 and 4. Chapter 3 deals with problems of lexical length. In 3.1 I looked at the formation of lexical length. I focused on examples that deviate from the 'rising>length' correspondence. In doing so, I try to explain why dictionaries have different techniques for lexical length. Chapter 3.2 examines the process of lexical length dephonologization, using previous research to capture the different rates of dephonologization for different lexical types.

Chapter 4 is about expressive length. I manually collected 504 sentences of expressive length and used them in the study. First, I look at the function of expressive length, which is divided into semantic and pragmatic layers. Then I look at the phonetic and phonological features of expressive length. I also look at the syllable and phoneme positions where expressive length occurs, and how pitch and intensity look when expressive length occurs. Finally, I use 504 sentences to examine the quantitative features of expressive length. Of the 504 words collected, how many types there are, if any of them are particularly common, what their frequency by part of speech is, and what their occurrence looks like statistically.

Chapter 5 summarizes the discussion of this paper and concludes with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keywords: length, quantity, lexical length, compensatory length, companion length, expressive length
Student Number: 2021-22625